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9권 (제81회 ~ 제9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81회 — 진해사에서 마음의 원숭이가 괴물을 알아채고, 흑송림에서 세 사람이 스승을 찾다	5
제82회 — 계집이 양기를 구하고, 원신이 도를 수호하다	28
제83회 — 마음의 원숭이가 단약을 알아보고, 요염한 여인이 본성으로 돌아가다	49
제84회 — 멸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깨달음이 원만하고 크며, 법왕이 본래의 정체를 이루어 자연스럽다	72
제85회 — 마음의 원숭이가 나무의 어머니를 질투하고, 마왕이 선의 근원을 삼키려 계책을 세우다	100
제86회 — 목모가 위력을 도와 괴물을 정벌하고, 금공이 법술을 펼쳐 요사를 멸하다	127
제87회 — 봉선군에서 하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다	156
제88회 — 선도가 옥화시법회에 이르고, 마음의 원숭이가 나무에 걸리다	183
제89회 — 황사정이 헛된 잔치를 베풀고, 금목토의 계책으로 표두산을 소란케 하다	206
제90회 — 스승과 제자가 법을 전수하여 하나로 돌아가고, 도를 흠치고 선에 얽매여 아홉 영혼이 고요해지다	229

제81회 — 진해사에서 마음의 원숭이가 괴물을 알아채고, 흑송림에서 세 사람이 스승을 찾다

鎮海寺心猿知怪 黑松林三眾尋師

이야기는 이러하다. 삼장 일행이 진해선림사에 도착하자, 스님들이 그들을 맞이하며 공양을 대접했다. 네 제자가 식사를 마친 뒤, 그 여인도 음식을 조금 먹었다.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방장실에 등불이 켜졌다. 스님들은 한편으로는 삼장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온 사연을 묻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인을 훑쳐보느라 모두 등불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삼장이 처음 만난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 "주지 스님, 내일 이 보배로운 산을 떠나 서쪽으로 가려는데, 가는 길이 어떠합니까?"

주지 스님이 무릎을 꿇자, 삼장이 깜짝 놀라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주지 스님, 일어나십시오. 길을 묻는 것뿐인데 어찌 예까지 갖추어 인사를 하십니까?"

주지 스님이 대답했다. "스님께서 내일 서쪽으로 가시는 길은 평탄 하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엔 참으로 난 처한 일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여 큰 실례가 될까 두렵습디만, 방금 공양을 마쳤으니 대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 멀리 동쪽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니, 소승의 방에서 편히 쉬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저 여인은 아무래도 불편하니, 어디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주지 스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 제자들이 무슨 판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흑송림을 지나다 나무에 묶여 있는 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제자 손오공은 구해주려 하지 않았으나, 제가 보리심을 내어 구해준 것입니다. 이곳에 왔으니 주지 스님께서 적당한 곳을 정해 재워 주십시오."

주지 스님이 감사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너그러우시니, 저 여인을 천왕전으로 모셔 천왕상 뒤편에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참으로 좋군요, 좋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스님들이 여인을 천왕전 뒤편으로 데려가 잠자리에 들게 했다. 삼장은 방장에서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편히 쉬도록 권했고, 스님들은 각자 흩어졌다. 삼장이 손오공에게 당부했다. "고생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손오공은 스승을 지키기 위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밤이 깊어가니 다음과 같은 시가 어울렸다.

옥토끼 높이 솟으니 만물은 고요하고 하늘 길은 적막하여 사람 발길
끓졌네 은하수는 반짝이며 별빛은 찬란한데 누각의 북소리 들리며 밤
은 깊어만 가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갔다. 날이 밝자 손오공이 일어나 저팔계와 사
오정에게 짐과 말을 챙기라고 시키고, 삼장에게 길을 나서자고 청했
다. 하지만 삼장은 아직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다가가
불렀다. "스님!"

삼장이 머리를 까딱거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손오공이 다시 물
었다. "스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삼장이 신음하며 말했다. "왜 이리 머리는 무겁고 눈은 부어오르며,
온몸의 뼈마디가 다 아픈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자기 몸을 만져보더니 열이 나는 것을 확인
하고는 멍청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 생각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배
고프다고 밥을 몇 그릇이나 더 드시더니, 배부른 채로 바로 누워 주무
셔서 체하신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꾸짖었다. "헛소리 마라! 내가 스님께 여쭙볼 테니."

삼장이 말했다. "내가 한밤중에 용변을 보러 나갔을 때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찬바람을 맞은 모양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제 길을 가실 수 있
겠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지금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어찌 말에 올라타겠느냐? 길을 늦추게 될까 걱정이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루 스승은 평생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자식을 키울 때 금이나 은을 쏟아붓지 않아도, 그저 정성껏 살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몸이 편치 않은데 어찌 일정을 늦추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며칠 꼭 쉬시는 게 어떠신지요?"

제자들이 삼장을 정성껏 돌보는 사이, 어느덧 아침이 지나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어 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사흘이 지났다. 어느 날, 스승인 삼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오공아, 요 며칠 병이 깊어 네게 물어보지 못했구나. 그 목숨을 구해준 여인에게 누군가 가서 밥이라도 좀 가져다 주었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 여인이 어찌 되든 스승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우선 스승님 몸부터 돌보세요." 삼장이 말했다.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우선 나를 좀 부축해다오. 내 종이와 붓, 먹 좀 꺼내고 절에서 벼루 하나만 빌려 오너라." 손오공이 물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삼장이 대답했다. "편지를 한 통 써서 관청 문서와 함께 봉해두려 한다. 네가 이것을 장안까지 가져가서 태종 황제 폐하를 좀 뵈고 전해주렴."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식은 죽 먹기지요! 이 손오공이 다른 건 몰라도 편지 배달 하나만큼은 천하제일입니다. 편지를 다 쓰시면 제게 가져오세요. 제가 한 번 훌쩍 날아 장안에 가서 당나라 황제께 전해드리고, 다시 한 번 훌쩍 날아 돌아오면 스승님의 붓과 벼루

가 채 마르기도 전일 겁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을 저에게 먼저 불러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다 적고 나서 편지를 써도 늦지 않으니까요.” 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읊조렸다. “내 내용은 이러하다. 신 승려 머리 조아려 세 번 절하옵고, 만세를 삼창하며 성군께 절하옵니다. 문무 양반이 함께 보고, 사백의 공경대신이 모두 아는 바이옵니다. 예전에 어명을 받들어 동토를 떠날 때, 영산에 이르러 세존을 뵈고자 하였나이다. 뜻밖에도 길에서 액난을 만나고, 중도에서 이런 재앙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승려는 병이 깊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렵고, 불문은 깊고 멀어 하늘 문에 닿아 있나이다. 경전은 있어도 목숨이 다하면 헛수고일 뿐이니, 지금의 폐하께 아뢰오니 부디 다른 사람을 보내 (경을 가져오게) 하소서.”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정말 못 말리시겠네요! 겨우 몸이 좀 안 좋다고 벌써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만약 정말 병이 깊어 죽을 지경이 된다면 제게 말씀만 하세요. 저 손오공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거든요. 어떤 염라대왕이 감히 스승님을 데려가려 하겠으며, 어떤 판관이 감히 명부를 적겠습니까? 어떤 귀신이 감히 스승님을 끌고 가겠어요? 만약 저를 화나게 한다면, 예전에 천궁을 뒹췄던 그 성질머리를 다시 부려서 몽둥이로 저승까지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열 명의 염라대왕을 다 잡아다가 그 힘줄을 하나하나 다 뽑아버릴 테니 걱정마세요!” 삼장이 말했다. “애야, 내가 정말 위독해지면 그런 큰소리는 절대 하지 말거라.”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형님, 스승님께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 형님은 그냥 좋다고 하세요. 그래야 서로 민망하지 않죠. 우리 얼른 상의해서 말은 팔아버리고, 짐은 저당 잡힌 다음에, 관짝이라도

사서 스승님 마지막 길을 잘 모셔드립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너는 모르나 본데, 스승님은 우리 여래 부처님의 두 번째 제자이신 금선 장로님이시다. 불법을 가벼이 여긴 죄로 이런 큰 재앙을 겪게 되신 거야.”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스승님이 불법을 가벼이 여기셨다면 그냥 동토로 쫓겨나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서천으로 가서 불경을 구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요괴를 만나면 묶이고 마물을 만나면 매달리며 온갖 고초를 다 겪는 것으로 충분하지, 왜 또 병까지 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뭘 알겠느냐. 스승님께서서는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잠시 꾸벅 졸다가, 발을 아래로 뻗으며 왼발로 쌀 한 톨을 밟아 떨어뜨리셨다. 그래서 하계로 내려와 이렇게 사흘 동안 병을 앓게 되신 거야.” 저팔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 같은 늙은 돼지는 음식을 먹을 때 사방에 마구 흘리고 떨어뜨리니, 대체 몇 백 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야 할지 모르겠군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사람아, 부처님께서 중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옛 노래에 이르기를, ‘한낮에 모를 김매니 땀방울이 모 밑 흙에 떨어지네. 누가 알리오, 밥상 위의 밥이 알알이 모두 고생인 것을’이라고 했다. 스승님은 오늘 하루만 이렇게 고생하시면 내일은 관찮아지실 거다.” 그때 삼장이 말했다. “오늘따라 어제와 몸 상태가 다르구나. 목구멍이 너무 타는 것 같으니, 어디 시원한 물이라도 좀 구해다 주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됐다! 스승님께서 물을 찾으시는 걸 보니 이제 다 나으셨나 보구나. 내가 얼른 물을 떠 오마.”

손오공은 즉시 발우를 챙겨 들고 절 뒤편에 있는 주방으로 물을 뜨러 갔다. 그런데 문득 보니 스님들이 하나같이 눈이 벌겍게 충혈된 채,

소리 내어 울지는 못하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시오, 스님들. 어째 그리 속이 좁으시오? 우리가 며칠 머물다 갈 테니 떠날 때 제대로 인사도 하고, 땀값 값도 날마다 계산해서 갚을 텐데, 왜 이리 겁쟁이처럼 구시오?” 스님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오? 혹시 내 옆에 있는 저 입 큰 녀석이 먹성이 너무 좋아 스님들 살림을 거덜 낸 것 때문이오?” 스님들이 대답했다. “나으리, 이 황량한 산속에 크고 작은 스님이 백 명 남짓 있습니다. 한 사람당 나으리를 하루 대접하더라도 백 일은 거뜬히 대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 감히 나쁜 마음을 품고 식사 문제를 따지겠습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식사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면, 왜 다들 울고 있는 것이오?” 스님들이 말했다. “나으리, 어느 산에서 왔는지 모를 요괴가 이 절에 나타난 모양입니다. 밤이 되면 어린 스님 둘을 보내 종을 치고 북을 울리게 하는데, 종소리와 북소리가 멎고 나면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날 찾아보면 뒷마당에 승모와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빼만 남은 채 사람이 잡아먹힌 상태였습니다. 나으리 일행이 머무신 지 사흘 동안 우리 절에서 벌써 여섯 명의 스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저희 형제들이 겁이 나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나으리의 스승님께서 병이 드신 것을 보고도 감히 말씀드리지 못해, 참지 못하고 눈물만 몰래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운 기색으로 말했다. “말할 것도 없군! 분명 요괴가 이곳에서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내가 가서 그놈을 소탕해 주겠소.” 스님들이 말했다. “나으리, 요괴라는 것이 영험하지 않으면 요괴가 아니지요. 분명 구름을 타고 안개를 부리며 저승과 이승을 마음대로 드나들 것입니다. 옛 사람이 잘 말했듯이 ‘곧은 것 가운데 곧음도 믿지 말

고, 사람의 어질지 못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나으리, 저희 말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만약 나으리께서 그놈을 잡으신다면 이 황량한 산의 화근을 없애는 것이니 실로 삼생의 큰 복이겠지만, 만약 잡지 못하신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곤란한 일이 생긴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스님들이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속에 백 명 남짓한 스님이 있지만, 모두 어릴 때부터 출가한 이들뿐입니다. 머리가 자라면 칼을 찾아 깎고, 옷이 해지면 기워 입을 뿐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손을 모아 몸을 굽혀 대도에 귀의하며, 밤에는 향을 피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를 마주치며 아미타불을 염송할 뿐입니다. 머리를 들어 구품연화를 바라보고, 삼승의 자비로운 법선(法船)과 법운(法雲)을 익히며, 기원정사의 석가세존 뵈기를 원하옵니다. 머리를 숙여 마음을 살피며, 오계(五戒)를 받아 대천세계 중생을 제도하고, 나고 나는 온갖 법 가운데서 완공(頑空)과 색공(色空)을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보시하는 이들이 오면, 노인과 아이, 키 큰 이와 작은 이, 뚱뚱한 이와 마른 이가 모두 모여 목어를 두드리고 경쇠를 울리며, 다닥다닥 붙어 앉아 두 권의 《법화경》과 한 책의 《양황참(梁皇懺)》을 읽습니다. 하지만 보시하는 이들이 오지 않으면, 새 신도든 옛 신도든, 낮선 이든 낯익은 이든, 촌스러운 이든 말쑥한 이든, 저마다 합장하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부들방석 위에서 선정에 들고, 달빛 아래 문을 굳게 닫아겁니다. 꾀꼬리 울고 새가 지저귀며 부질없이 다투어도 우리의 방편과 자비의 대법승(大法乘)에는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랑이를 굴복시킬 줄도 모르고, 용을 항복시킬 줄도 모릅니다. 요괴가 무엇인지, 정령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만약 나으리께서 그 요괴를 자극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백 명의 스님은 그놈의 한 끼 식사

거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저희 중생들이 윤회의 굴레로 떨어질 것이요, 둘째로 이 선림의 옛 자취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며, 셋째로 여래의 법회에 반 점의 광채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걱정하는 곤란한 일입니다.”

손오공은 스님들이 요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율화가 치밀어 올라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스님들! 참으로 어리석으시구려! 요괴가 나타난 것만 알면 됐지, 이 손오공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신단 말이오?"

스님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내가 오늘 내 과거를 좀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시오. 나도 한 때 화과산에서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제압하던 몸이었소. 천계에 올라가 대궐을 뒤엎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지. 배가 고플 때는 태상노군의 금단을 두세 알 덩석 깨물어 먹었고, 목이 마를 때는 옥황제의 술을 대여섯 잔이나 흘쩍 마셔버렸단 말이오. 이 눈을 보시오, 희지도 검지도 않은 이 금빛 눈을! 하늘이 어둡고 달빛이 흐릿한 밤에도 나는 이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오. 그리고 이 적당히 길고 묵직한 여의봉을 들고 다니는데, 나타날 때는 그림자도 없고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지. 요괴니 괴물이니 하는 것들이 대체 무엇이 두렵겠소? 내가 한 번 달려

들면 놈들은 도망치고, 떨고, 숨고, 허둥대며 정신을 못 차릴 것이오. 내가 한 번 붙잡으면 갈아버리고, 태워버리고, 빵아버리고, 찢어버릴 테니까! 그야말로 여덟 신선이 바다를 건너듯, 나 혼자서 천하무적의 신통력을 발휘하겠다는 말이오. 스님들, 내가 저 요괴를 직접 잡아 보여줄 테니,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손오공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이오!"

스님들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저 머리 깎은 중이 입을 크게 놀리며 큰소리를 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보통 내력은 아닌 모양이구나.' 스님들은 모두 연신 맞장구를 치며 동조했다. 오직 한 라마 승려만이 이렇게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네 스승님께서 몸이 편치 않으신데, 네가 저 요괴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은 아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잔치에 나간 선비는 취하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전쟁터에 나간 장수는 죽지 않아도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네가 저 요괴와 한판 붙다가 혹여라도 스승님께 해가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우선 시스님께 시원한 물이라도 좀 떠다 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발우를 챙겨 물을 담아 향적주(음식을 만드는 곳)를 지나 방장실로 달려가 외쳤다. "스님, 시원한 물 가져왔습니다!" 마침 삼장이 목이 타들어 갈 듯 갈증을 느끼던 참이라, 고개를 들어 손에 든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참으로 갈증이 날 때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감로수와 같고, 딱 맞는 약이 투여되면서 병이 즉시 낫는 법이었다. 손오공이 스님의 기운이 점점 살아나고 표정도 밝아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스님, 이제 죽이라도 좀 드시겠습니까"

까?" 삼장이 대답했다. "이 물이 마치 영약 같구나. 병세가 절반은 가신 것 같으니, 죽이 있다면 조금 먹을 수 있겠다." 손오공이 연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스님께서 나오셨다! 이제 죽을 드셔야겠다!" 그 소리에 스님들이 분주히 움직여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밀가루를 반죽해 전을 부치고, 만두를 찌고, 국을 끓여서 네다섯 상을 차려냈다. 삼장은 쌀죽을 반 그릇 정도 겨우 먹었고, 손오공과 사오정은 한 상 정도를 먹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저팔계가 배가 터지도록 먹어 치웠다. 식사가 끝나고 그릇들을 치운 뒤 등불을 밝히자, 스님들은 각자 흩어졌다.

삼장이 물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문 지 며칠이나 되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사흘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딱 나흘째가 됩니다."

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흘 동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그리 많이 늦은 것도 아닙니다. 내일 출발하면 되지요."

삼장이 말했다. "그래, 몸에 병까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내일 출발할 거라면, 일단 오늘 밤에 요괴부터 잡고 보겠습니다."

삼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또 무슨 요괴를 잡겠다는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이 절에 요괴가 하나 숨어 있으니, 제가 대신 잡아버리겠습니다."

삼장이 만류하며 말했다. "제자야,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어찌 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만약 그 괴물이 신통력이 뛰어나서 네가 잡지 못하더라도 하면, 결국 나를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은 제 기를 너무 죽이십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며 요괴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구에게도 뒤흔진 적이 없는데, 손을 쓰지 않을 뿐이지 일단 손을 쓰면 반드시 이깁니다."

삼장이 손을 붙잡으며 간곡히 말했다. "제자야, 옛말에 이르기를 '형편이 허락할 때 편안히 넘어가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했다. '애써 마음을 쓰는 것보다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이 낫고, 기운을 다투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고결한 법이다'라고도 하였다."

손오공은 스승이 요괴를 잡지 말라며 간곡히 권하자,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스승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요괴가 여기서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삼장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무슨 사람을 먹었다는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문 사흘 동안, 벌써 이 절의 어린 스님 여섯 명을 잡아먹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하듯, 같은 처지의 동료가 죽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저 요괴가 절의 스님들을 잡아먹

었으니 나 또한 스님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 부디 마음을 다해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 손이 닿기만 하면 단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스승을 잘 지키라고 당부한 뒤, 기쁜 마음으로 방장실에서 뛰쳐나와 불전으로 향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으나 아직 달이 뜨기 전이라 불전 안은 칙흑같이 어두웠다. 손오공은 입에서 진화(眞火, 신령한 불)를 내뿜어 유리 등잔에 불을 밝히고, 동쪽에서는 북을 치고 서쪽에서는 종을 울렸다. 소리가 잦아들자 손오공은 몸을 흔들며 열두세 살쯤 된 어린 스님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노란 비단 저고리에 흰 천으로 만든 장삼을 입은 채, 손으로는 목어를 두드리고 입으로는 경을 읊조렸다. 일경(저녁 7시~9시)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더니, 이경(밤 9시~11시) 무렵 이지러진 달이 막 떠오를 때쯤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의 기세가 이려했다. 시로 이르되, 검은 안개는 하늘을 가려 어둡고, 근심 어린 구름은 땅을 비추어 혼탁하구나. 사방은 마치 먹물을 뿌린 듯하고, 온 세상은 질푸른 빛으로 뒤섞였네. 처음에는 먼지와 흙을 날리며 휘몰아치더니, 다음에는 나무를 쓰러뜨리고 숲을 꺾어버리네. 먼지가 날릴 때 별빛이 드러나고, 나무가 꺾일 때 달빛은 흐려지네. 바람이 불어오니, 상아는 사라나무를 꼭 껴안고 옥토끼는 약사발을 찾아 헤매며, 아홉 별의 신들은 모두 문을 닫고, 사해의 용왕들은 일제히 문을 잠그는구나. 사찰의 성황신은 부하 귀신들을 찾고, 하늘의 선녀는 어찌 구름을 타고 오랴. 저승의 염라대왕은 마면(馬面)을 찾고, 판관들은 머릿수건을 쫓아

허둥지둥 뛰어다니네. 곤륜산 꼭대기의 돌까지 흔들고, 강과 호수의 물결을 뒤섞어 놓는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문득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오더니, 옥 장신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손오공이 몸을 낮추어 고개를 들어 보니, 아! 아름다운 여인이 불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손오공은 경을 읊는 척하며 입으로 중얼거렸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와 손오공을 덱석 껴안으며 말했다. “꼬마 스님, 무슨 경을 읽고 있니?” 손오공이 말했다. “바친 서원이 있어 읽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잠들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경을 읽고 있어?” 손오공이 대답했다. “서원을 바쳤으니 어찌 읽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손오공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와 함께 뒷뜰에 가서 좀 놀자꾸나.” 손오공은 짐짓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남자께서는 도리를 모르시는군요.” 여인이 물었다. “네가 관상을 볼 줄 아니?” 손오공이 말했다. “조금은 압니다.”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 관상이 어떤지 좀 봐주겠니?” 손오공이 말했다. “보아하니 남자께서는 몰래 정을 통하고 외간 남자와 어울리다가 시부모에게 쫓겨난 상이로군요.” 여인이 대꾸했다. “아니야, 틀렸어. 나는 시부모에게 쫓겨난 것도 아니고, 외간 남자와 어울려 몰래 산 것도 아니란다. 다만 전생에 운명이 기구하여 젊은 남자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을 뿐이지. 첫날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남편을 피해 도망치게 된 사연이 있단다. 마침 지금 달빛과 별빛이 이토록 밝으니, 천 리 길을 돌아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니겠니? 자, 나와 함께 뒷동산으로 가서 부부의 연을 맺자꾸나.”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저 어리석은 스님들이 색욕에 눈이 멀어 목숨을 잃었지. 저 여인도 이제 나를 꺾어내려 하는구나.’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남자, 저는 출가한 몸인 데다 아직 나이가 어려 그런 즐거운 일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인이 말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손오공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좋다, 저 여자를 따라가서 대체 어떤 수작을 부리나 지켜봐 주마.’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감싸고 손을 맞잡은 채 불전을 나와 뒷마당 정원으로 향했다. 그때 요괴가 손오공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더니, 입으로는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정신없이 부르짖으며 손을 뻗어 손오공의 은밀한 곳을 짝 움켜쥐려 했다. 손오공이 “이놈아, 정말 나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하고 외치며 요괴의 손을 낚아채 단숨에 메치기를 시전하자, 요괴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요괴는 바닥에 구르면서도 입으로는 “오라버니, 참으로 못된 짓을 하시네요!”라며 악을 썼다. 손오공은 속으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저놈을 잡겠느냐? 역시 선수를 치는 자가 강하고, 뒤처지는 자가 화를 당하는 법이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몸을 숙였다가 꺾충 뛰어들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금고봉을 휘둘러 머리부터 사정없이 내리쳤다. 요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이 어린 스님이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눈을 떠 자세히 보니, 그는 바로 당승의 제자인 손씨 성을 가진 자였다. 하지만 요괴는 전혀 겁내지 않았다. 이 요괴가 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면, 금으로 코를 만들고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으니, 땅굴은 문이 되고 집은 몸이 되어, 어디든 머물기 편안한 요새로다. 삼백 년 전부터 기운을 길러, 영산에 몇 번이나 드나들었으니, 향꽃과 초를 배불리 먹으며 여래의 명을 받들어 하늘 관아(天曹)로 내려왔도다. 탁탑천왕(托塔天王)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나타 태자와는 친형제나 다름없으니, 바다를 메우는 새도 아니고 머리에 산을 이고 가는 거북도 아니로다. 뇌환검의 칼날도 두렵지 않고 여건의 칼날도 무섭지

얇으니, 물길이 강과 한수처럼 넓게 흘러가도 마음대로 오가고, 산이
 태산과 향산처럼 높이 솟아도 위아래로 거침이 없도다. 달처럼 아름답
 고 꽃처럼 고운 그 미모를 보라, 그게 사실은 쥐가 늙어 요괴가 되어 위
 세를 뽐내는 것임을 누가 알겠는가. 자신의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믿은
 요괴는 즉시 쌍검을 뽑아 들었다. 검이 부딪칠 때마다 찡강챙강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요괴는 검을 휘두르며 손오공의 공격을 막아내며 좌우로
 요리조리 피했다. 손오공이 기세는 좋았으나 요괴를 완전히 쓰러뜨리
 지는 못했다. 음산한 바람이 사방에서 일고 그믐달조차 빛을 잃은 밤,
 뒷마당에서는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음산한 바람은 땅에
 서 일어나고, 이지러진 달은 희미한 빛을 뿌리는데, 고요한 범왕의 사
 찰과 쓸쓸한 소귀들의 복도, 뒷마당이 온통 전쟁터로 변했도다. 손 대
 사는 하늘의 성자요, 모차녀(毛姦女)는 여인 중의 왕이라, 서로 신통력
 을 겨루며 어느 한쪽도 물러설 줄 모르네. 한쪽은 검은 머리 까까중을
 향해 고운 마음을 뒤틀며 화를 내고, 한쪽은 새 단장한 모습을 미워하
 며 지혜로운 눈을 부릅뜨네. 두 손의 검이 날아다니니 그 모습이 여보
 살인지 알 수 없고, 한 자루 몽둥이가 휘둘러지니 살아있는 금강역사처
 럼 매섭구나. 금고봉이 번개처럼 내리칠 때마다 쇠봉의 흰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옥루가 비취를 움켜쥐듯, 금전이 원앙을 부수듯 격렬하도
 다. 원숭이 울음소리는 파산의 달 아래 잦아들고, 기러기 울음은 초 땅
 먼 하늘에 길게 퍼지는데, 열여덟 나한은 몰래 갈채를 보내고, 서른두
 하늘의 신들은 모두 당황하는구나. 손오공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몽둥
 이를 휘둘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몰아붙였다. 요괴는 상대가 버티기
 힘들 것을 직감하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꼬를 내어 몸을 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이 고약한 년아, 어디를 가느냐! 어서
 와서 항복해라!” 그러나 요괴는 대꾸도 없이 뒤로 물러나기만 했다. 손

오공이 급히 뒤쫓아간 찰나, 요괴는 왼쪽 발에 신던 꽃신을 벗어 들고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주문을 외웠다. “변해라!” 소리와 함께 꽃신은 요괴 자신의 모습으로 변해 쌍검을 휘두르며 손오공을 상대했고, 진짜 몸은 한 번 휘익 돌려 맑은 바람으로 변해 사라져 버렸다. 이 요괴가 바로 삼장의 재앙이 아니겠는가? 요괴는 곧장 방장실로 달려가 당승을 낚아채 구름 위로 날아올랐다. 아득하고 어두운 가운데 눈 깜짝할 사이에 함공산 무저동에 이르렀고, 요괴는 부하들에게 채식 잔치를 준비하여 혼례를 치를 채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이 일은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손오공은 싸움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질이 급해졌다. 그는 순식간에 허공을 가로질러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요괴가 맞아서 떨어지며 남긴 것은 꽃신 한 짝뿐이었다. 손오공은 자신이 요괴의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몸을 돌려 스승을 살피려 했으나, 스승은 온데간데없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떠들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앞뒤 가릴 것 없이 몽둥이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두르며 소리쳤다. “너희를 다 때려죽여 버리겠다! 죽어 봐라!” 저팔계는 겁에 질려 도망칠 길조차 찾지 못했다. 반면, 영산의 대장군 출신인 사오정은 워낙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라 상황을 보고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형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둘을 때려죽이실 작정이 라면, 스승님은 구하러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려는 거군요.” 손오공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너희 둘을 죽여 버리고, 나 혼자 스승님을 구하러 가겠다!” 사오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둘이 없으면 정말 ‘외올실로는 노끈을 풀 수 없

고,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입니다. 형님, 이 짐과 말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관중과 포숙아처럼 의리로 금을 나누는 법을 배우 시지, 손빈과 방언처럼 서로 지략을 다투며 해치지는 마십시오. 예부터 '호랑이를 잡으려면 친형제가 힘을 합쳐야 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부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매질을 멈춰 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형님과 마음을 합쳐 힘을 모아 스승님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손오공이 비록 신통력이 광대하다 하나, 도리를 알고 때를 아는 인물이었다. 사오정이 간곡히 애원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누그러져 말 했다. "팔계야, 사오정아, 너희 둘 다 일어나거라. 내일 스승님을 찾으려면 힘을 써야 한다." 저팔계는 매를 면했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져서, 당장이라도 하늘이 반쪽이라도 갈라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외쳤다. "형님, 그 일은 이 저팔계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이런저런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은 차라리 고개를 끄덕여 부상(扶桑)의 해를 불러내고, 입바람 한 번에 온 하늘의 별을 불러 흩어 버리고 싶을 만큼 날이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세 제자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채비를 마치고 떠나려 했다. 그때 절의 스님들이 문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말하자면 길고 복잡합니다. 어제 스님들 앞에서 요괴를 잡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요괴는 못 잡고 도리어 스승님만 잃어버렸지 뭐니까. 그래서 지금 스승님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들이 겁에 질려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날 말씀이군요. 저희 일 때문에 스승님까지 화를 당하시다니요. 대체 어디로 스승님을 찾으러 가시려는 겁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어딘가 찾을 곳이 있겠지요."

스님들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가시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아침 공양부터 좀 하시고 가십시오."

스님들은 얼른 탕과 밥을 두세 대접이나 내왔다. 저팔계는 힘을 다해 깨끗이 비워내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스님들. 저희가 스승님을 찾고 나면 다시 이곳으로 놀러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여기에 다시 와서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나저나 천왕전에 그 여인이 아직 있는지 좀 봐주세요."

스님들이 대답했다. "아이고, 그 여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어제 하룻밤 묵었을 뿐이지,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사라졌습니다."

손오공은 기분 좋게 스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말과 짐을 챙기라고 시킨 뒤 곧장 동쪽으로 향했다.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왜 갑자기 다시 동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네가 뭘 알겠느냐? 엇그제 흑송림에서 붙잡혀 있던 그 여자를 내 화안금정(요괴를 꿰뚫어 보는神通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너희는 그 여자를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겠지만, 오늘 스님들을 해치는 것도 그 여자고, 스님을 납치해 간 것도 바로 그 여자다. 너희는 보살님을 구한 게 아니라 요괴를 구한 셈이지. 이미 스님을 납치해 갔으니, 예전

에 갔던 그 길을 따라 다시 찾아가야겠다." 두 사람은 손오공의 예리함에 감탄하며 말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형님은 겉으론 덜렁대도 속은 아주 깊으시군요. 갑시다, 어서 갑시다!"

세 사람은 급히 숲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의 풍경은 이러했다.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안개는 자욱하며, 바위는 층층이 쌓여 있고 길은 구불구불 굽이쳐 있었다. 여우와 토끼의 흔적이 뒤섞여 지나가고 호랑이와 표범, 승냥이와 이리들이 이리저리 드나들었다. 그러나 숲속 어디에도 요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니, 삼장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손오공은 마음이 초조해져서 여의봉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는 몸을 흔들며 천궁을 뒤엎던 시절의 본래 모습으로 변신했다. 머리 셋에 팔 여섯 개가 달린 모습으로, 여섯 개의 손에는 세 개의 봉을 각각 쥐고 숲속을 헤집으며 마구 휘둘러댔다.

그 모습을 본 저팔계가 말했다. "사오정, 형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네. 스승님을 못 찾으니까 아주 성질머리가 불같이 지셨어."

알고 보니 손오공이 길을 따라 마구 휘두르며 가다가 노인 두 명을 때려눕힌 것이었다. 한 명은 산신이었고, 한 명은 토지였다. 두 신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성, 산신과 토지가 뵙습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재주네. 길을 따라 마구 휘두르기만 해도 산신이랑 토지가 튀어나오다니. 여기서 좀 더 휘두르면 태세(太歲, 하늘의 중심을 지키는 신)라도 튀어나오겠어."

손오공이 물었다. "산신과 토지 너희들, 어찌 이리 무례하냐! 이곳에서 도둑 떼와 짜고 강도질을 일삼다니. 강도들이 물건을 훔치면 돼지나 양을 사서 너희에게 제물로 바치고, 요괴와 결탁하여 내 스승님까지 납치해 갔지 않느냐. 지금 어디에 숨겼는지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매를 맞기 싫으면!"

두 신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성, 저희를 오해하셨습니다. 요괴는 저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할 밖의 일입니다. 다만 밤중에 바람이 세게 불던 곳을 보니 대략 짐작 가는 곳은 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알고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라."

토지가 대답했다. "요괴가 스승님을 납치해 간 곳은 정남쪽으로 이 곳에서 천 리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함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안에 무저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산에 사는 요괴가 이곳까지 와서 변신해 스승님을 잡아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내심 깜짝 놀랐다. 그는 산신과 토지를 꾸짖어 물러나게 한 뒤, 신통력을 거두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말했다. "스승님이 멀리 가셨다."

저팔계가 말했다. "멀면 구름을 타고 달려가면 되지요!"

"이 멍청한 녀석아!"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먼저 일어났다. 뒤이어 사오정이 구름을 몰았고, 원래 용왕의 자식인 백룡마도 짐을 실은 채 바람과 안개를 뚫고 나아갔다. 손오공 역시 근두운을 타고 곧장 남쪽으로 날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산 하나가 나타나 구름의

길을 가로막았다. 세 사람은 말을 멈춰 세우고 구름 위에 자리를 잡았다. 눈앞에 펼쳐진 산의 모습은 이러했다.

산봉우리는 푸른 하늘에 맞닿아 있고,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는 구름 위로 솟아 있다. 주변에는 온갖 나무가 만 갈래 천 갈래로 뻗뻗하며, 날 아다니는 새들은 깁깁거리며 시끄럽게 울어댄다. 호랑이와 표범은 떼를 지어 누비고, 노루와 사슴은 덤불 사이를 헤치며 지나간다. 햇빛이 드는 곳에는 기이한 꽃과 보배로운 풀들이 향기를 풍기지만, 그늘진 곳은 쌓인 눈과 단단한 얼음이 녹지 않고 그대로다. 험준한 고개와 가파른 능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어지고, 우뚝 솟은 봉우리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굽이쳐 흐른다. 소나무는 울창하고 바위는 번뜩이니, 길 가는 이라면 누구든 보고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다. 땀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약초를 캐는 신선 아이들도 자취를 찾을 수 없다. 눈앞의 호랑이와 표범은 안개를 일으키고, 땅 위의 여우들은 바람을 휘저으며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산이 이렇게 험악한 걸 보니 분명 요괴가 살고 있을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말할 것도 없다. 산이 높으면 원래 괴물이 있는 법이고, 고개가 험하면 어찌 요괴가 없겠느냐? 사오정, 너와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 저팔계 네가 먼저 산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서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너라.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동굴 같은 곳이 있는지, 문은 어디로 나 있는지 낱알이 살펴보고 와야 우리가 힘을 합쳐 스승님을 구할 수 있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이 재수 없는 놈 같으니, 왜 나한테 독박을
씌우는 거야?"

손오공이 대꾸했다. "밤새도록 네가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이제
와서 어찌 하겠다는 거냐?"

저팔계가 말했다. "시끄러워요, 그냥 다녀올 테니까!"

저팔계는 갈퀴를 내려놓고 옷을 툭툭 던 뒤, 빈손으로 높은 산 아래
를 향해 길을 찾아 뛰어 내려갔다.

이렇게 길을 떠났으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 없구나.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2회 — 계집이 양기를 구하고, 원신 이 도를 수호하다

姤女求陽 元神護道

한편, 저팔계는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가 작은 길을 찾아 나섰다. 길을 따라 5, 6리쯤 들어갔을까, 갑자기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는 여괴 두 명이 나타났다. 저팔계가 그들이 여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들의 머리 위에 1척 2, 3촌 높이로 땅아 올린 대나무 가닥 머리 모양이 아주 유별나 보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저팔계는 그들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요괴다!"

그 소리를 들은 여괴들은 크게 화가 나서 서로 말했다.

"이 스님 참 무례하기도 하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데다 평소에 말버릇도 곱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우리를 요괴라고 부른단 말이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여괴는 물을 길던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저팔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어리석은 녀석은 무기조차 없어서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다. 요괴에게 몇 대 얻어맞고 나서야 머리를 감싸 쥐고 산 위로 도망쳐 오며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요괴들이 아주 사나워요.” 손오공이 물었다. “얼마나 사나운데?” 저팔계가 대답했다. “산 골짜기 안에서 여자 요괴 둘이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불렀더니, 작대기로 나를 서너 대나 때리더라니까요.”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너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요괴라고 불렀죠.”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저 참, 덜 맞았구나.”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챙겨주시는 건 고마운데, 머리가 이렇게 부어올랐는데도 덜 맞았다니요!” 손오공이 타이르듯 말했다. “부드럽게 대하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강하게만 나가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법이다. 그들은 이 땅의 요괴이고, 우리는 멀리서 온 승려가 아니냐. 네가 비록 온몸이 손이라 해도(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좀 부드럽게 굴어야지. 네가 가서 요괴라고 불렀으니, 그들이 너를 때리지 나를 때리겠느냐? 사람은 예의를 우선으로 삼는 법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도무지 모르겠네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산속에서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았으니, 나무 두 종류에 대해서는 모르겠구나?” 저팔계가 물었다. “모르죠. 그게 무슨 나무인데요?” 손오공이 설명을 이어갔다. “하나는 버드나무고, 하나는 단목(檀木)이다. 버드나무는 성질이 부드러워서 솜씨 좋은 장인이 가져다가 성상이나 여래상을 조각하고, 금칠을 하고 분을 입히고 옥을 박아 꽃을 장식하면, 수만 명이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니 그 무량한 복을 얼마나 받겠느냐. 하지만 단목은

성질이 단단해서, 기름집으로 가져가 기름 짜는 썰기(柞撒)를 만들어 쇠테로 머리를 조이고 쇠망치로 내리치니, 그저 너무 강한 탓에 그런 고초를 겪는 것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그런 좋은 말씀은 진작 좀 해주셨어야죠. 그랬으면 매를 맞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가서 사정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오너라.” 저팔계가 걱정하며 말했다. “가면 저를 알아볼 텐데요.” 손오공이 제안했다. “변신을 해서 가거라.”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형님, 제가 변신해서 가면 대체 뭐라고 물어봐야 합니까?” 손오공이 일러주었다. “변신해서 그들 앞에 가서 인사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봐, 우리와 비슷해 보이면 ‘낭자(姑娘)’라고 부르고,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면 ‘할머니(奶奶)’라고 불러라.”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그것참 고약하네요. 이렇게 먼 땅에서 무슨 친척을 알아보라는 말씀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친척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떠보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스승님을 잡아간 것이 맞다면 바로 손을 쓸 수 있을 테고, 만약 아니라면 헛수고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팔계가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멍청한 녀석은 갈퀴를 허리춤에 찔러 넣고 산골짜기로 내려가, 몸을 한 번 흔들며 검고 뚱뚱한 스님으로 변신했다. 저팔계는 몸을 건들거리며 요괴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할머니, 빈승이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두 요괴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 스님 참 괜찮네! 인사도 잘하고 호칭도 잘 붙이는구먼.” 요괴들이 물었다. “장로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어디서 왔지요.” 또 물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팔계가 또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지요.” 다시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제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 좋긴 좋은데 내력이 없네. 그저 입에 붙는 말만 따라 하는구먼.” 저팔계가 슬쩍 물었다. “할머니, 물은 왜 긴고 계십니까?” 그러자 요괴가 말했다. “스님은 모르시나 본데, 우리 집 노부인께서 오늘 밤 동굴 안으로 당승 한 분을 잡아 오셨다네. 그를 대접하려는데 우리 동굴 물은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 둘을 보내 이 음양이 어우러진 좋은 물을 길어 오라 하셨지. 소박한 과일과 채소로 잔칫상을 차려 당승에게 대접하고, 밤에는 혼례를 치를 작정이라네.”

그 어리석은 놈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몸을 돌려 산 위로 뛰어 올라가며 외쳤다. "사오정, 어서 짐을 가져와라! 우리 이제 갈라서자!" 사오정이 물었다. "둘째 형님, 또 왜 갈라서자는 말씀이세요?" 저팔계가 말을 이었다. "갈라서면 그만이지! 그러면 너는 다시 유사하로 돌아가 사람을 잡아먹고, 나는 고로장으로 돌아가 친척들을 만나고, 형님은 화과산으로 가서 성인 대접을 받으며, 백룡마는 바다로 돌아가 용이 되면 되잖아. 스승님은 이미 저 요괴 동굴에서 혼례를 치르고 계시니, 우리도 각자 갈 길을 가자고."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형님 아들이 헛소리하는 거지! 아까 물을 길던 그 두 요괴가 말하길, 이미 소박한 잔치를 차려놓고 당삼장과 혼례를 치를 준비를 마쳤다고 했던 말이야." 손오공이 꾸짖었다. "그 요괴가 스승님을 동굴 안에 가두어 놓았으니, 스승님은 우리가 구하러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가 어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팔계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구하자는 건데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희 둘은 말을 끌고 짐을 짊

어진 채, 저 여자 요괴들을 따라가며 길잡이 노릇을 해라. 그들을 동굴 문 앞까지 자연스럽게 유인한 다음, 그때 한꺼번에 달려들자꾸나."

정말 어리석은 팔계는 그저 뒤를 따를 뿐이었다. 손오공이 멀리서 그 두 요괴를 눈여겨보며 따라가 보니, 어느덧 깊은 산속으로 스무 리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요괴들이 보이지 않았다.

팔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스승님이 낮에 나타나는 귀신에게 홀려 잡혀갔나 봐요!"

손오공이 말했다. "네 눈썰미가 아주 좋구나. 어떻게 그 정체를 단번에 알아챘느냐?"

팔계가 대답했다. "그 두 요괴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갑자기 속사라졌는데, 그게 낮에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손오공이 말했다. "아마 동굴 속으로 숨어든 모양이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마."

정말 훌륭한 대성이라! 손오공이 급히 화안금정(불같은 눈)을 부릅뜨고 산 전체를 둘러보았으나, 과연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러다가 파른 절벽 앞에 화려하게 장식된 패루(牌樓)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오색찬란한 꽃과 무늬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처마가 세 겹에 네 무리로 겹쳐 멋스럽게 솟아 있었다. 손오공이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 위에는 ‘함공산 무저동(陷空山無底洞)’이라는 커다란 글자 여섯 자가 적혀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들아, 요괴가 이렇게 패루만 세워 놓았으니, 정작 문이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모르겠구나.” 사오정이 말했다. “멀지 않을 겁니다, 멀지 않아요. 잘 찾아봅시다.” 세 사람이 몸을 돌려 살피던 중, 패루 아래 산기슭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둘레가 십여 리나 될 만큼 거대했고, 정중앙에 항아리 입구만 한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안쪽은 미끈미끈하게 닳아 있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저게 바로 요괴가 드나드는 동굴인가 봅시다.” 손오공이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상하구나! 내가 삼장법사를 보호해 온 이래로—너희 둘에게 숨길 것도 없다만—요괴도 제법 잡아 보았는데, 이런 동굴 소굴은 본 적이 없다. 저팔계, 네가 먼저 내려가서 얼마나 깊은지 시험해 봐라. 그래야 내가 스승님을 구하러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팔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 몸이 이렇게 둔중한데, 만약 발을 헛디뎈 떨어지기라도 하면 바닥에 닿는 데 2, 3년은 걸릴지 모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렇게나 깊단 말이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한번 보세요.” 대성이 바위 구멍가에 엎드려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이쿠! 깊기도 하여라, 둘레가 족히 삼백여 리는 되어 보였다. 손오공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형제들아, 정말이지 끔찍하게 깊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그럼 그냥 돌아갑시다. 스승님을 구하는 건 틀린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꾸짖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게으름 피울 생각 말고, 나태한 마음을 버려라. 우선 짐을 내려놓고 말을 저 패루 기둥에 묶어 두어라. 저팔계 너는 갈퀴를, 사오정 너는 항요장(降妖杖)을 들고 동굴 입구를 막고 있거라. 내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알아볼 테니. 만약 스승님이 정말 안에 계신다면, 내가 여의봉으로 요괴를 안에서 때려 밖으로 몰아내 입구까지 달려 나오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 둘이 밖에서 막아주면 안팎으로 호응하는 셈이니, 요괴를 때려죽여야 비로소 스승님을 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명령을 받들었다.

손오공은 몸을 휙 날려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다. 발밑에는 오색구름이 만 갈래로 피어오르고, 몸 주변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천 겹으로 감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숙한 곳에 다다르니, 그곳은 마치 대낮처럼 밝고 환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꽃과 풀, 과일나무가 가득했다. 손오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참 좋은 곳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 하늘이 수렴동을 내려주더니, 여기도 아주 멋진 동천복지(신선이 사는 낙원)로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소나무와 대나무로 둘러싸인 문루가 있고, 그 안에는 방들이 여럿 늘어서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는 분명 요괴가 사는 곳이겠군.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다. 잠깐, 이 모습 그대로 갔다가는 들켜겠어. 변신을 하고 가야겠다.' 손오공은 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워 파리로 변신한 뒤, 문루 위를 가볍게 날아다니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요괴가 초가 정자에 높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예전에 소나무 숲에서 구해주었을 때나 절에서 잡아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

머리는 까마귀 떼를 쌓아 올린 듯 곱게 말아 올리고, 몸에는 초록색 비단 꽃무늬 조끼를 입었구나. 금빛 연꽃 같은 발은 살짝 굽어 있고, 열 손가락은 마치 봄에 돋아나는 죽순 같네. 둥글고 하얀 얼굴은 은쟁반처럼 빛나고, 붉은 입술은 매끄러운 앵두 같구나. 단정하고 고운 미인의 자태를 보니, 달 속에 사는 항아조차 질투할 정도라. 오늘 저 구법 승려를 잡아다가, 즐겁게 한 침상에서 함께 지내리라.

손오공은 아무 말 없이 요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잠시 후, 요괴가 앵두 같은 입술을 달짝이며 기쁜 듯이 외쳤다. "애들아! 어

서 채식 연회를 차려라! 내가 당승 형님과 혼례를 올릴 것이니라!" 손오공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나는 팔계가 장난삼아 지껄이는 소린 줄만 알았지. 우선 안으로 날아가서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봐야겠다. 스승님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을까? 만약 요괴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차라리 여기 그냥 두는 게 낫겠어.' 손오공은 즉시 날개를 펴고 안쪽으로 날아 들어갔다. 그러자 동쪽 복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교차하는 붉은 종이 창문 뒤에 당삼장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은 문틈을 뚫고 날아가 당삼장의 대머리 위에 내려앉으며 외쳤다. “스승님!” 당삼장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쳤다. “제자야, 나 좀 살려다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이제 틀렸습니다. 저 요괴가 잔치를 베풀어서 스승님과 혼인하려나 봅니다. 그러다 아들딸이라도 하나 낳으면 그게 다 스승님의 후손이 될 텐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은 이를 갈며 말했다. “제자야, 내가 장안을 떠나 양계산에서 너를 거둔 뒤로 줄곧 서쪽으로 오면서 언제 고기를 먹었으며, 언제 부정한 마음을 품었던 말이냐? 그런데 이제 요괴에게 붙잡혀 혼인을 강요당하다니. 만약 내가 진양(眞陽)을 잃게 된다면 몸이 윤회에 떨어져 음산(陰山) 뒤편에 처박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맹세는 하지 마세요.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손오공이 데려다 드릴 테니까요.” 당삼장이 말했다. “들어온 길을 까맣게 잊어버렸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잊으신 것은 둘째치고, 이 동굴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파고들어 와야 하거든요. 지금 스승님을 구하려면 아래에서 위로 파고 올라가야 합니다. 운이 좋으면 동굴

입구에 맞닿아 나갈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구멍을 못 찾고 답답해 죽을 날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당삼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토록 험난하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요괴가 스승님께 술을 대접할 텐데, 어쩔 수 없이 한 잔 드셔야 합니다. 다만 술을 따를 때 거품이 꽃 모양처럼 한 송이 일도록 급히 따르세요. 그러면 제가 작은 벌레(蟪蛄蟲)로 변신해서 그 술거품 아래로 날아 들어가겠습니다. 요괴가 저를 한입에 삼키면, 제가 그 배 속에서 심장과 창자를 헤집어 요괴를 죽여버릴 테니, 그때 스승님은 몸을 빼내시면 됩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그런 말은 참으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자꾸 선행만 베풀려 하다가는 목숨을 잃습니다. 요괴는 사람을 해치는 근원인데, 어찌 그를 아끼십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그저 내 곁을 지켜다오.” 시로 이르되, 손 대성께서 당삼장을 호위하니, 경전을 구하는 승려는 오직 미후왕에게 달려 있구나. 두 사람이 상의를 마치기도 전에, 요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 요괴가 동쪽 복도로 다가와 문빛장을 열며 외쳤다. “장로님!” 당삼장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요괴가 다시 한번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입을 열면 정신과 기운이 흩어지고, 혀를 움직이면 시비가 생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듯이 입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는 요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순식간에 목숨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마음이 입에 게 묻고, 거둬 생각하며 참는 입이 마음에게 묻는 격이었다. 당삼장이 망설이고 있을 때, 요괴가 다시 한번 불렀다. “장로님!” 당삼장은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부인, 여기 있소.” 당삼장이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마치 천근의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당삼

장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진실한 승려인데 어찌 저 여괴와 말을 섞느냐고 하겠지만, 지금은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순간이라 너무도 절박한 나머지, 비록 겉으로는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전혀 욕망이 없었던 것이다. 요괴는 당삼장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고는 손을 맞잡고 등을 기대며 귓속말을 나누었다. 요괴가 부리는 온갖 아양과 풍정은 실로 대단했다. 하지만 당삼장의 가슴속은 번뇌로 가득했다. 손오공은 몰래 웃으며 생각했다. ‘스승님이 저 요괴의 이런 꾀에 넘어가 한순간 마음이 흔들리면 큰일인데.’ 시로 이르되, 참된 승려가 마(魔)의 고통 속에 어여쁜 여인을 만나니, 요괴의 자태는 참으로 눈부시구나. 버들잎 같은 푸른 눈썹은 은은하고, 복숭아꽃 같은 붉은 얼굴은 발그레하네. 수놓은 신발 사이로 봉황 같은 두 발이 살짝 보이고, 구름 같은 쪽 진 머리는 높이 틀어 올려 양 귀밑 머리가 까마귀처럼 검네. 웃음을 머금고 스승의 손을 잡으니, 난초와 사향의 향기가 가사에 가득 풍기네. 요괴는 당삼장을 이끌고 초정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장로님, 술을 한 잔 마련했으니 함께 드시지요.” 당삼장이 말했다. “부인, 빈승은 본디 고기를 먹지 않소.” 요괴가 말했다. “고기를 안 드시는 줄 알기에, 동굴 안의 물이 깨끗하지 못해 일부러 산꼭대기에서 음양이 어우러진 정결한 물을 길어다가, 소박한 과일과 채소로 잔치를 차려 함께 즐기려는 것입니다.” 당삼장이 요괴를 따라 들어가 보니, 과연 상차림이 이러했다. 문 앞에는 수놓은 비단과 채색 매듭이 가득하고, 뜰 안에는 향로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검은 칠을 한 화려한 자개 탁자와 검은 대나무로 짠 소반들이 늘어서 있었다. 자개 탁자 위에는 진귀한 음식들이, 대나무 소반에는 희귀한 채식 요리들이 가득했다. 능금, 올리브, 연밥, 포도, 비자, 능금, 개암, 잣, 여지, 용안, 산밤, 마름, 대추, 감, 호두, 은행, 금굴, 향등 등 산에서 나

는 온갖 과일이 차려져 있었고, 채소 또한 제철의 것들이었다. 두부, 밀가루 요리, 목이버섯, 신선한 죽순, 버섯, 표고, 마, 황정이며, 석화 채와 황화채를 맑은 기름에 볶고, 까치콩과 동부콩을 익혀 장에 버무렸다. 오이와 박, 은행과 순무도 있었다. 껍질 짝은 가지는 메추라기 모양으로 빗고, 씨를 발라낸 동과는 ‘방단(方旦)’이라 이름 지었다. 흐물 흐물 삶은 토란은 설탕에 버무리고, 하얗게 삶은 무는 식초를 끼얹어 익혔다. 산초와 생강의 매콤하고 알싸한 맛이 갖가지로 좋고, 짜고 담백한 간이 고루 어우러져 빛깔마다 한결같았다. 요괴는 뽀족하고 옥 같은 손가락을 드러내어 번쩍이는 금잔을 받쳐 들고 미주를 가득 따라 당삼장에게 건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장로 오라버니, 멋진 분이세요. 이 교환주(交歡酒) 한 잔 드셔보세요.” 당삼장은 부끄러운 듯 술잔을 받아 허공을 향해 술을 부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호법 제천과 오방게체, 사치공조시여, 제자 진현장은 동토를 떠난 뒤 관세음보살께서 보내신 여러 신들의 은밀한 보호를 받으며 뇌음사를 향해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가던 중, 이렇게 요괴에게 붙잡혀 억지로 혼인을 강요당하고 이 술 한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술이 정말 소주(素酒)라면 제자가 억지로라도 마시고 부처님을 뵈어 공을 이루겠으나, 만약 고기가 든 술이라면 제자의 계율을 깨뜨려 영원히 윤회의 고통에 떨어질 것입니다.’ 손오공은 가볍게 변신하여 스승의 귓전 뒤에 ‘귀땀하는 자’처럼 붙어 있었으니, 그가 하는 말은 오직 당삼장에게만 들리고 다른 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손오공은 스승이 평소 포도로 빚은 소주를 즐긴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한 잔을 마시라고 일러주었다. 당삼장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뒤, 급히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요괴에게 돌려주었다. 과연 따를 때 거품이 꽃송이처럼 하나 일었다. 손오공은 작은 벌레(蟪蛄蟲)로 변신해 살그머니 그 거품 꽃 아래로 날아들었

다. 그런데 요괴는 잔을 받아 들고도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더니, 당삼장에게 두 번 절을 하고는 교태롭고도 수줍은 목소리로 몇 마디 정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야 잔을 들었는데, 그새 거품 꽃이 흩어지면서 벌레가 드러나고 말았다. 요괴는 그것이 손오공이 변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벌레로만 여겨, 새끼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아래로 툭 튕겨 버렸다.

손오공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단순히 몸을 던져서 그 요괴의 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곧바로 굶주린 매로 변신했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옥빛 발톱과 금빛 눈동자, 강철 같은 날개를 가졌으니, 웅장한 자태와 사나운 기세로 구름을 휘젓는다. 교활한 여우와 토끼도 그를 보면 혼비백산하여 천 리 밖으로 달아나고, 배고플 때는 바람을 타고 참새를 쫓다가 배가 부르면 하늘 문에 높이 앉아 노니네. 강철같이 단단한 발톱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뜻을 이루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길 거부하네."

매로 변신한 손오공은 날아올라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탁자와 상을 엎어버리더니, 차려놓았던 과일과 채소, 접시와 술병들을 모조리 짓밟아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는 당삼장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날아 나가 버렸다.

요괴는 간담이 서늘해져 혼비백산하였고, 당삼장 역시 온몸의 뼈와 살이 저릿할 정도로 겁에 질렸다. 요괴는 벌벌 떨며 당삼장을 끌어안고

물었다. "스님, 이 괴물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소승은 알지 못합니다."

요괴가 투덜거렸다. "내가 정성을 다해 이 채소 잔치를 준비해서 스님과 즐기려 했는데, 저 깃털 달린 짐승 놈이 어디서 날아와 내 집안 살림을 다 망쳐놓았던 말인가!"

그러자 작은 요괴들이 거들었다. "부인, 살림살이가 깨진 거야 그럴 수 있다지만, 이 귀한 음식들을 땅바닥에 다 흩뿌려 놓았으니 이를 어찌 씹니까? 너무 지저분해졌습니다."

당삼장은 이것이 손오공의 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요괴가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아마도 내가 당삼장을 가두어 두려 하니,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아 저런 것이 내려온 모양이구나. 너희는 깨진 살림살이들을 치워버리고, 고기든 채소든 상관 말고 다시 술과 안주를 새로 차려라. 내가 하늘을 중매로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아, 다시 당삼장과 혼례를 올릴 것이니라."

요괴는 다시 당삼장을 동쪽 복도에 앉혀 두고는 다른 일을 처리하러 갔다.

한편, 손오공은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동굴 입구로 날아가 외쳤다. "문 열여라!" 그 소리를 들은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사오정, 형님이 오셨다." 두 사람은 즉시 무기를 펼쳐 들었다. 손오공이 꺾충 뛰어나오자, 저팔계가 앞으로 다가가 붙들며 물었다. "요괴가 있습니까? 스승님은 계십니까?" "있다, 있어, 있고말고!"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팔계가 다급히 물었다. "스승님은 안에서 고생하고 계시겠군요. 묶여 계

십니까, 결박당해 계십니까? 찌 먹으려 합니까, 삶아 먹으려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런 일은 없다. 다만 채소로 차린 잔치를 준비해서 스승님과 그 일(혼인)을 하겠다고 난리다.” 저팔계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아이고, 형님도 참 복도 많으시네! 혼례 잔치 술이라도 한잔 얻어 드시고 오신 겁니까?” 손오공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멍청한 놈아! 스승님 목숨도 위태로운 판에 무슨 혼례 잔치 술을 따지느냐?” 저팔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손오공은 당삼장을 만나 변신술을 부린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주고는 덧붙였다. “형제들아, 다시는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라. 스승님이 이미 이 안에 계시니, 이 몸이 이번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해 내겠다.”

손오공은 몸을 다시 뒤집어 안으로 들어간 뒤, 파리로 변신하여 정자 지붕 위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요괴가 씩씩거리며 정자에서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기든 채소든 상관없으니 모두 가져와서 종이를 태워라! 하늘과 땅을 중매로 삼아 반드시 저 스님과 혼인을 맺을 것이니라!”

그 소리를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이 요괴는 체면도 모르는구나. 대낮에 멀쩡한 스님을 집에 가두고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서두를 것 없다. 내가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마.’

손오공은 웅 소리를 내며 동쪽 복도 아래로 날아갔다. 그곳에 스승님이 앉아 있는데, 뺨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손오공이 슬그머니 다가가 스승의 머리 위에서 “스승님!” 하고 외쳤다.

당삼장이 그 목소리를 알아보고 벌떡 일어나 이를 갈며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남들은 배짱이 두둑하다고 하지만, 너는 배짱이 몸 전체를 다 싸고 있구나! 네가 변신술을 써서 집안을 어지럽히면 무엇하겠느냐? 저 요괴가 음탕한 마음이 발동해서 고기는 채소든 가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억지로 혼인하려 들면 대체 어찌할 작정이냐?”

손오공은 속으로 멧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구출할 방법이 있습니다.” 당삼장이 물었다. “그걸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방금 날아올랐을 때 요괴의 뒤편에 꽃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괴를 꼬여 꽃밭으로 놀러 가자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스승님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당삼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꽃밭에서 어떻게 구한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설명했다. “요괴와 함께 꽃밭으로 가서 복숭아나무 곁에 다다르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복숭아 가지 위로 날아가 빨간 복숭아로 변신하겠습니다. 스승님은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척하며 먼저 빨간 것을 골라 따십시오. 그 빨간 것이 바로 저입니다. 요괴도 반드시 하나를 따려고 할 텐데, 그때 스승님이 빨간 것을 요괴에게 양보하십시오. 요괴가 그것을 한입에 덥석 먹으면, 제가 요괴의 배 속으로 들어간 셈이 됩니다. 제가 안에서 요괴의 배를 뚫고 창자를 끊어 놓아 죽여버리면 스승님은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네가 재주가 있다면 차라리 요괴와 싸우면 될 것을, 어찌하여 굳이 배 속으로 들어가려 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제 뜻을 모르시는군요. 이 동굴이 드나들기 쉬운 곳이라면 저

도 그냥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드나들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만약 여기서 바로 싸움을 시작하면 요괴의 부하들이 노소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저를 붙잡을 텐데,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모두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꼭 내 곁을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스승님 머리 위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상의를 마치자, 당삼장이 몸을 일으켜 창살을 붙잡고 불렀다. “부인, 부인.” 그 소리를 들은 요괴가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와 물었다. “묘인 오라버니,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요?” 당삼장이 말했다. “부인, 내가 장안을 떠나 서쪽으로 오는 길에 매일같이 산과 강을 넘어야 했습니다. 어제 진해사에서 하룻밤 묵을 때 우연히 고삿에 걸려 중병을 앓았는데, 오늘 겨우 땀을 좀 내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극진한 대접 덕분에 이 선계 같은 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여기 앉아만 있었더니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영 개운치 않군요. 나를 데리고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며 놀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요괴는 매우 기뻐하며 대답했다. “묘인 오라버니께서 흥이 나셨다니 정말 좋네요. 그럼 저와 함께 꽃밭에 가서 좀 놀아요.” 그러고는 요괴가 소리쳤다. “애들아, 어서 열쇠를 가져와서 정원 문을 열고 길을 좀 치워라.” 그러자 요괴들이 일제히 달려가 문을 열고 길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요괴는 문을 열고 당삼장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를 따르는 수 많은 어린 요괴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기름기를 바른 듯 화사하고 몸가짐이 아리따워, 당삼장을 에워싸고 꽃밭으로 향했다. 가련한 스님이라, 이 비단 같은 미녀 무리 속에서도 탄마음을 품지 않고, 화려한 무리 가운데서도 병어리와 귀머거리인 척하였다. 만약 부처님을 뵈러 가는 이 무쇠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어떤 술과 여색에 빠진 범부라도 결코 경전을 얻지 못했으리라. 일행이 꽃밭 입구에 다다르자, 요괴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낭군님, 여기서 잠시 놀며 마음을 달래보아요.” 당삼장은 요괴와 손을 맞잡고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실로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 구불구불한 길마다 푸른 이끼가 가득 덮여 있고, 아리따운 창문마다 수놓은 비단이 은은히 드리워져 있었다. 미풍이 살랑이면 축나라와 오나라의 비단이 가볍게 훑날리고, 막 그친 가랑비에 젖은 꽃잎들은 얼음 같은 살결과 옥 같은 자태를 드러냈다. 햇살을 받은 싱싱한 살구는 선녀가 무지개옷을 말리는 듯 붉게 빛나고, 달빛에 비친 파초 잎은 양귀비가 깃부채를 흔드는 듯 푸르렀다. 사방의 흰 담장 너머로는 버드나무 수만 그루에 피꼬리가 지저귀고, 한적한 정자 둘레에는 해당화 가득한 마당에 흰나비가 날았다. 다시 보니 응향각, 청아각, 해정각, 상사각이 층층이 어우러져 붉은 발에는 구슬 술이 매달려 있었고, 양산정, 피소정, 화미정, 사우정 같은 정자들이 저마다 우뚝하여 화려한 편액에는 조전(鳥篆)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옥학지, 세상지, 이월지, 탁영지에는 푸른 마름과 물풀 사이로 금빛 물고기가 반짝였고, 묵화헌, 이상헌, 적취헌, 모운헌에는 옥잔과 구슬 술잔에 푸른 거품의 술이 떠 있었다. 연못과 정자 위 아래로는 태호석, 자영석, 앵락석, 금천석이 놓이고 그 사이로 푸르게 범부채풀이 자랐으며, 누각 동서로는 목가산, 취병산, 소풍산, 옥지산

이 솟고 곳곳에 봉미죽이 무성했다. 도미 시령과 장미 시령이 그네 곁에 어우러져 마치 비단 휘장 같고, 송백정과 신이정은 목향정과 마주 보아 마치 푸른 성곽의 수놓은 장막 같았다. 작약 난간과 모란 떨기가 붉고 자줏빛으로 화려함을 다투고, 야합대와 말리 올타리는 해마다 그 아리따움을 더했다. 이슬방울 머금은 자색 함소화는 그림으로 그릴 만하고, 하늘을 태울 듯 붉은 불상화는 시로 읊을 만하였다. 그 경치를 논하면 낭원과 봉래를 자랑할 것 없고, 그 향기를 건주면 요황과 위자도 칠 것이 못 되었다. 봄날 풀싸움을 한다 해도, 이 정원에 모자란 것은 오직 옥 같은 경화(瓊花)뿐이었다. 스님은 요괴를 데리고 꽃밭을 거닐며 끝없이 펼쳐지는 기이한 꽃들을 감상했다. 여러 정자와 누각을 지나니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드니 복숭아나무 숲에 다다랐다. 이때 손오공이 스승의 머리를 살짝 꼬집자, 당삼장은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 손오공은 복숭아나무 가지 위로 날아올라 몸을 흔들며 아주 탐스럽고 붉은 복숭아로 변신했는데, 정말이지 사랑스러울 만큼 붉었다. 당삼장이 요괴에게 말했다. “낭자, 이 정원에는 꽃향기가 가득하고 가지마다 열매가 익었구려. 꽃향기에는 벌들이 다투어 모여 들고 익은 열매에는 새들이 다투어 쪼는데, 어찌하여 이 복숭아나무는 푸르고 붉은 것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요?” 요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늘에 음양이 없으면 해와 달이 밝지 못하고, 땅에 음양이 없으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며, 사람에게 음양이 없으면 남녀가 나뉘지 못하는 법이지요. 이 복숭아나무 열매도 벌이 드는 쪽은 햇살을 받아 먼저 익었기에 붉고, 그늘진 쪽은 햇빛이 없어 아직 덜 익었기에 푸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랍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낭자의 가르침에 감사하오. 사실 이 빈승은 미처 몰랐구려.” 그러고는 손을 뻗어 붉은 복숭아 하나를 따다. 요괴도 푸른 복숭아 하나를 따다. 당삼장은 몸을 굽

혀 붉은 복숭아를 요괴에게 건네며 말했다. “낭자, 당신은 색을 좋아하니 이 붉은 복숭아를 드시오. 푸른 것은 내가 먹겠소.” 요괴는 정말로 복숭아를 바꿔 받으며 속으로 기뻐했다. ‘참으로 좋은 스님이구나. 아직 부부의 연을 맺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리 다정할까.’ 요괴는 기분이 좋아져 당삼장을 더욱 살갑게 대했다. 당삼장은 푸른 복숭아를 가져와 먹기 시작했다. 요괴 역시 기쁘게 응하며 붉은 복숭아를 입에 물었다. 붉은 입술을 벌려 은빛 치아를 드러내며 막 베어 물려던 찰나, 성미 급한 손오공이 획 하고 재주를 넘더니 요괴의 목구멍을 지나 단숨에 배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깜짝 놀란 요괴가 당삼장에게 물었다. “장로님, 이 복숭아가 참으로 이상하군요! 어찌하여 깨물어 보지도 못했는데 굴러 내려가 버린 것입니까?” 당삼장이 대답했다. “낭자, 갓 탄 열매는 워낙 맛있어서 빨리 넘어가는 법이오.” 요괴가 다시 말했다. “씨도 뱉지 않았는데 그냥 내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낭자의 마음과 정이 너무 고와 즐거이 먹으려다 보니, 씨를 뱉을 겨를도 없이 삼켜진 것이오.”

손오공은 요괴의 배 속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크게 소리쳤다. “스승님, 저 요괴와 대꾸하지 마세요.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조금만 조심하거라.” 요괴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게냐?” 당삼장이 대답했다. “내 제자 손오공과 얘기하고 있네.” 요괴가 깜짝 놀라 물었다. “손오공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당삼장이 말했다. “네 배 속에 있네. 방금 네가 먹은 그 복숭아 말일세.” 요괴는 혼비백산하여 외쳤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 원숭이 녀석이 내 배 속으로 들어오다니, 난 이제 죽었구나. 손오공, 네가 무슨 수로 내 배 속까지 파고든 것이냐?” 배 속에서

손오공이 속으로 투덜거렸다. “별거 있겠느냐? 그저 네 간과 폐를 다 파먹고, 심장의 구멍까지 싹 다 헤집어 놓아서, 네 몸뚱이를 북처럼 만들어 주려는 것뿐이다!” 이 말을 들은 요괴는 간담이 서늘해져서 벌벌 떨며 당삼장을 꺼안고 울먹었다. “스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붉은 실로 묶여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화합할 줄 알았건만, 어찌하여 원앙의 사이가 갈라지고 봉황이 동서로 흩어지게 되었단 말입니까. 푸른 다리 물이 불어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절의 향연이 가라앉아 만남이 허사로 돌아갔으니, 애써 맺은 인연이 이렇게 다시 헤어지게 되었구려. 도대체 어느 해에 스님을 다시 뵈 수 있을는지요!” 배 속에서 이 말을 듣던 손오공은 스승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또 요괴에게 속아 넘어갈까 봐 걱정되어,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온갖 재물을 피우듯 요동을 쳤다. 그 바람에 요괴의 배가 터져 나갈 지경이었다. 요괴는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먼지투성이 땅에 쓰러져 한참 동안 말도 못 하고 끄끙거렸다. 손오공은 요괴가 말이 없자 죽은 줄 알고 손에 힘을 살짝 풀었다. 그제야 요괴가 겨우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너 석들아, 다들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 요괴의 부하들은 정원 문으로 들어온 뒤, 눈치껏 뽀뽀이 흩어져 꽃을 꺾거나 풀을 따며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요괴와 당삼장이 둘이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내버려둔 것이다. 그러다 요괴의 외침을 듣고서야 모두 달려왔다. 요괴가 땅에 쓰러져 얼굴색이 변한 채 신음하며 기어가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부하들이 급히 달려와 요괴를 부축하며 물었다. “마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 몸이 편치 않으신 겁니까?” 요괴가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묻지 마라. 내 배 속에 사람이 들어앉았다. 어서 이 스님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야 내 목숨이라도 건지겠다.” 부하 요괴들이 정말로 스님을 데고 나가려 하자, 배 속에서 손오공이 소리쳤다. “어떤 놈이 감히 나

를 메려 하느냐! 차라리 네놈들이 직접 스승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거라. 그러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요괴는 달리 방법이 없었지만, 오로지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요괴는 급히 몸을 일으켜 당삼장을 등에 업고는 밖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부하 요괴들이 뒤따르며 물었다. “마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호수에 밝은 달이 떠 있는데, 어찌 금 갈고리를 걸 곳이 없겠느냐? 일단 이 스님부터 내보내고 나서, 다른 짝을 새로 찾아보겠다!”

요괴가 구름을 타고 번개처럼 날아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그때 창강창강하며 병기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당삼장이 놀라 말했다. “제자야, 밖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팔계가 갈퀴를 휘두르며 장난치는 소리일 겁니다. 스승님께서 한번 불러보세요.” 당삼장이 “팔계야!” 하고 부르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사오정, 스님께서 나오신단다!” 두 사람이 갈퀴와 지팡이를 치우자, 요괴가 당삼장을 등에 업고 밖으로 메고 나왔다.

아! 시로 이르되, “심원의 지혜가 안에서 요괴를 굴복시키니, 동굴 문 앞에서는 성스러운 스님을 맞이하도다.”

결국 그 요괴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3회 — 마음의 원숭이가 단약을 알아 보고, 요염한 여인이 본성으로 돌아가다

心猿識得丹頭 姹女還歸本性

한편, 요괴가 삼장을 동굴 밖으로 데려다 놓자 사오정이 가까이 다가 물었다. “스승님,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사형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말했다. “사형이 분명 꾀를 내서 스승님을 모셔 나오려고 할 거예요.” 삼장이 손가락으로 요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사형은 지금 저놈의 배 속에 있단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배 속에서 뭘 하고 있대요? 얼른 나오라지!” 그때 안에서 손오공이 외쳤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나갈 테니!” 그러자 요괴가 정말로 입을 크게 벌렸다. 손오공은 몸을 아주 작게 줄여 목구멍 안쪽에 머물렀다. 막 나가려는데, 혹시라도 요괴가 갑자기 깨물까 걱정이 된 손오공은 금고아봉을 꺼내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후 불며 외쳤다. “변해라!” 손오공은 대추 씨앗처럼 작게 변해 요괴의 입천장을 지탱한 뒤, 몸을 획 날려 입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러면서 금고아봉도 찹싸게 챙겨 들고는, 몸을 구부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자마자 봉을 치

켜들고 공격했다. 요괴 역시 재빨리 보검 두 자루를 꺼내 들어 창강거리며 막아냈다. 두 존재는 산등성이에서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두 검이 춤추듯 눈앞에서 맞붙고 금고아봉은 머리 위로 휘둘러지네. 한쪽은 타고난 원숭이, 마음의 원숭이 몸을 가졌고 한쪽은 땅에서 난 요괴, 정령의 뼈를 가졌구나. 서로를 품으려 원망하며 달려드니 즐거운 만남이 원수의 싸움이 되었네. 한쪽은 양기를 취해 짝을 맺으려 하고 한쪽은 음기를 꺾어 성스러운 태를 맺으려 하네. 봉이 치켜드니 하늘엔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고 검이 맞부딪치니 땅에는 검은 먼지가 흩날리네. 스승님을 위해 여래께 절 올린 이들이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재주를 뽐내는구나. 물과 불이 섞이지 못해 도가 어지럽고 음과 양이 화합하지 못해 갈라져 있네. 두 집안이 한참을 싸우니 땅은 흔들리고 산이 요동치며 나무들이 꺾이는구나.

저팔계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며 투덜거렸다. 그는 손오공이 원망스러워 사오정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이보게, 사형이 너무 엉뚱하게 구네. 요괴 배 속에 들어갔으면 주먹질을 해서 배를 확 걷어차 버리고, 배를 갈라 뚫고 나오면 될 것을, 왜 굳이 입으로 기어 나와서 저 요괴랑 싸우며 저렇게 기를 살려주는 거야?” 사오정이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사형 덕분에 깊은 동굴에서 스승님을 구하고, 다시 요괴와 맞서 싸우고 있으니 다행이지. 스승님은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저와 함께 무기를 들고 큰형님을 도와 요괴를 때려눕힙시다.” 저팔계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 아니, 안 돼. 저놈은 신통력이 있어서 우리가 나서봤자 아무 소용 없어.” 사오정이 말했다. “무슨 그런 소

리를 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설령 도움이 안 된다 해도, 가서 바람이라도 좀 보태야지!"

그 멍청한 요괴는 갑자기 기세가 살아나 못질용 갈고리를 획 뽑아 들더니, "어디 한번 와 보아라!" 하고 외쳤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스승님 걱정은 뒷전인 채, 한꺼번에 바람을 타고 쫓아가 갈고리와 보배 지팡이를 휘두르며 요괴를 향해 마구 공격을 퍼부었다. 요괴는 손오공 한 명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두 사람이 몰려오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다. 요괴는 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형제들아, 어서 쫓아가자!" 하고 호통을 쳤다. 요괴는 그들이 바짝 따라붙는 것을 보고는, 오른쪽 발에 신은 꽃신을 벗어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주문을 외웠다. "변해라!"

주문을 외우자 요괴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두 자루의 칼을 휘두르며 맞섰다. 그러더니 몸을 한 번 획 흔들어 청량한 바람으로 변신해 곧장 동굴로 도망쳐 버렸다. 요괴가 이들을 상대하기 버거워 목숨을 구하려 도망친 것까진 그렇다 쳐도, 설마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삼장법사가 재앙을 다 피하지 못한 탓인지, 요괴가 동굴 입구의 정자 아래에 삼장법사를 홀로 앉혀 놓은 것을 보고는, 요괴가 쟁쟁하게 다가 삼장법사를 덥석 껴안았다. 그러고는 짐을 낚아채고 말의 고삐까지 물어 끊어버린 뒤, 사람과 말을 통째로 끌고 다시 동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한편, 저팔계가 몸을 휙 날리더니 삼지창을 휘둘러 요괴를 땅으로 내리쳤다. 그런데 요괴 대신 떨어진 것은 꽃신 한 짝이었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는 스승님이나 잘 지키고 있어. 누가 요괴를 잡는 걸 도와달라고 했느냐?"

저팔계가 말했다.

"사화상, 저 녀석 말 좀 들어봐.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저 원숭이 녀석은 좀 고약한 구석이 있다니까. 우리가 요괴를 잡아주고도 나중에 원망만 들을 게 뻔해."

손오공이 대답했다.

"어디서 요괴를 잡는다는 말이냐? 어제 요괴와 싸울 때, 그놈이 신발 한 짝을 남기고 도망치는 꾀를 써서 나를 속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승님이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니,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세 사람이 급히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스승님은 커녕 짐과 백룡마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당황한 저팔계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사오정은 앞뒤로 살살이 뒤졌으며, 손오공 역시 마음이 타들어 가 안절부절못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중, 길가에 고삐 한 가닥이 비스듬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그것을 집어 들더니 눈물을 쏟으며 통곡하듯 외쳤다.

"스승님! 제가 떠날 때 사람들과 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 고작 이 고삐뿐이라니요!"

시로 이르되, 안장을 보면 준마가 그리워지고, 눈물 흘리며 그리운 이를 떠올리네.

저팔계는 손오공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그만 하늘을 향해 크게 웃어젖혔다.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또 화를 돋우려는 게냐?"

저팔계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스승님은 분명 요괴에게 붙잡혀 동굴로 끌려 가셨을 거예요. 예부터 '세 번의 시도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이 벌써 두 번이나 동굴에 들어갔으니, 이번에 한 번 더 들어가면 분명 스승님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손오공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좋다, 여기까지 왔으니 물러설 수도 없지.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너희 둘은 짐과 말이 없어진 것이 걱정되겠지만, 동굴 입구를 든든히 지키고 있거라."

손오공은 몸을 돌려 곧장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다. 신통력으로 몸을 변형시키지도 않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법상을 드러내니, 그 위용이 실로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기괴한 심보를 품고서 힘을 기르니, 어려서부터 괴이한 신통력이 넘쳐흐르네. 얼굴은 말 안장처럼 굴곡지고, 눈에서는 불꽃 같은 금빛이 번쩍이네. 온몸의 털은 강철 바늘처럼 뾰뾰하고, 호랑이 가죽 치마에는 꽃 장식이 소리 내며 흔들리네. 하늘로 솟구치면 만갈래 구름이 흩어지고, 바다로 뛰어들면 천 층의 파도가 일렁이네. 천계의 힘에 맞서 천왕과 싸우고, 십만 팔천 군사를 물리쳐내네. 대성이라 봉해진 아름다운 원숭이, 손에는 늘 금고봉을 휘두르니, 오늘 서천으로 가는 길에 능력을 떨치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 삼장법사를 구하러 하네.

손오공은 구름을 멈추고 곤장 요괴의 거처로 향했다. 문루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자, 앞뒤 가릴 것 없이 철봉을 휘둘러 단숨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안은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동쪽 회랑에도 당승은 보이지 않았고, 정자 위의 탁자와 의자, 집안 살림살이조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동굴은 주변 삼백여 리에 걸쳐 요괴들의 소굴이 아주 많았다. 지난번 당승을 이곳에 잡아두었을 때는 손오공이 찾아냈지만, 이번에는 손오공이 찾아올까 두려워 요괴가 미리 자리를 옮겨버린 탓에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손오공은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며 크게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은 어찌 이리 재수가 없는 당승이 되시고, 어찌 이리 재난만 불러오는 구도승이 되셨습니까! 아이고, 이 길은 매일같이 오가는 익숙한 길인데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 손오공이 대체 어디서 스승님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한창 성을 내며 소란을 피우던 그때,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향긋한 바람이 불어왔다. 정신을 차린 손오공이 말했다. "이 향내가 뒤쪽에서 풍겨오는 걸 보니, 분명 저 뒤에 있겠구나!"

손오공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철봉을 치켜들고 뒤쪽을 살피러 갔으나,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그저 방 세 칸이 마주 보고 있는 곳, 뒷벽 근처에 용이 입을 벌린 모양으로 조각된 칠기 제단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제단 위에는 커다란 금빛 향로가 놓여 향연이 풍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커다란 금색 위패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존경하는 아버지 이천왕 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조금 작은 위패에 '존경하는 형님 나타 삼태자 위'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손오공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요괴를 찾거나 당승을 찾는 일은 잠시 미뤄두고, 철봉을 한 올 한 올 꼬아 수놓는 바늘처럼 작게 만들어 귀에 꽂았다. 그러고는 손을 휘둘러 위패와 향로를 챙겨 들고는 곧장 구름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손오공은 싱글벙글 웃음을 터뜨리며 멈추지 않고 길길거렸다.

그 말을 들은 팔계와 사오정이 동굴 입구로 달려 나와 손행자를 맞이하며 말했다. "형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 스승님을 구하신 모양이군요?" 손행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구한 게 아니라, 이 위패를 보고 누구인지 물어보려는 것이다." 팔계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형님, 이 위패는 요괴도 아니고 말도 못 하는데, 어떻게 물어봐서 사람을 찾겠다는 말씀이세요?" 손행자가 위패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희들 가까이 와서 보거라." 사오정이 다가가 살펴보니, 위패에는 '존경하는 아버지 이천왕의 위패', '존경하는 형님 나타 삼태자의 위

패’라고 적혀 있었다. 사오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손행자가 설명했다. “이건 저 요괴의 집에서 모시는 위패들이다. 내가 저 녀석의 거처에 들이닥쳤을 때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것들뿐이더구나. 아무래도 이천왕의 딸이자 나타의 누이가 속세의 삶을 그리워해 아래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요괴로 변신해 우리 스승님을 납치한 모양이다. 저 요괴에게 직접 묻는 대신, 이 위패의 주인들에게 따져 물으려는 것이지. 너희 둘은 여기서 잘 지키고 있거라. 내가 이 위패를 들고 천계로 올라가 옥황제 폐하께 직접 고소하여, 이 천왕 부자가 우리 스승님을 돌려보내게 만들 테니 말이다.” 팔계가 걱정한 듯 말했다. “형님, 예부터 ‘남을 고소했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이 딱 맞아야 가능한 일이지요. 하물며 황제께 올리는 상소문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 대체 어떻게 고소하실 생각입니까?” 손행자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게 다 생각이 있다. 이 위패와 향로를 증거물로 삼고, 따로 종이에 소장도 작성할 것이다.” 팔계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소장에는 뭐라고 쓰실 건가요? 저도 좀 들려주세요.” 손행자가 읊조리기 시작했다. “고소인 손오공, 태어난 해와 나이를 기록하며,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승려 당삼장의 제자임을 밝힌다. 가짜 요괴가 함공산에서 벌인 일을 고발하노라. 지금 탁탐천왕 이정과 그의 아들 나타 삼태자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친딸이 밖으로 나돌며 함공산 무저동에서 요괴로 변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승님마저 깊은 구렁이 속으로 납치해 가 어디 계신지조차 알 길이 없다. 만약 이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부자가 자식을 방치하여 요괴가 되도록 내버려 둔 인자하지 못한 부모라 할 것이다.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이 사건을 조사해 주시고, 요괴를 잡아 스

승님을 구하며 그 죄를 엄히 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이다. 이상 고함.” 그 말을 들은 팔계와 사오정은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형님, 정말 논리 정연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어서 다녀오십시오. 조금이라도 늦으면 요괴가 스승님의 목숨을 해칠까 걱정됩니다.” 손행자가 대답했다. “금방 다녀오마, 금방! 밥이 다 익고 차가 딱 알맞게 끓을 때쯤이면 돌아올 것이다.”

"좋아, 대성!"

손행자는 위패와 향로를 옮겨주고는 몸을 훌쩍 날려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남천문 밖까지 날아갔다. 마침 남천문을 지키던 대력천왕과 호국천왕이 행자를 보고는, 하나같이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며 감히 막아서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었다.

행자가 통명전 아래에 이르자, 장·갈·허·구 네 명의 대천사가 마중 나와 예를 올리며 물었다. "대성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행자가 대답했다. "고소할 내용이 적힌 소장(紙狀)을 들고 왔네. 두 사람을 고소하려는 참이야." 천사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이 고집불통인 양반이 대체 누구를 고소하겠다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행자를 영소전 아래로 안내하여 옥제에게 고하도록 했고, 옥제의 명을 받아 안으로 들여보냈다. 행자는 위패와 향로를 내려 놓고 위를 향해 예를 올린 뒤 소장을 바쳤다. 갈 선옹이 그것을 받아 어안(御案) 위에 펼쳤다. 옥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 내려가더니,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즉시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성지를 내렸다.

그리고 서방의 태백금성에게 명을 내려, 운루궁에 있는 이천왕을 불러 옥제를 알현하게 했다.

행자가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하늘의 주인께서 이들을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것입니다." 옥제가 다시 명령했다. "고소한 자도 함께 오너라." 행자가 되물었다. "이 늙은 원숭이도 가란 말입니까?" 그러자 네 천사가 말했다. "폐하께서 이미 명을 내리셨으니, 금성(태백금성)을 따라 함께 가시면 됩니다."

손행자는 정말로 태백금성을 따라 구름을 타고 날아 곧장 운루궁에 도착했다. 이곳은 본래 이천왕의 거처로, 이름은 운루궁이라 한다. 태백금성이 궁문 앞에 시립해 있는 동자를 보니, 그 동자가 태백금성을 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태백금성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천왕이 마중을 나왔다. 태백금성이 교지를 받들어 들고 있기에 즉시 향을 피우게 했다. 그런데 태백금성이 몸을 돌리자 손행자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이천왕은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가 왜 화를 냈겠는가? 옛날 손행자가 천계를 크게 어지럽혔을 때, 옥황제가 이천왕을 강마대원수로, 나타를 삼단해회지신으로 봉하여 천병을 거느리고 손행자를 잡게 했으나, 여러 차례 싸워도 이기지 못했었다. 오백 년 전 패배했던 원한이 남아 있어 그를 보자마자 화가 치민 것이다. 이천왕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보게, 이장경. 가져온 교지가 무엇인가?" 태백금성이 대답했다. "손대성이 당신을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이천왕은 원래 짜증이 나 있던 차에 '고소'라는 말을 듣자마자 천둥이 치듯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그놈이 나를 무엇 때문에 고소했던 말이나?" 태백금성이 말했다. "가짜 요괴가 사람을 납치한 일로 고소했소. 향을 피웠으니 직접 펼쳐서 읽어보시오." 이천왕은 씩씩거리며 향상을 차려놓고 허공을 향해 은혜에 감사하는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뒤 교지를 펼쳐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저러했다. 이천왕은 너무 분한 나머지 향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나를 잘못 고소했구나!"

태백금성이 달랐다. "일단 노여움을 가라앉히시오. 지금 위패와 향로가 옥황제 폐하 앞에 증거로 놓여 있어, 당신의 친딸이라고 하고 있단 말ियो." 이천왕이 말했다. "내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뿐ियो. 큰아들 금타는 여래를 모시며 전부 호법을 맡고 있고, 둘째 목차는 남해에서 관음의 제자로 있고, 셋째 나타는 내 곁에서 밤낮으로 호위하고 있소. 딸 하나는 이제 겨우 일곱 살 된 정영인데,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요괴가 된단 말ियो? 못 믿겠거든 데려와서 직접 보시오. 이 원숭이 녀석이 정말 무례하구나. 내가 천계의 공신으로서 먼저 실행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직책을 맡았다고는 하나, 설령 저 아래 세상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고소해서는 안 되는 법ियो. 법에 이르기를 '무고하면 형벌이 세 단계나 가중된다'고 했거늘!"

이천왕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원숭이를 포박줄로 꼼꼼 묶어라!" 그러자 뜰에 늘어서 있던 거령신, 어도장, 약사웅수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행자를 묶어버렸다. 태백금성이 말했다. "이천왕, 일을 그르치지 마시오! 나는 옥황제 폐하로부터 당신에게 교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고 온 것이요. 그 포박줄이 너무 무거워 손행자를 다치게 하면 큰일이요." 이천왕이 맞받았다. "이장경, 이놈처럼 거짓으로 소란을 피우는 자를 어찌 용납하겠소? 당신은 앉아 계시오. 내가 저 요괴를 베는 칼을 가져와 이 원숭이를 베어버린 뒤에, 당신을 뵙고 교지를 올리겠소."

태백금성은 이천왕이 칼을 잡으려 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손행자에게 말했다. "자네가 일을 그르쳤네! 옥황제 폐하께 올리는 고소장을 어찌 그리 쉽게 한단 말인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굴다가 저 사람의 목숨이라도 해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손행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제 장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먼저 지는 척하다가 나중에 이기는 법이지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천왕은 도를 휘둘러 손행자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이때 나타가 재빨리 앞으로 달려 나와 참요검을 막아세우며 외쳤다.

"아버님,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이천왕은 깜짝 놀라 안색이 변했다.

아니, 이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칼을 겨누고 있는데, 어찌하여 호통을 쳐서 물러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 놀라기만 했겠는가?

알고 보니 이천왕이 이 아들을 낳을 때, 왼손바닥에는 '나(哪)' 자가, 오른손바닥에는 '찰(吒)' 자가 새겨져 있어 이름을 나타라고 지었다. 이 나타라는 태자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바다로 내려가 몸을 씻다가 사고를 쳤는데, 수정궁을 무너뜨리고 교룡을 잡아 그 힘줄을 뽑아 채찍을 만들려 했다. 이천왕은 이를 알고 나중에 큰 화가 될까 두려워 아들을 죽이려 했다.

이에 분노한 나타는 칼을 들고 자신의 살을 베어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뼈를 발라 아버지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부모의 정기와 피를 모두 갚아드렸다. 그리고 한 조각의 영혼만 남긴 채 서방 극락세계로 달려가 부처님께 고했다. 마침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경전을 읽고 계실 때, 깃발과 보개가 흔들리며 누군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부처님이 혜안으로 살펴보니 나타의 혼령임을 아시고, 곧바로 푸른 연근을 뼈로 삼고 연잎을 옷으로 삼게 한 뒤, 죽은 이를 살리는 진언을 외워 나타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 후 나타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아흔여섯 개의 동굴에 숨어 있는 요괴들을 모두 굴복시키며 광대하고 위대한 신통력을 떨쳤다. 그러다 훗날 뼈를 깎아 부모에게 돌려주었던 원수를 갚으려 이천왕을 죽이려 했다. 이천왕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부처님께 간청하였고, 부처님은 화해를 권하며 그에게 영롱하고 투명한 사리함 같은 황금 보탑을 하사하셨다. 그 탑은 층층마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찬란한 빛을 내뿜었다. 부처님은 나타에게 부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여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이천왕을 '보탑을 받드는 이천왕'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집에서 한가하게 쉬고 있느라 그 탑을 받들고 있지 않았으니, 혹시나 나타나 복수하러 올까 두려워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 놀란 것이었다.

손오공은 즉시 손을 돌려 탑 좌대 위에 있던 황금 보탑을 집어 들고는, 그것을 손바닥에 받쳐 든 채 나타에게 물었다. “얘야, 네가 검으로 내 도를 막아 세웠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나타가 검을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버님, 사실 저 아래 세상에 아버님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왕이 말했다. “얘야, 나는 너와 네 자매 넷을 낳았을 뿐인데, 대체 어디에 또 딸이 있다는 말이나?”

나타가 대답했다. “아버님, 잊으셨습니까? 그 아이는 원래 요괴였습니다. 삼백 년 전에 괴물이 되었는데, 영산에서 여래의 향화보축(향과 꽃, 보물 촛불)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때 여래께서 저와 아버님께 천병을 보내 잡아오라고 명하셨지요. 잡아왔을 때 그냥 때려죽여도 되었으나, 여래께서 ‘고인 물에 물고기를 기르면 결국 낚게 되고, 깊은 산에서 사슴을 먹이면 장생하기를 바라는 법이다’라며 목숨을 살려주라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한 아이가 아버님을 아버지로, 저를 오라버니로 모시겠다며 의형제를 맺었고, 아래 세상에 위패를 세워 아버님과 저를 모시며 향을 피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가 다시 요괴가 되어 당승을 해치려 하기에, 손오공이 등지를 찾아내 위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전에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의리로 맺어진 딸일 뿐, 저와 피를 나눈 친동생이 아닙니다.”

이천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애야, 내가 정말로 잊고 있었구나.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타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본래 태생을 따지면 ‘금비백모노서정(금코와 흰 털을 가진 쥐 요괴)’이라 부르고, 향화보축을 훔친 일로 인해 ‘반절관음’이라 이름이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살려주자 ‘지용부인’이라 이름을 바꾸어 불리고 있습니다.”

이천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탑을 내려놓은 뒤, 직접 손을 써서 손행자를 풀어주려 했다. 그러자 손행자가 오히려 까탈스럽게 굴며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나를 풀어준단 말이냐! 정 그러면 이 줄을 통째로 씹어지고 가서 옥제께 고해바치자. 그래야 이 몸의 송사가 이길 것 아니냐!"

이 말에 이천왕은 당황하여 손이 떨렸고, 나타는 할 말을 잃었으며, 수하 장수들은 줄줄이 뒤로 물러났다. 손대성은 바닥을 뒹굴며 떼를 쓰며, 이천왕더러 당장 옥제를 뵈러 가자고 난리를 피웠다. 이천왕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 태백금성에게 도움을 청하며 간곡히 부탁했다.

태백금성이 말했다. "옛말에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너무 엄하게 처리해서 그를 꼬꿍 묶어놓고 죽이려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이 원숭이는 알아주는 악질이라, 이제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의 아드님과 관련해서 보자면, 비록 친딸은 아니어도 은혜를 입어 맺은 인연이니 관계가 깊습니다. 어떻게 변명하든 당신에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이천왕이 말했다. "신선께서 어찌하면 이 일을 원만히 해결해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태백금성이 답했다. "나도 당신들과 화해시켜 주고 싶지만, 도저히 명분이 서질 않는군요."

이천왕이 다시 말했다. "그럼 예전에 그를 달래서 관직을 주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태백금성이 앞으로 나서서 손행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대성, 내 체면을 봐서라도 줄을 풀고 가서 옥제를 뵙도록 합시다."

손행자가 말했다. "영감님, 풀 필요 없소. 나는 구르는 법을 잘 알거든. 그냥 구르다 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 말ियो."

태백금성이 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참으로 인정머리가 없구나. 예전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 그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손행자가 물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던 말ियो?"

태백금성이 말했다. "네가 예전에 화과산에서 요괴 노릇을 하며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잡재우며, 죽은 자들의 명부를 강제로 지우고 요괴들을 모아 천하에 행패를 부렸을 때를 기억하느냐? 천계에서 너를 잡으려 할 때, 내가 힘을 써서 간청하여 너를 달래서 받아들이라는 어명을 끌어냈고, 너를 천계로 불러 '필마온'이라는 관직을 내리게 했다. 네가 옥제의 선주를 마신 뒤에 또다시 소란을 피웠을 때도, 내가 간곡

히 청하여 너를 '제천대성'으로 봉하게 했다. 그런데도 너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복숭아를 훔치고 술을 훔치며 태상노군의 금단까지 훔쳐 달아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온갖 일을 겪으며 살아남은 것이 어찌 너 혼자 힘이었겠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어찌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겠느냐?"

손행자가 대답했다. "옛말에 '죽어서는 늙은이와 같은 무덤에 눕지 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데는 아주 선수시군요. 나는 그저 필마온 노릇을 하다가 천계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을 뿐이지, 그 이상의 큰일은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뭐, 됐습니다, 됐어. 어르신 의 체면을 봐서 직접 풀게 해드리지요."

그제야 이천왕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손행자에게 옷을 입혀 자리에 앉힌 뒤, 일일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어 정중히 대했다.

손행자가 태백금성에게 말했다. "영감님, 어때요? 제가 먼저 지고 나중에 이긴다 했잖아요. 장사라는 게 원래 다 이런 법이라고요. 어서 저분을 모시고 옥제님을 뵙게 하세요. 우리 스승님을 더 늦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태백금성이 말했다. "서두르지 말게나.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세."

손행자가 대꾸했다. "그쪽 차를 마시고 그쪽 선물을 받으면서 죄수를 풀어주고 성첩(임금의 명령)를 가벼이 여기면, 영감님은 무슨 죄를 뒤집어쓸 건데요?"

태백금성이 당황하며 말했다. "차 안 마시겠네, 안 마셔! 나까지 아주 몰아세우는구먼. 이천왕님, 어서 갑시다, 어서!"

이천왕이 어찌 감히 가겠는가. 손행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상대한단 말인가. 어쩔 수 없이 이천왕은 다시 태백금성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태백금성이 말했다. "내가 한마디 제안을 하겠는데, 내 말을 따르겠나?"

손행자가 말했다. "뱃줄로 묶고 칼로 베는 일이라도 당신 얼굴을 봐서 봐줄 텐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말해 보세요, 말해 봐요. 잘 말하면 따를 거고, 못 말하면 원망하지 말라고요."

태백금성이 말했다. "하루의 관청 일이 열흘의 매질로 돌아오는 법이라네. 자네가 어전에서 고소를 해서 요괴가 이천왕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이천왕은 아니라고 부정하면, 두 사람이 옥제 앞에서 끝도 없이 논쟁을 벌이게 될 걸세. 그런데 하늘에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일 년과 같지 않은가. 그 일 년 사이에 요괴가 자네 스승을 동굴에 가둬두고, 혼례를 치르는 건 고사하고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는다면, 그 큰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겠나?"

손행자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구나. 팔계와 사오정에 게는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늦어버린 것 아닌가? 영감님, 당신 말대로 하겠는데, 그럼 옥제님께는 어떻게 보고할 건가요?'

태백금성이 말했다. "이천왕에게 병사를 모아 자네와 함께 내려가 요괴를 잡으라고 하고, 내가 가서 보고를 하겠네."

손행자가 물었다. "보고를 어떻게 할 건데요?"

태백금성이 답했다. "고소인은 도망쳤고, 피고인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당신 체면을 봐서 이번만 봐주겠어요. 그런데 보고를 도망쳤다고 하다니요. 이천왕님은 남천문 밖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를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가서 당신과 함께 보고를 올리고 고소장을 제출할 테니까요."

이천왕이 겁에 질려 말했다. "저자가 저렇게 갔다가 만약 탄소리라도 하면, 신하가 임금을 배신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손행자가 말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대장부라 '한 번 내뺄은 말은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어찌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겠소?"

이천왕은 그제야 손행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손행자는 태백금성과 함께 보고를 하러 갔고, 이천왕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곧장 남천문 밖으로 나갔다.

태백금성과 손행자가 옥황제 앞에 나아가 고했다. "함공산에서 당승을 납치한 자는 금코를 가진 흰 털 쥐 요괴입니다. 그 요괴가 이천왕 부자의 위패를 가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천왕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병사를 이끌고 요괴를 잡으러 가셨으니, 부디 천존께서 이 죄를 사해주시옵소서.” 옥황제는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더는 문책하지 않도록 허락했다. 손행자는 즉시 구름을 타고 남천문 밖으로 날아갔다. 그곳에는 이천왕과 나타나 천병들을 거느리고 진을 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신장들이 일으키는 바람은 세차게 몰아치고 안개는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그들은 손행자를 맞이하여 일제히 구름 아래로 내려가니, 이미 함공산에 도착해 있었다.

팔계와 사화상은 애타게 기다리던 중, 천병들과 손행자가 오는 것을 보았다. 팔계는 이천왕을 맞이하며 예를 갖추어 말했다.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왕이 대답했다. "천봉원수, 그대는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부자가 그 요괴에게 한 줄기 향을 태우는 동안 요괴가 멋대로 굴어 그대의 스승님을 가두어 버린 것이라네. 늦게 온 것을 탓하지 말게나. 여기가 바로 함공산인가? 그런데 요괴의 동굴 입구는 어느 쪽으로 나 있는가?" 손행자가 말했다. "이 길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다만 이 동굴의 이름은 무저동이라 불리는데, 주변이 삼백여 리나 되고 요괴의 소굴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스승님이 저기 물방울 모양의 문루에 계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고요해서 귀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니, 또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왕이 말했다. "요괴가 아무리 천 가지 계책을 부린들, 하늘과 땅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법이다. 일단 동굴 입구에 도착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 모두가 동의하며 길을 재촉했다. 어느덧 십여 리쯤 갔을까, 커다란 바위 곁에 다다랐다. 손행자가 향아리 입구처럼 커다란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곳입니다." 이천왕이 말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는가.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손행자가 말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나찰이 말했다. "나는 어명을 받들어 요괴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자 팔계가 참지 못하고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맨 앞에는 이 못난 돼지도 끼워줘야지요!" 이천왕이 꾸짖듯 말했다.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 말대로 배치하겠다. 손대성은 태자와 함께 병사들을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세 사람은 입구를 지키며 안팎에서 협공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요괴가 하늘로 도망칠 길도, 땅으로 숨을 문도 없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손행자와 나타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동굴 안을 향해 내려갔다. 구름을 타고 머리 위를 올려다보니, 과연 대단한 동굴이었다.

시로 이르되, 해와 달이 두 바퀴처럼 떠 있어 산천을 고스란히 비추고, 구슬 같은 연못과 옥 같은 우물에는 따스한 안개가 피어오르니,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풍경이로다. 겹겹이 쌓인 붉은 누각과 화려한 정각, 우뚝 솟은 붉은 절벽과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고, 봄날의 버드나무와 가을날의 연꽃이 어우러졌으니, 이토록 기이한 동천복지(洞天福地, 신선이 사는 경치 좋은 곳)는 참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잠시 후 구름을 멈춘 일행은 요괴가 살던 옛 거처로 곧장 향했다. 문마다 살살이 뒤흔들리며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다. 한 층 한 층, 한 곳 한 곳을 훑으며 삼백 리 땅의 풀을 죄다 짓밟고 다녔지만, 요괴는커녕 삼장법사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이 요괴 놈이 분명 진작에 동굴을 빠져나가 멀리 도망갔을 거야"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요괴가 동남쪽 구석진 곳에 숨겨둔 작은 동굴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 안에는 작은 문과 낮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화분에 여러 종류의 꽃이 심겨 있고 처마 밑에는 대나무 몇 대가 서 있었다. 검은 기운이 감돌면서도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다. 요괴는 삼장을 납치해 이곳으로 옮겨놓고는 억지로 혼례를 치르려 하고 있었다. 손행자가 영영 찾지 못할 줄 알았으나, 어찌 요괴의 운명이 다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동굴 안에는 소요괴들이 웅기종기 모여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중 조금 대담한 놈 하나가 목을 길게 빼고 동굴 밖을 살피다가, 마침 나타난 천병과 정면으로 마주치고는 비명을 질렀다. "여기 있다!"

그 소리에 화가 난 손행자가 여의봉을 움켜쥐고 단숨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동굴 안은 좁고 협소한데 요괴들이 떼 지어 모여 있으니, 나타나 천병들을 몰아붙이며 들이닥치자 요괴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손행자는 삼장과 백룡마, 그리고 짐 꾸러미를 모두 찾아냈다. 요괴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음을 깨닫고 나타나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나타나 말했다. "이것은 옥제의 명을 받들어 너를 잡아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우리 부자가 잠시 향 하나 태울 시간을 내어준 것만으로도, 스님을 모셔가는 일이 큰 소동으로 번지는 것을 겨우 막은 셈이다."

이윽고 천병들이 몰려와 요괴를 묶는 밧줄을 꺼내어 소요괴들을 모조리 결박하니, 요괴 또한 호된 고초를 피할 수 없었다. 천병들은 구름

을 타고 일제히 동굴 밖으로 나갔다. 손행자는 입가에 웃음을 띠며 킬 킬거렸다. 이천왕이 동굴 입구를 열며 손행자를 맞이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네 스님도 함께 만났구나." 손행자가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삼장을 이끌어 이천왕과 나타에게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사오정과 저팔계는 그 요괴를 당장이라도 때려눕히고 싶어 안달이었으나, 이천왕이 말했다. "이놈은 옥제의 명을 받들어 잡아가는 것이니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가서 보고를 드려야 한다."

한편, 이천왕은 나타와 함께 천병 신장들을 거느리고 요괴를 압송하여 천계로 올라가 처분을 기다리게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손행자가 당승을 부축하고, 사오정은 짐을 챙기며, 저팔계는 말을 돌보았다. 일행은 당승을 말에 태우고 함께 큰길로 나섰다.

시로 이르되, "웁힌 비단과 마른 금빛 바다를 끊어내니, 옥자물쇠를 열고 새장 밖으로 나오도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4회 — 멀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깨달음이 원만하고 크며, 법왕이 본래의 정체를 이루어 자연스럽다

難滅伽持圓大覺 法王成正體天然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삼장은 정기를 잘 갈무리하여 번뇌 가득한 속세의 굴레를 벗어났다. 수행자들과 함께 서천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어느덧 여름철에 이르렀다. 마침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주 좋은 날씨였다.

푸른 그늘은 점차 짙어지고, 가벼운 바람에 제비는 새끼를 이끄네. 새 연꽃은 연못 위로 피어나고, 길게 뻗은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네. 향긋한 풀은 하늘까지 푸르고, 산꽃은 땅 위에 가득 피었구나. 시냇가 갈대는 칼처럼 꽃혀 있고, 석류꽃은 붉은 불꽃처럼 장한 여정을 비추네.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은 무더운 열기를 견디며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가에 늘어선 버드나무 그늘 사이에서 한 노파가 걸어 나왔다. 노파는 오른손으로 아이 하나를 부축한 채 당삼장을 향해 크게 외쳤다.

"스님, 더는 가지 마시오! 어서 말을 돌려 동쪽으로 돌아가시오. 서쪽으로 가는 길은 모두 죽는 길이라오!"

깜짝 놀란 당삼장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며 물었다.

"보살님, 옛말에 '바다는 넓어 물고기가 뛰놀고, 하늘은 드높아 새가 날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서쪽으로 가는 길이 길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노파가 손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으로 오륙 리쯤 가면 멸법국이라는 나라가 나오오. 그 나라 국왕이 전생에 원한을 맺었는지, 이번 생에 까닭 없이 죄를 짓고 있소. 이 년 전에 만 명의 승려를 죽이겠다는 엄청난 서원을 세웠대요. 지난 이 년 동안 이름 없는 승려를 구천구백구십육 명이나 죽였고, 이제 만 명을 채워 그 서원을 원만히 끝맺으려고 이름난 승려 네 명만 기다리고 있소. 그대들이 만약 성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는 죽음의 왕을 만나는 꼴이 될 것이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말했다.

"보살님,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나, 혹시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빈 승려가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다.

"돌아갈 수도 없소, 돌아갈 수도 없어. 오직 하늘을 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나갈 수 있을 뿐이오."

겉에 있던 저팔계가 참견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할머니, 괜히 어려운 말씀 마세요. 우리도 다 날 줄 안다니까요!"

손오공은 화안금정(火眼金睛, 불꽃 같은 눈)을 가졌기에 사물의 선악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아이를 부축하고 서 있던 노모의 정체는 바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였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굽혀 절하며 외쳤다.

"보살님, 제자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보살은 상서로운 구름 한 조각을 일으켜 가볍게 타고 떠올랐다. 이 광경을 본 당삼장은 너무나 놀라 발을 디딜 곳조차 잊은 채 그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저팔계와 사오정 역시 당황하여 급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한동안 상서로운 구름은 아스라이 멀어지더니 그대로 남해를 향해 가버렸다.

손오공이 일어나 스승을 부축하며 말했다. "스승님, 일어나십시오. 보살님께서는 이미 보살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삼장이 일어나 물었다. "오공아, 네가 보살님인 줄 알았으면 어찌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물어보실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절을 올렸는데, 어찌 진작이 아니겠습니까?"

팔계와 사오정이 손오공에게 말했다. "보살님께서 알려주신 덕분에 앞의 나라가 멸법국이고 승려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바보같이 겁먹지 마라. 우리는 독한 요괴들을 만나 호랑이 굴과 용궁 같은 곳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곳은 그저 평범한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다만 이곳은 머물 만한 곳이 아니다. 날이 저물어가는데, 성안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승려인 것을 알아채서 소란을 피우면 곤란해진다. 일단 스승님을 모시고 큰길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대책을 세우자꾸나."

과연 당삼장은 그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큰길을 벗어나 어느 언덕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님들, 두 분은 스승님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제가 변신해서 성안에 가본 뒤, 밤을 새워서라도 갈 수 있는 한적한 길을 찾아오겠습니다."

당삼장이 신신당부했다. "제자야, 이 일을 결코 작은 일로 가벼이 여기지 마라. 나라의 법도가 용서치 않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좋다, 대성!" 손오공은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획 날려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시로 이르되, "위로는 잡아끌 줄이 없고, 아래로는 받쳐줄 지팡이 없네. 똑같이 한 부모에게서 났건만, 그만은 뼈마디가 가뻐구나."

손오공은 구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성안은 경사스러운 기운이 넘실거리고 상서로운 빛이 물결치고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참으로 좋은 곳인데, 어찌하여 멸법국이라 하는가?" 한참을 보고 있자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둑해졌는데, 다시 이런 풍경이 펼쳐졌다.

시로 이르되, "십자 교차로에는 등불이 찬란하고, 구중궁궐에는 향연이 어리고 종소리 울려 퍼지네. 일곱 개의 밝은 별은 은하수를 비추고, 팔방의 나그네들은 여정을 멈추었구나. 육군 진영에서는 나팔 소리 은은히 들려오고, 오고루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뚝뚝 들리네. 사방에는 밤안개가 뿌옇고, 저갓거리에는 찬 연기가 아스라이 피어오르네. 부부들은 나란히 휘장 속으로 돌아가고, 밝은 달은 동쪽 하늘로 떠오르네."

손오공은 생각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길목을 좀 살펴봐야겠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갔다가는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분명 승려라고 생각

할 테니, 변장을 좀 해야겠군.' 그는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으로 변신했다.

시로 이르되, "몸집은 가늘고 날개는 가벼워, 등불과 촛불을 찾아 날아다니네. 본래의 모습은 간데없고, 썩은 풀 사이에서 신령하게 나타났구나. 불꽃의 빛을 좋아하여, 쉬지 않고 바빠 날아다니네. 자줏빛 날개로 반딧불을 쫓으며, 깊은 밤 바람 찾아들기를 기다리네."

손오공은 나풀나풀 날아다니며 여섯 거리와 세 저잣거리를 누비며 집 처마와 지붕 모퉁이를 살폈다. 한창 날아가던 중, 어느 길모퉁이 마을에 이르니 집집마다 문 앞에 등불이 걸려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마을은 정월 대보름이라도 되는 건가? 어째서 줄줄이 등불을 켜놓은 거지?" 그는 날개를 힘차게 움직여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 집 가운데 걸린 네모난 등불에는 '상인들이 편안히 쉬어 가소서'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왕소이점'이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손오공은 그곳이 음식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니, 여덟아홉 명의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옷과 두건을 풀어헤친 채 손발을 씻고는 각자 침상에 올라 잠이 들어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스승님께서도 무사히 지나가실 수 있겠군."

어찌하여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손오공은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들의 옷과 두건을 훔쳐서 스승 일행이 숙인으로 변장해 성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아이고, 참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한창 궁리하던 차에, 식당 주인 왕소이가 다가와 이렇게 당부했다.

“손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곳은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드는 곳이니, 각자의 옷가지와 짐을 각별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밖에서 장사를 하며 떠도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신중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주인의 당부까지 들으니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일행은 모두 일어나서 말했다.

“주인장 말씀이 옳소. 우리처럼 길 위에서 고생하며 다니는 사람들은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깨지 못해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라오. 그러니 이 옷과 두건, 띠 같은 것들을 모두 거두어 두었다가, 날이 밝는 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왕소이는 정말로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모조리 자기 방 안으로 옮겨 놓았다. 성격이 급한 손오공은 날개를 펼쳐 잽싸게 방 안으로 날아 들어가 두건이 걸린 선반 위에 자리를 잡았다. 이어 왕소이가 문가에서 등불을 떼어 내려놓고,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뒤에야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왕소이에게는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노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파는 해진 옷 한 벌을 가져다 꿰매고 기우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오공이 속으로 생각했다. '저 노파가 잠든 사이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스승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아닌가?' 밤이 더 깊어져 성문이 닫힐까 걱정된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불꽃을 향해 몸을 날려 뒤흔쳤다.

시로 이르되, 불꽃 속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거는구나, 타버린 이마로 남은 삶을 헤쳐 나가려나.

하지만 등불은 이미 꺼진 뒤였다. 손오공은 다시 몸을 흔들며 쥐로 변신하더니, 쉴쉴 소리를 내며 화를 내듯 울부짖으며 내려와 옷과 두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노파가 당황하며 외쳤다. "영감님, 큰 일 났어요! 밤에 돌아다니는 쥐가 요괴로 변했나 봐요!"

그 소리를 들은 손오공은 다시 수단을 써서 문을 가로막고는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왕소이야, 네 아내가 하는 헛소리는 듣지 마라! 나는 밤쥐 요괴가 아니다. 밝은 세상에서 어둠 속의 일을 하지 않는 법, 나는 제천대성으로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당삼장 스님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 네 나라 국왕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기에, 잠시 스승님의 차림새를 꾸밀 옷과 두건을 빌리러 온 것이다. 성을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 바로 돌려주마."

그 말을 들은 왕소이는 허겁지겁 일어나 어둠 속에서 허둥대며, 바지를 상의인 양 끼입으려다 왼쪽도 오른쪽도 제대로 입지 못해 안절부절못했다.

손오공은 술법을 부려 이미 구름을 타고 멀리 나갔다가, 다시 몸을 날려 길가 구덩이 근처로 돌아왔다. 달빛과 별빛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을 본 당삼장이 몸을 내밀어 살펴보니,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보고는 입을 열어 물었다.

"제자야, 멸법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앞으로 다가와 옷가지들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스승님, 멸법국을 지나가려면 승려 노릇은 못 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승려 안 해도 어렵지 않잖아요.
반년만 머리 안 깎고 버티면 금방 털이 숭숭 자라날 텐데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렇게 반년이나 기다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 당장 속인으로 변장
해야 한다."

그러자 눈치 없는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승려인데, 갑자기
속인이 되면 머리 수건은 어떻게 써요? 옆을 묶는다 해도 정수리 부분
을 고정할 끈이 없단 말이에요."

당삼장이 꾸짖었다.

"쓸데없는 소리로 판청 피우지 말고 정사(正事)에 집중해라.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제가 성 안을 살펴보니 비록 국왕이 도리에 어긋나 승려들
을 죽이려 하나, 성안에는 상서로운 빛과 경사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것

을 보니 참된 천자(天子)의 나라 같긴 합니다. 성안의 거리도 이미 다
익혔고, 이곳의 사정도 잘 알고 있으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식당
에서 옷 몇 벌과 머리 수건을 좀 빌려 왔으니, 일단 우리 모두 속인으로
변장해서 성안으로 들어가 하룻밤 묵읍시다. 그러다 새벽 네 시쯤 일어나
주인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한 뒤, 새벽 다섯 시쯤 성문을 나서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달리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붙잡더라도,
나라의 명을 받든 어사(欽差)라고 말하면 멸법국 왕도 감히 막지
못하고 보내줄 것입니다."

사오정이 말했다.

"사형의 말씀이 가장 옳습니다. 그대로 따릅시다."

결국 당삼장도 어쩔 수 없이 겹옷을 벗고 승려의 모자를 벗은 뒤, 속
인들의 옷을 입고 머리건을 둘렀다. 사오정도 옷을 갈아입었다. 저팔
계는 머리가 너무 커서 머리건이 써지지 않자, 손오공이 바늘과 실을
가져와 머리건을 두 갈래로 찢어 이어 붙인 뒤 머리에 얹어 주었다. 그
리고 넉넉한 옷을 골라 입혀 주었다. 그리고 나서 손오공도 스스로 옷
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번에는 '스승님'이나 '제자' 같은 말은 잠시 넣어두십시
오."

저팔계가 물었다.

"그 말 말고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모두 형제처럼 불러야 합니다. 스승님은 '당 대관(唐大官)'이라 부르고, 당신은 '주 삼관(朱三官)', 사오정은 '사 사관(沙四官)', 나는 '손 이관(孫二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식당에 들어가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만 입을 열어 대답해야 합니다. 주인이 무슨 장사를 하느냐고 물으면, 그저 말을 파는 손님이라고 하고 이 백룡마를 말인 양 세워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열 형제인데, 우리 네 명이 먼저 방을 빌리고 말을 팔러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도 분명 우리를 극진히 대접할 테니, 대접을 받은 뒤에 떠날 때쯤 내가 기와 조각 하나를 은자로 변하게 하여 사례를 하고 길을 떠납시다."

당삼장도 달리 방법이 없어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네 명의 일행은 서둘러 말을 끌고 짐을 짊어진 채 저쪽으로 달려갔다. 이곳은 평화로운 동네라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음에도 아직 문을 닫지 않아 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왕소이점 문앞에 이르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이는 "두건을 잃어버렸어!"라고 외치고, 어떤 이는 "옷이 없어졌어!"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 소란을 못 본 체하며 스승과 일행을 이끌고 바로 맞은편 집에 가서 쉬기로 했다.

그 집은 아직 등불을 거두지 않은 상태였다. 손오공이 문 앞으로 다가가 외쳤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빈방이 있소?" 그러자 안에서 한 여인이 대답했다. "있고말고요, 어서 위층으로 올라오세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와 말을 끌고 가기에, 손오공은 말을 건네주고 안으로 들

어갔다. 그는 스승을 안내하여 등불 그림자 뒤편을 지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는 편안한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창문을 열자 달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일행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누군가 불을 밝히려고 하자, 손오공은 문을 막아서며 입으로 바람을 훑 불어 끄며 말했다. "달빛이 이토록 밝은데 굳이 등불이 필요하겠소?"

그 여인이 내려가자마자 또 다른 시녀가 맑은 차 네 사발을 들고 올라왔고, 손오공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오십 대 후반 쯤 되어 보이는 부인 한 명이 올라와 곁에 서더니 물었다.

"손님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 파실 만한 귀한 물건이라도 있으신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리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거친 말 몇 필을 팔러 왔소."

부인이 말했다.

"말을 파는 손님치고는 아직 젊으시군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분은 당 대관, 이분은 주 삼관, 이분은 사 사관이고, 나는 손 이관이라 하오."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성씨가 다 다르군요."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성씨는 다르지만 형제처럼 한데 모여 사는 사이요. 우리 형제는 모두 열 명인데, 우리 네 명은 먼저 방을 빌려 불을 지피러 왔고, 나머지 여섯 명은 성 밖에 말을 데리고 머물고 있소. 날이 저물어 성안으로 들어오기가 여의치 않아 말ियो. 방을 빌린 뒤 내일 아침이면 모두 들어올 것이니, 말만 다 팔고 떠날 것이요."

부인이 물었다.

"말이 몇 필이나 됩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크고 작은 것이 백 필 정도 되는데, 다 내 말처럼 튼튼하오. 다만 털빛이 제각각일 뿐이지요."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 이관님은 참으로 장사 길에 흰하신 분이군요. 진작 저희 집으로 오셨으면 다른 집은 감히 손님을 붙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 집은 마당도 넓고 마구간과 여물통도 잘 갖춰져 있으며 여물도 넉넉하니, 수백 필의 말이라도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곳에서 장사한 지 오래되어 변변찮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성을 따서 '조 과부네 집'이라고 부르지요. 저희 집에는 손님을 모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야박

한 셈속을 먼저 하고 인정은 나중에 챙기는 셈으로, 우선 방값부터 정해 두어야 나중에 계산이 깔끔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웁으신 말씀이오. 귀댁에는 어떤 세 가지 방식이 있소? 흔히 '물건'에는 높고 낮은 세 등급의 값이 있으나, 손님은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한결같이 대한다'고 하는데, 어찌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세 가지나 된다는 말이오? 한번 말해보시오."

조 과부가 말했다.

"저희 집은 상, 중, 하 세 등급이 있습니다. '상급'은 과일과 채소가 가득한 진수성찬에 사탕 장식상을 곁들인 잔칫상입니다. 두 분이서 상 하나를 쓰시며, 예쁜 아가씨를 불러 노래도 듣고 시중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사람당 방값을 포함해 은 다섯 돈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거 값이 싸구려. 우리 고장에선 은 다섯 돈으로는 아가씨를 부르기에 모자라오."

조 과부가 다시 말했다.

"그럼 '중급'은 상 하나에 과일과 따뜻한 술을 차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가씨를 부르지 않고 손님들끼리 주사위 놀이 같은 게임을 즐기며 노시는 방식이지요. 비용은 한 사람당 은 두 돈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더 싸군. 그럼 '하급'은 어떠하오?"

부인이 말했다.

"귀한 손님 앞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손오공이 말했다.

"말해도 괜찮소. 우리 형편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하지 않겠소?"

부인이 대답했다.

"하급은 시중드는 사람 없이 솥에 있는 편한 음식을 알아서 드시고, 배를 채우면 짚을 깔고 편한 곳에서 잠을 자는 방식입니다. 날이 밝으면 밥값으로 몇 푼을 주시면 될 뿐, 서로 다투는 일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신이 나서 소리쳤다.

"아이고, 좋아라! 드디어 이 주씨의 장사가 제대로 풀렸구나! 솥에 있는 밥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아궁이 앞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강호를 떠돌며 은 몇 냥 못 벌겠소? 그냥 상급으로 준비하시오."

그 부인은 기쁨이 가득한 나머지 즉시 소리쳤다. “좋은 차를 내오고, 주방에서는 어서 음식을 준비해라!” 그리고는 이층 아래로 내려가 바삐 명령했다. “닭이랑 거위 좀 잡고, 밀반찬도 좀 무쳐라!” 이어 또 소리쳤다. “돼지랑 양도 잡아라. 오늘 다 못 쓰더라도 내일 쓸 수 있으니까. 술도 잘 챙겨두고, 흰쌀로 밥을 짓고 밀가루로는 전병도 부쳐라.”

이층에 있던 당삼장이 이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손행자, 이를 어쩌면 좋으냐? 저들이 닭과 거위를 잡고 돼지와 양까지 잡는다는데, 나중에 음식이 다 차려지면 우리 같은 수행자들이 감히 어떻게 먹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손오공은 이층 문가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말했다. “조 아주머니, 위로 좀 올라와 보세요.”

조과부가 올라오며 물었다. “나리, 무슨 분부라도 있으신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오늘은 살생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재계(齋戒,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가려 먹음)를 할 예정이라서요.”

조과부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나리들께서 재계를 하신다니요? 혹시 매달 정해진 날에 하는 월재(月齋)인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경신재(庚申齋)라고 부르는 것을 합니다. 마침 오늘이 경신일이라 재계를 해야 하거든요. 오늘 밤 자정(삼경)만 지나면 바로 신유일이 되니 그때부터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 살생은 내일 하세요. 지금은 우선 채소로 만든 소박한 음식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값은 원래 정해진 대로 치러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더욱 기뻐하며 아래로 달려가 이렇게 일렀다.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목이버섯이랑 죽순, 두부, 밀고기 좀 가져오고, 텃밭에서 채소도 좀 뽑아다가 국을 끓여주게. 밀가루 반죽해서 찌빡도 만들고, 흰쌀밥에 향긋한 차도 좀 나오게나."

아니나 다를까, 요리사들은 매일 집에서 하던 일처럼 능숙하게 순식간에 음식을 준비해 2층으로 날랐다. 게다가 미리 준비해둔 사탕과 과자까지 차려지니, 네 사람은 마음껏 음식을 즐겼다.

여인이 다시 물었다. "채식용 술도 드시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당 대관(唐大官)만 안 드시면 되니, 저희는 몇 잔 마시지요."

과부가 따뜻하게 데운 술 한 병을 가져왔다. 세 사람이 막 술을 따르려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쿵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오공이 물었다. "아주머니, 아래층에서 무슨 세간이라도 넘어진 겁니까?"

과부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우리 농막의 소작인 몇 사람이 도조로 널 쌀을 가져왔는데 좀 늦게 와서 아래층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셨는데 시종들 사람이 없어서, 그들에게 가마를 메고 마당으로 가서 아가씨를 모셔오라고 시켰거든요. 아마 가마채가 마룻바닥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나 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냥 사람 부르지 마세요. 첫째로 지금은 재계(齋戒)하는 날이기도 하고, 둘째로 우리 형제들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내일 모두 들어와서, 한 사람마다 아가씨를 하나씩 불러 집에서 실컷 놀다가 말을 팔고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과부가 맞장구를 쳤다.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손님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고, 저희도 기운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아래로 소리쳤다. "가마를 그냥 들여놓기만 해라! 사람을 부르러 가지는 말고!"

네 사람은 술과 밥을 다 먹고 뒷정리를 마친 뒤 자리를 떴다.

당삼장이 손오공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물었다. "저기서 어떻게 자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냥 저 위층에서 자면 되지요."

그러자 당삼장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건 너무 불안하구나. 우리 모두 고생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잠이 들었다가 이 집 주인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정리하다가, 모자가 벗겨져 대머리가 드러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승려인 걸 금방 알아채고 소란을 피울 텐데, 그땐 어찌하겠느냐?"

손오공이 맞장구를 쳤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조과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러자 조과부가 올라오며 물었다. "손 나리, 또 무슨 분부라도 있으신지요?"

손오공이 물었다. "우리가 저기서 자도 되겠습니까?"

조과부가 대답했다. "위층이 잠자기 참 좋습니다. 모기도 없고 남풍도 솔솔 불어오지요. 창문까지 활짝 열려 있으니 잠자리가 아주 안락합니다."

손오공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건 안 되겠군요. 저 주 삼관은 몸에 습한 기운이 좀 있고, 사 사관은 어깨에 찬바람이 드는 체질이라서요. 게다가 당 형님은 어두운 곳에서만 주무셔야 하고, 저도 빛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니 이곳은 우리가 잠을 청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노파는 길가에 내려가 가판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흔히 '열 번의 여울을 앉아서 건너면 하루에 아홉 여울을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한여름이라 장사가 잘 안된다 해도, 가을이 다가오면 다시 활기를 띠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숨만 쉬세요?"

노파가 대답했다.

"얘야, 장사가 안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란다. 오늘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밤이 깊어갈 무렵에 말 장수 네 명이 가게를 빌리러 오기로 했거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돈을 좀 벌해보려 했는데, 그 사람

들이 채식을 한다지 뭐냐. 그러면 돈을 벌 수도 없으니 어쩌나 싫어 한숨이 나오는구나.”

그러자 딸이 말했다.

“그분들이 이미 식사를 하셨다면 다른 집으로 가기도 어려울 테니, 내일은 고기 요리와 술을 잘 준비해서 대접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노파가 다시 말했다.

“그 사람들은 몸도 아프고, 바람도 싫어하고, 빛도 피해서 어두운 곳에서 자야 한다더구나. 우리 집은 온통 틈새가 많은 낡은 집인데, 어디서 어두운 곳을 찾겠니? 차라리 음식 대접하는 걸 포기하고 그분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딸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어둡고 바람도 안 통하는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정말 딱이에요!”

노파가 물었다.

“그게 어디냐?”

“아버지가 예전에 커다란 궤를 하나 만드셨거든요. 그 궤는 폭이 네 자, 길이는 일곱 자, 높이는 세 자나 돼서 안에는 대여섯 명도 충분히 누울 수 있어요. 그분들께 그 궤 안에서 주무시라고 하면 돼요.”

노파가 말했다.

“그게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한번 물어보마. — 손 나리, 저희 집이 워낙 좁고 허술해서 어두운 곳이 마땅치 않은데, 바람도 안 통하고 빛도 안 드는 커다란 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무시는 건 어떨겠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손오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손님들은 궤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 뚜껑을 열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손오공은 스승을 이끌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진 채 등불 그림자를 따라 궤 옆으로 다가갔다. 저팔계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먼저 궤 안으로 덥석 기어 들어갔다. 사오정이 짐을 안으로 건네주고 당삼장을 부축해 밀어 넣은 뒤, 자신도 안으로 들어갔다.

손오공이 "내 말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곁에서 시중들던 사람이 "말은 뒷방에 매어 두고 여물을 먹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말을 끌어다 오고, 여물통도 옮겨다가 이 궤 바로 옆에 바짝 붙여 매어 두어라."

그제야 손오공도 궤 안으로 들어가며 외쳤다. "조 아주머니, 궤 뚜껑을 덮고 자물쇠 못을 박은 뒤에 자물쇠까지 채워 주세요. 그리고 혹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종이로 잘 막아 주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열어 주십시오."

조과부가 "정말이지 너무 조심스럽군요"라고 말하며,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을 청했다.

한편, 네 사람이 궤 속에 들어갔으니 참으로 가련한 처지였다. 우선 처음 써본 두건이 어색하기도 했거니와, 날씨는 또 어찌나 더운지 바람 한 점 통하지 않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팔계는 두건을 벗고 옷까지 풀어헤쳤으나, 부채가 없어 그저 승려 모자를 손에 쥐고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네 사람은 서로 몸을 맞댄 채 이리저리 자리를 잡다가, 밤이 깊어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손오공만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슬쩍 손을 뻗어 저팔계의 다리를 꼬집어 괴롭혔다. 잠결에 깜짝 놀란 저팔계가 다리를 움츠리며 웅얼거렸다.

"그만 좀 하고 잠이나 자게. 고생스럽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심보로 자꾸 사람을 건드리고 장난을 치는 거야?"

손오공이 짓궂게 대꾸했다.

"우리 원래 가진 돈이 오천 냥이었잖아. 아까 말은 삼천 냥에 팔았고, 이제 남은 돈이 사천 냥이나 되니까, 이 말들까지 삼천 냥에 팔면 꽤 짭짤한 이익이 남는다고. 충분하고도 남지, 암!"

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저팔계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리 만무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식당의 점원과 물 길는 사람, 불 때던 사람들이 모두 도적들과 한패였다. 그들은 손행자가 은자가 아주 많다는 말을 듣자마자, 몇 명을 몰래 내보내 스무 명 남짓한 도적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말 장수들을 털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닥쳤다. 겁에 질린 조과부의 딸과 여인들은 벌벌 떨며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지켜볼 뿐이었다. 사실 도적들은 식당 안의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손님들만 노린 것이었다. 도적들은 2층으로 올라갔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횃불을 들고 사방을 비추며 살폈다. 그러다 안뜰에서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상자 다리에는 백룡마가 묶여 있었고 뚜껑은 꼭 잠겨 있어 아무리 들치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적들이 말했다. "강호를 떠도는 이들은 다들 눈치가 빨라. 이 상자 모양을 보니 분명히 보따리와 재물을 안에 넣어 잠가둔 것이 틀림없어. 차라리 말을 훔치고 상자를 메고 성 밖으로 나가서, 나중에 열어 나누어 갖는 게 어떻겠느냐?"

도적들은 정말로 밧줄을 가져와 상자를 짊어지고는 흔들거리며 성 밖으로 나갔다. 그때 잠에서 깬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잠이나 자요. 왜 이렇게 흔들거립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말하지 마라. 흔들리는 게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다."

당삼장과 사오정도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며 물었다. "대체 누가 우리를 메고 가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그냥 이대로 실려 갑시다. 서천까지 실려 가면 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도적들은 물건을 손에 넣자마자 서쪽으로 달아나기는커녕, 오히려 성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탈출했다. 이 소동에 성안의 모든 거리와 시장이 발각 뒤집혔고, 갑옷을 입은 일꾼들이 일제히 일어나 순성 총병과 동성 병마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총병과 병마사가 즉시 군사와 궁수들을 소집하여 도적들을 쫓기 위해 성 밖으로 나섰다. 도적들은 관군 세력이 워낙 강한 것을 보고 감히 맞서지 못한 채, 커다란 궤를 내팽개치고 백룡마마저 버려둔 채 각자 흩어져 풀숲으로 도망쳤다. 관군은 도적 한 놈도 잡지 못했지만, 대신 궤를 되찾고 말을 붙잡는 데 성공하여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왔다. 총병은 등불 아래에서 그 말을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말이었다.

시로 이르되, 갈기는 은실을 엮어 놓은 듯하고 꼬리는 옥줄처럼 빛나네. 천하의 명마라 일컬어지는 말들도 이 말의 기세에는 비할 바 못되니, 천금을 주고 그 뼈라도 사들일 만하고 만 리 길도 바람을 쫓듯 내달리는구나. 산을 오를 때는 푸른 구름과 어우러지고, 달을 향해 울부짖을 때는 흰 눈처럼 깨끗하도다. 진정 바다를 떠난 교룡이요, 인간 세상에 나타난 옥기린이로다.

총병은 자신의 말을 두고 이 백룡마에 올라타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궤를 관청으로 옮겨 병마사와 함께 봉인한 뒤,

사람을 시켜 날이 밝을 때까지 지키게 하며 국왕의 명을 기다리게 했다. 관군이 모두 흩어진 뒤에도 이 일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궐 속에 갇힌 당삼장이 손오공을 원망하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차라리 밖에서 붙잡혀 멸법국 국왕에게 끌려갔다면 차라리 변명이라도 해보겠지. 그런데 지금은 궐 속에 갇혀 도둑놈들에게 탈취당했다가, 또 관군에게 되찾아졌으니, 내일 국왕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변명도 못 하고 그대로 칼을 맞아 죽게 생겼지 않느냐? 그러면 국왕이 원하던 만 명의 제물 숫자에도 딱 맞게 되겠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밖에서 누군가 궐을 열어 꺼내 놓았다면, 몸이 묶이거나 목이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야 묶이거나 매달리는 화를 면합니다. 내일 그 어리석은 임금을 만나면 이 손오공이 알아서 잘 대처할 테니, 스승님께서도 조금도 다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놓으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한밤중 삼경(子時)이 되었을 때, 손오공은 재주를 부려 여의봉을 꺼낸 뒤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여의봉이 세 개의 머리가 달린 송곳으로 변하더니, 궐작 발치로 파고들어 구멍을 하나 뚫었다. 손오공은 송곳을 거두고 몸을 흔들며 작은 개미로 변신하여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구름을 타고 곧장 황궁 문밖으로 날아 들어갔다.

당시 국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손오공은 ‘대분신보회신법(分身術, 몸을 나누는 술법)’을 펼쳐 왼쪽 팔의 털을 모조리 뽑아낸 뒤, 입

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뽑아낸 털들이 모두 작은 손오공들로 변했다. 이어 오른쪽 팔의 털도 모두 뽑아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이번에는 털들이 모두 잠을 자게 만드는 벌레로 변했다. 손오공이 ‘옴’ 자 진언을 외우자, 그 땅을 관장하는 토지신들이 무리를 이끌고 황궁 안뜰과 오부육부, 그리고 각 관청의 관리들 집안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직책이 있는 관리라면 누구든 손오공이 만든 벌레를 몸에 품게 되어, 모두가 뒤척임조차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어 손오공은 금고봉을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하며 휘두르더니 외쳤다. “보물아, 변해라!” 순식간에 금고봉이 수천수백 개의 이발용 칼로 변했다. 손오공은 칼 한 움큼을 쥐고 작은 분신들에게도 각각 한 움큼씩 나누어 주며, 황궁 안뜰과 오부육부, 각 관청으로 가서 머리카락을 깎으라고 명령했다.

시로 이르되, 법왕이 법을 멸하나 그 법력은 끝이 없고, 법은 온 세상을 꿰뚫어 대도와 통하도다. 만 가지 법의 근원은 하나의 몸으로 돌아가니, 삼승의 묘한 모습은 본래 모두 같도다. 옥계를 뚫어 밝은 소식을 전하고, 금빛 털을 흩뿌려 어둠을 깨뜨리네. 법왕이 정과를 이루게 하리니,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허공과 같도다.

한밤중에 머리카락을 깎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워 토지신들을 물러가게 한 뒤, 몸을 한 번 털어 양팔의 털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다. 이발용 칼들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니 여전히 금고봉이었고, 손오공은 이를 작게 만들어 귀 뒤에 숨겼다. 다

시 몸을 뒤집어 개미로 변한 그는 궤짝 안으로 기어 들어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당삼장과 함께 갇힌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편, 황궁 안뜰에서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몸단장을 하던 궁녀들이 모두 머리카락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궁궐을 드나드는 크고 작은 내관들 또한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놀라 침소 밖으로 몰려나왔으나, 음악 소리에 잠이 깰까 두려워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잠시 후, 세 명의 황후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들 역시 머리카락이 없었다. 황후가 급히 등불을 옮겨 용상 아래를 살펴보니, 비단 이불 속에서 한 스님이 잠을 자고 있었다. 황후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자 국왕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국왕이 급히 눈을 떴을 때 황후의 머리가 매끈한 것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부인, 어찌 된 일이요?"

황후가 대답했다.

"폐하께서도 마찬가지이옵니다."

황제가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더니, 너무나 놀라 혼비백산하며 소리쳤다.

"짐이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국왕이 당황하고 있을 때, 육원(六院)의 후궁들과 궁녀들, 그리고 내관들이 모두 대머리가 된 채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 저희가 모두 스님이 되어버렸나이다."

그 광경을 본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마도 과인이 승려들을 살해한 죄 때문인가 보구나……."

이어 국왕은 즉시 명을 내렸다.

"머리카락이 빠진 일을 절대 밖으로 발설하지 말라. 혹여 문무백관들이 나라가 바르지 못하다고 비난할까 두렵구나. 모두 전각으로 모여 조회를 열도록 하라."

한편, 오부육부의 모든 관청과 그곳의 크고 작은 관리들은 날이 밝기도 전부터 국왕을 알현하러 궁궐로 향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밤 사이에 모두 머리카락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관리들은 저마다 이 황당한 일을 상소문에 적어 올렸다.

시로 이르되, "채찍 소리 세 번 울리며 황제에게 나아가니, 오늘 아침 모두가 머리를 깎인 사연을 올리네."

결국 총병관이 궐 속에서 탈취한 도둑들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당삼장 일행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5회 — 마음의 원숭이가 나무의 어머니를 질투하고, 마왕이 선의 근원을 삼키려 계책을 세우다

心猿妒木母 魔主計吞禪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나라 국왕이 조회를 열자, 문무백관이 모두 상소문을 들고 나아가 아뢰었다. “전하, 저희가 결례를 범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국왕이 물었다. “경들의 예법은 평소와 다름없는데, 어찌 결례를 범했다는 말이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전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사오나, 저희가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나이다.” 국왕은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내용의 상소문을 받아 들고는 용상에서 내려와 신하들에게 말했다. “과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짐의 궁궐 안팎에 있는 사람들도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모조리 빠져버렸느니라.”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펴펴 쏟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승려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왕이 다시 용상에 오르자 신하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섰다. 국왕이 다시 말했다. “보고할 일이 있는 자는 앞으로 나와 아뢰고, 별일 없으면 휘장

을 거두고 조회를 마치라.” 그때 무관 쪽에서 순성총병관이 튀어나오고, 문관 쪽에서는 동성병마사가 걸어 나와 계단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신들은 성旨를 받들어 성안을 순찰하던 중, 어젯밤 도둑맞은 상자 하나와 백마 한 필을 찾아냈나이다. 소신들이 감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전하의 명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국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상자도 함께 가져오너라.”

두 신하가 즉시 관아로 돌아가 군사들을 정렬시킨 뒤, 상자를 짊어지고 나갔다.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삼장은 혼이 나간 듯한 모습으로 말했다. “제자들아, 국왕 앞에 가서 이 일을 어찌 설명해야 하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준비를 해두었으니, 상자가 열리는 순간 국왕이 우리를 스승으로 모시며 절을 올릴 겁니다. 다만 저팔계가 나서서 잘난 척하며 다투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팔계가 대답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무한한 복인데, 제가 어찌 감히 다투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상자는 조정 밖으로 옮겨져 오봉루로 들어갔고, 단치 아래에 놓였다.

두 신하가 국왕에게 상자를 열어보라 청하자, 국왕은 즉시 명령을 내려 상자를 열게 했다. 뚜껑을 열자마자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기세에 놀란 관리들은 겁에 질려 입도 병긋하지 못했다. 이어 손오공이 당승을 부축해 나오고, 사오정이 짐을 날라 왔다. 저팔계는 순성총병관이 말을 끌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앞으로 성큼 다가

서며 “그 말은 내 것이니 이리 내놔!”라고 호통을 쳤다. 그 바람에 관리는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네 사람이 계단 위에 나란히 서자, 국왕은 이들이 모두 승려인 것을 보고 급히 용상에서 내려왔다. 또한 세 명의 왕비와 후궁들을 불러 모은 뒤, 보전을 내려와 신료들과 함께 예를 갖추어 물었다. “스님들께서는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소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 천축국 대뇌음사로 가서 살아있는 부처님을 뵙고 진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국왕이 물었다. “스님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어찌하여 이런 상자 속에 들어가 쉬고 계셨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폐하께서 승려를 죽이겠다는 서원을 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대당의 신분으로 당당히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세의 사람으로 변장하여 밤중에 여관을 빌려 묵으려 했으나, 혹여 본모습이 탄로 날까 두려워 상자 속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도둑을 만나 상자를 도둑맞고, 총병관에게 붙잡혀 이리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폐하의 존안을 뵙게 되니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타난 듯합니다. 부디 폐하께서 소승을 사면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바다처럼 깊을 것입니다.”

국왕이 말했다. “스님은 대당의 고승이신데, 짐이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짐이 평소 승려를 죽이려 했던 것은, 예전에 어떤 승려가 짐을 비방한 일이 있어 그 원한을 풀고자 승려 만 명을 죽여 서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 밤 스님들을 만나게 되어 짐이 승려의 길로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신과

왕비들까지 모두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렸으니, 부디 스님께서 어진 분으로서 마다하지 마시고 저희를 문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허허 웃으며 말했다. “제자로 받아주시겠더니 좋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을 뵈는 예물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국왕이 대답했다. “스님께서 저희 문하로 들어와 주신다면, 나라의 모든 보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끼어들었다. “보물은 됐습니다. 우리 승려들은 도를 닦는 이들입니다. 그저 그 통행 문서(관문)만 갱신해 주시고 우리를 성 밖으로 무사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폐하의 황업이 영원히 굳건해지고 복과 장수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광록시를 시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과 신하들이 뜻을 모아 하나로 귀의하였으며, 곧바로 통행 문서를 갱신하고 스승님께 나라 이름을 새로 지어달라 청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나라 이름 가운데 ‘법국(法國)’이라는 글자는 아주 좋으나, 다만 ‘멸(滅)’ 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것을 계기로 나라 이름을 ‘흠법국(欽法國, 법을 공경하는 나라)’으로 고치십시오. 그리하면 나라가 천 대(代)에 이르도록 태평하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 만방이 안락할 것입니다.”

국왕은 은혜에 감사하며 행차를 정돈하여 당승 일행을 성 밖 서쪽으로 배웅했다. 임금과 신하들이 선한 마음으로 참된 도에 귀의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둔다.

한편, 당승은 흠법국 국왕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말 위에 올라타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손오공, 이 방법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주 큰 공을 세웠어."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미용사를 찾아내서 밤새도록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건가요?" 손오공이 변화무쌍한 신통력을 부려 일을 처리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스승과 제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다.

한창 즐겁게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높은 산 하나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삼장이 말의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제자들아, 저 앞의 산세가 아주 험준하니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스승님께 아무 일도 없도록 지켜드릴게요."

그러자 삼장이 말했다.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말은 하지 마라. 저 산 봉우리가 우뚝 솟은 모양새가 멀리서 보니 어쩐지 흉측해 보이는구나.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니 점점 겁이 나고 온몸이 저릿하며 마음이 불안하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오소선사가 가르쳐 주신 '다심경(마음을 다스리는 경전)'을 벌써 읽으신 겁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기억하고 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기억은 하시더라도, 그중에 이 네 구절의 계송은 읽으신 모양이군요."

삼장이 물었다. “그 네 구절이 무엇이냐?”

손오공이 읊었다.

“부처님은 영산에 계시니 멀리서 찾지 마라. 영산은 바로 그대 마음 속에 있느니라. 사람마다 마음속에 영산탑 하나씩 품고 있으니, 그 탑 아래에서 정성껏 수행하면 되느니라.”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저 구절대로라면 그 어떤 경전과 법전도 결국 마음을 닦는 것에 달려 있다는 뜻 아니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고말고요. 마음이 깨끗하면 홀로 밝게 빛나고, 마음이 맑으면 세상 만물이 모두 청정해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게을러지면 천 년 만 년이 지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결같은 정성만 있다면 뇌음사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스승님처럼 겁을 먹고 불안해하시면 큰 도(道)도 멀어지고 뇌음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삼장은 마음이 단번에 상쾌해지며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네 명의 일행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산에 다다랐는데,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이리하였다.

참으로 좋은 산이로다, 자세히 보니 빛깔도 다채롭네. 정상에는 구름이 넘실거리고, 절벽 앞에는 나무 그림자 차갑구나. 새들은 지저귀고 짐승들은 사납게 뛰노는데, 숲에는 소나무가 천 그루요, 봉우리엔

는 대나무가 수없이 솟았네. 늑대는 먹이를 뺏으려 울부짖고, 굶주린 호랑이는 먹이를 다투며 포효하네. 들원숭이는 신선한 과일을 찾아 길게 울부짖고, 사슴은 푸른 안개 속 꽃을 찾아 오르내리네. 바람은 살랑이고 물소리는 졸졸 흐르며, 이따금 산새들의 지저귀음이 들려오는데, 덩굴은 여기저기 엉켜 있고, 시냇가에는 향기로운 풀과 난초가 가득하네. 기괴한 바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는 날카롭구나. 여우는 떼를 지어 달리고, 원숭이는 무리를 지어 날뛰는데, 길 가는 이는 험준한 길에 근심이 깊고, 굽이굽이 이어진 옛길은 끝이 없네.

스승과 제자들은 겁에 질려 조심스레 걷고 있는데, 갑자기 휘이잉 하고 거센 바람이 한바탕 몰아쳤다. 삼장이 겁에 질려 말했다. "바람이 일기 시작했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봄에는 온화한 바람이, 여름에는 향긋한 바람이, 가을에는 서늘한 바람이,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니다.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부는데, 바람 좀 분다고 겁낼 게 뭐 있습니까?" 삼장이 다시 말했다. "이 바람은 너무 급작스럽게 몰아치는구나. 결코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예로부터 바람은 땅에서 일어나고 구름은 산에서 나오는 법인데, 어찌 하늘에서 저절로 바람이 내려오겠습니까?"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의 모습은 이리하였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은 어둡고, 땅 위에는 안개가 가득해 눈앞이 캄캄하다. 햇빛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구나. 마치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혼돈처럼, 혹은 날리는 먼지처럼 뿌연

기만 하네. 산봉우리의 나무도 보이지 않으니, 약초 캐는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으랴.

삼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공아, 바람도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안개가 또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선 말에서 내려 쉬고 계십시오. 두 형제는 여기서 이 자리를 잘 지키고 계세요. 제가 가서 이것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몸을 굽히더니 단숨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한 손을 눈썹 위에 얹고 화안금정을 번뜩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절벽 끝에 요괴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무늬는 화려하고 빛깔은 선명하며, 기세는 당당하고 씩씩하구나. 송곳니는 강철 송곳처럼 툭 튀어나왔고, 날카로운 발톱은 옥 갈고리처럼 숨겨져 있네. 금빛 눈은 짐승조차 겁에 질리게 하고, 은빛 수염은 거꾸로 솟아 귀신도 근심하게 하네. 광기 어린 포효로 위엄을 떨치며, 안개와 바람을 내뿜어 꾀를 부리는구나.

그 좌우 수하에는 삼사십 명(서른에서 마흔 명가량)의 졸개 요괴들이 줄지어 서서, 힘껏 안개와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손오공이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 하늘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과연 이 바람은 요괴가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군. 내가 당장 여의봉을 휘둘러 내려치면 단숨에 해치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마치 마늘을 찢듯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꼴이라 내 명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

손오공은 본래 호걸이라 남을 속여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성격이었다. 그는 다시 궁리했다. '일단 돌아가서 저팔계를 불러내어 저 요괴와 한판 붙게 해야겠다. 만약 팔계가 재주가 있어 저 요괴를 쓰러뜨린다면 운이 좋은 것이고, 만약 실력이 없어 요괴에게 잡히더라도 내가 나중에 구해내면 내 이름이 훨씬 더 빛나겠지. 게다가 저팔계는 평소에 게으름을 피우며 나서기를 싫어하지만, 맛있는 것 앞에서는 입이 아주 가벼우니, 내가 적당히 꼬드겨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

손오공은 즉시 구름에서 내려와 삼장 앞에 내려앉았다. 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저 안개와 바람이 몰아치는 곳의 길흉이 어떠한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지금은 안개가 걷히고 깨끗해져서 별다른 바람이나 안개는 없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그렇구나. 기운이 물러가는 모양이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평소에는 눈썰미가 좋은데 이번에는 잘못 보았습니다. 안개 속에 요괴가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앞으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해서, 하얀 쌀밥과 밀가루 음식을 찌서 스님들에게 공양하곤 합니다. 저 안개는 아마도 그 집들에서 밥을 찌는 김이 올라온 모양인데, 선행을 쌓은 덕분에 나타난 상서로운 기운인 듯합니다.” 저팔계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줄로만 믿고는, 손오공을 끌어당겨 몰래 속삭였다. “형님, 형님은 벌써 가서 그 공양을 드시고 오신 겁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조금 먹긴 했다면, 채소가 너무 짜서 많이 먹지는 않았다.” 저팔계가 말했다. “헛! 아무리 짜더라도 저는 배가 터지도록 다 먹어 치울 겁니다. 목이 마르면 나중에 돌아와서 물을 마시면 되지요.” 손오공이 물었다. “너도 먹겠느냐?” 저팔계

가 말했다. “그럼요! 마침 배가 좀 고프던 참인데, 먼저 가서 좀 먹고 와도 될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아, 걱정 마라. 옛글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계실 때 자식은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스승님이 여기 계시는데 누가 감히 먼저 가겠느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그냥 가버릴 겁니다.” 손오공이 응수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어떻게 가겠느냐?” 먹을 것만 밝히는 저팔계치고는 의외로 눈치가 빠른 그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님, 방금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앞 마을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좀 지쳤는데, 가서 풀이나 먹이를 좀 구해다 주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마침 안개도 걷혔으니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연한 풀이라도 좀 구해와 말에게 먹인 다음에, 그 집으로 가서 공양을 받겠습니다.” 삼장이 기뻐하며 말했다. “종구나! 네가 오늘 어찌 이리 부지런하냐? 어서 다녀오너라.”

그 어리석은 놈은 속으로 비웃으며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얼른 따라붙어 그를 붙들며 말했다. “이보게 형제, 그 마을에서는 승려에게 공양할 때 잘생긴 승려에게만 공양하고 못생긴 승려에게는 공양하지 않는단 말이야.” 저팔계가 되물었다. “그 말은 또 다시 변신을 하라는 뜻이군?”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렇지, 어서 가서 변신 좀 해보게나.” 그 어리석은 놈도 서른여섯 가지의 변화술을 알고 있었다. 그는 산골짜기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결(訣)을 짚고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더니, 이내 키가 작고 마른 스님으로 변신했다. 손에는 묵탁을 들고 입으로는 ‘아흥, 아흥’ 소리를 내며 흥얼거렸는데, 불경을 읽을 줄도 몰라 그저 글자 익히기 교본의 첫머리 구절인 ‘상대인(上大人)’만 계속 흥얼거릴 뿐이었다.

한편, 그 요괴는 바람과 안개를 부려 부하 요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고는 큰 길목에 원형 진을 펼쳐 놓고 지나가는 행인을 기다렸다. 운 나쁘게도 저팔계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 한복판으로 들이닥치고 말았고, 요괴들에게 포위당했다. 요괴들은 이쪽에서는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저쪽에서는 끈을 붙잡으며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저팔계가 외쳤다. "이놈들, 잡아당기지 마라! 내가 한 명씩 차례대로 다 먹어 치울 테니까!"

그러자 요괴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중놈아, 네가 뭘 먹겠다고?"

저팔계가 대답했다. "너희가 승려들에게 공양을 올린다기에, 나도 공양을 좀 하러 왔다!"

요괴들이 깔깔대며 말했다. "공양이라니? 여기는 승려를 대접하는 곳이 아니라, 승려를 잡아먹는 곳이다! 우리는 산속에서 도를 닦은 요괴들이라, 너희 같은 중놈들을 잡아다가 집으로 가져가 찜통에 넣고 푹 찌서 먹을 참이다. 그런데 감히 네가 공양을 받으러 왔다고?"

이 말을 들은 저팔계는 속으로 겁이 덜컥 났다. 그는 손오공을 원망하며 투덜거렸다. "이 빌어먹을 손오공 녀석, 정말 게으르고 사람을 속이는군! 마을에서 승려들에게 공양을 한다고 꼬드기더니, 대체 마을은 어디 있고 공양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 전부 요괴들이 아니냐!"

요괴들에게 끌려가며 다급해진 저팔계는 결국 본래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쇠못이 박힌 쇠갈퀴를 뽑아 들고는, 달려드는 소요들을 향해 사정없이 휘두르며 몰아붙였다.

소요가 급히 달려가 요괴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소요가 대답했다. “산 앞에 스님 한 명이 나타났는데,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다가 찌 먹되, 다 못 먹으면 좀 남겨두었다가 흐린 날(만일)을 대비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놈이 변신술을 부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괴가 물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더냐?” 소요가 말했다. “그게 어디 사람 꼴입니까? 입은 툭 튀어나오고 귀는 커다란 데다, 등 뒤에는 갈기 같은 털이 나 있습니다. 양손에 쇠갈퀴 하나를 휘두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찍어 대는데, 그 기세가 너무 무서워 저희도 도망쳐서 대왕님께 보고하러 온 것 아닙니까.” 요괴가 말했다. “겁내지 마라, 내가 가서 보겠다.” 요괴는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멍청해 보이는 놈은 과연 흉측하게 생겼는데, 그 모습이 이러했다.

“방아처럼 튀어나온 주둥이는 길이가 세 자 남짓이요, 뺨져나온 송곳니는 은못보다 더하구나. 두 눈은 둥글어 번개처럼 빛나고, 두 귀는 바람을 일으키며 펄럭펄럭 소리를 내네. 뒷머리 갈기는 철화살처럼 늘어섰고, 온몸 가죽은 거칠고 푸르스름하구나. 손에 든 기이한 물건, 아홉 이빨 쇠갈퀴를 보고 모두가 놀라네.”

요괴는 용기를 내어 호통을 쳤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어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네가 네 돼지 조상님도 못 알아보는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일러주마.

입은 크고 송곳니가 돋았으며 신통력이 커서, 옥황상제께서 나를 천봉원수로 삼아 주셨다. 천하(天河)의 군사 팔만을 거느리며, 천궁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지냈었지. 하지만 술에 취해 선녀를 희롱하다가, 그때 영웅의 신세를 그르치고 말았구나. 한 주둥이로 두우궁(斗牛宮)을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왕모의 영지(靈芝) 채소를 먹어 치웠더니, 옥황상제가 직접 망치로 이천 대를 내리쳐, 나를 하계(下界)로 내쫓았도다. 원신(元神)을 기르며 뜻을 세우라 명하셨건만, 이 아래 세상에서 도리어 요괴가 되어버렸구나. 마침 고로장(高老莊)에서 기쁘게 혼인을 맺으려는데, 운수가 사나워 손 형님과 마주치게 되었으니, 금고봉(여의봉) 아래 항복하고, 머리를 숙여 불문(沙門)에 귀의했도다. 말을 끌고 짐을 지며 고된 일을 하는 것은, 전생에 당승에게 진 빚 때문이라. 무쇠발의 천봉원수, 본래 성은 돼지요, 법명은 저팔계로다.”

그 말을 들은 요괴가 소리쳤다. “네놈이 알고 보니 당승의 제자였구나! 나는 평소 당승의 고기가 아주 맛있다는 말을 듣고 너를 잡아먹으려 했는데, 네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 어찌 살려두겠느냐? 도망갈 생각마라, 내 몽둥이를 받아라!” 저팔계가 대꾸했다. “이 못된 짐승아, 너는 알고 보니 염색쟁이(染博士) 출신이로구나!” 요괴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어째서 염색쟁이란 말이냐?” 저팔계가 비꼬았다. “염색쟁이가 아니라면, 어찌 (빨래·염색용) 방망이를 휘두를 줄 알겠느냐?”

요괴는 말로 따질 겨를도 없이 다가가 마구 공격했다. 두 괴물은 산골짜기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는데, 그 광경은 이러했다.

“아흠 이빨 쇠갈퀴와 한 자루 쇠몽둥이라. 갈퀴는 광풍처럼 휘몰아 치고, 몽둥이는 폭우처럼 쏟아지네. 한 명은 길을 막는 이름 없는 악귀요, 한 명은 죄를 지고 본성을 지키는 천봉원수라네. 성품이 곧으니 요괴와 마귀를 어찌 두려워하랴, 산이 높아도 금(金)이 흙(土)에서 생겨나지 못하리. 저 몽둥이가 막아서는 모습은 연못에서 솟구치는 구렁이 같고, 이 갈퀴가 날아드는 모습은 포구를 떠나는 용과 같구나. 외치는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고, 호령하는 위엄은 지부(地府)조차 놀라게 하네. 두 영웅이 각자 능력을 뽐내며, 몸을 던져 신통력을 겨루는구나.”

저팔계가 기세를 올리며 요괴와 싸우자, 요괴는 소요들에게 명령하여 저팔계를 한꺼번에 에워싸게 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둔다.

한편, 손오공은 당승의 뒤에서 갑자기 픽 하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 왜 그렇게 비웃으시는 겁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팔계는 정말 바보라니까. 마을에서 승려에게 공양한다는 말만 듣고는 내 뺨에 빠져 덜컥 따라가 버렸잖아. 그런데 이만한 시각이 됐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군. 만약 저팔계가 갈퀴를 한바탕 휘둘러 요괴를 물리쳤다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제 공을 떠벌릴 테고, 만약 싸움에 밀려 요괴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내 체면만 구기는 꼴이지. 그러면 녀석이 앞에서 뒤에서 나를 ‘필마온(弭馬溫)’이라고 얼마나 욕해댈지 모른다. 사오정,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올 테니.”

손오공은 스승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뒷머리에서 털 한 올을 뽑아 입으로 후 불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뽑은 털이 손오공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사오정과 함께 스승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진짜 손오공은 본체를 공중에 띄워놓고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저팔계가 요괴들에게 둘러싸여 갈퀴를 휘두르며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으나 점차 버티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다못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며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팔계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 몸이 왔다!" 저팔계는 손오공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운이 펄펄 나는지, 더욱 기세를 올리며 갈퀴를 휘둘러 앞을 향해 마구 내리쳤다. 요괴는 그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당황하며 말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던 스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납게 구는 거야?"

저팔계가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집 식구들이 오셨다!" 그러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돌진했다. 요괴는 저팔계의 기세에 놀려 결국 부하 요괴들을 이끌고 패하여 달아나 버렸다. 손오공은 요괴가 도망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굳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채, 구름을 돌려 원래 자리로 돌아가 몸에 붙어 있던 털을 흔들어 다시 거두어들였다. 스승님은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 그神通력을 도저히 알아챌 리 없었다.

잠시 후, 저팔계가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왔다. 콧물과 침을 줄줄 흘리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까지 잔뜩 낀 채 엉망진창인 모습이었다. 저팔계는 씩씩거리며 다가와 "스승님!" 하고 불렀다.

삼장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팔계야, 말 먹이를 구하러 간다더니 어찌 이리 몰골이 말이 아니냐? 산속 마을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서 풀을 베지 못하게 한 것이냐?"

저팔계는 갈퀴를 내려놓으며 가슴을 탕탕 치고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스승님, 제발 묻지 마세요. 말하기 시작하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니까요."

"무엇이 그리 창피하단 말이냐?" 삼장이 다시 물었다.

"손오공 형님이 저를 골탕 먹였습니다! 아까 형님이 안개 속에는 요괴가 없으니 흉한 징조가 아니라고, 그저 마을 사람들이 선량해서 승려들에게 대접하려고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을 찌고 있을 뿐이라고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배가 고프니 말 먹이를 베는 척하면서 슬쩍 가서 음식 좀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세상에, 요괴들이 나타나 저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힘들게 싸웠는데, 만약 손오공 형님의 여의봉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그물 같은 포위망을 뚫고 돌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곁에 있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도둑질을 하려다 들켰으니 죄수 탕을 하는 게 아니냐? 나는 여기서 스승님을 지키고 있었지, 한시도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삼장이 거들었다. "그렇구나, 손오공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지."

그러자 저팔계가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스승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놈에게는 분신이 있다니까요!"

삼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손오공아, 정말로 기이한 일이 있었느냐?"

손오공은 속임수가 통하지 않자 몸을 굽히며 웃으며 말했다. "저 소요 놈 하나가 있는데,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겠구나. 팔계야, 이리 좀 와 봐라. 내가 너를 특별히 챙겨주마. 우리가 스승님을 모시고 이 험한 산길을 지나는 것은 마치 군대가 행군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저팔계가 물었다. "행군하는 게 어때서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네가 길을 여는 선봉장이 되어 앞장서서 길을 뚫는 거지. 요괴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나타나면 네가 놈과 맞붙어 요괴를 때려눕히는 거야. 그럼 그게 다 네 공로가 되는 거지."

저팔계는 요괴의 실력이 자신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말했다. "그냥 저놈 손에 죽고 말지, 전 먼저 갈래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어찌 시작부터 재수 없는 소리를 해서 앞길을 막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귀한 손님이 잔치에 오면 취하기도 전에 배가 부르다고 하고, 용맹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죽거나 다치고 돌아온다고들 하잖아요. 미리 나쁜 말을 해두어야 나중에 일이 잘 풀리고 위풍당당해지는 법이라고요."

손오공은 그 말이 옳다며 즐거워했다. 손오공은 서둘러 말에 안장을 얹어 스승님을 태워 모셨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진 채 저팔계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한편, 요괴는 패배하여 도망쳐 온 소요들을 거느리고 본래 살던 동굴로 돌아왔다. 그는 바위 절벽 위에 높이 앉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었다. 동굴 안에는 집을 지키던 소요들이 여럿 있었는데, 모두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대왕님, 평소에는 나가실 때마다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시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 근심에 잠겨 계십니까?"

요괴가 말했다.

"애들아, 내가 평소에 동굴 밖으로 나가 산을 순찰할 때는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몇 놈씩 잡아와 너희를 먹여 살려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은 운이 나빠서 아주 까다로운 적을 만났다."

소요가 물었다.

"그 적이 대체 누구입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어떤 스님인데,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가는 당승의 제자이자 이름은 저팔계라는 놈이다. 그놈이 휘두른 쇠갈퀴에 얻어맞아 진영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나는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승은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나한이라 그 고

기 한 점만 먹어도 수명이 늘어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그놈이 내 산에 나타났으니, 마침 잘됐다. 그놈을 잡아다가 찌 먹으면 딱 좋겠는데, 설마 그놈 수하에 이런 제자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소요 하나가 요괴 무리 사이에서 튀어나오더니, 요괴를 향해 울먹이며 세 번 울고는 다시 히히덕거리며 세 번을 웃었다. 요괴가 호통을 쳤다. "울었다 웃었다, 대체 왜 그러느냐?" 소요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께서 방금 당승을 잡아먹겠다고 하셨는데, 당승의 고기는 먹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요괴가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고기 한 점만 먹어도 늙지 않고 하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데, 어찌 먹을 만하지 않다는 말이나?" 소요가 대답했다. "정말 먹을 만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른 곳의 요괴들이 벌써 다 잡아먹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에게는 제자가 셋이나 있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그 세 명을 아느냐?" 소요가 말했다. "큰 제자는 손오공이고, 셋째 제자는 사오정이며, 이놈은 둘째 제자인 저팔계입니다." 요괴가 다시 물었다. "사오정이 저팔계보다 나으냐?" 소요가 대답했다. "그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손오공은 저팔계보다 어떠하냐?" 소요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감히 말로 다 못 합니다. 그 손오공은神通력이 광대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오백 년 전에 천궁에서 크게 난동을 부렸을 때, 위로 이십팔수(二十八宿)와 구요성관(九曜星官), 십이원진(十二元辰), 오경사상(五卿四相), 동서의 별들과 남북의 두 신, 오악사독(五嶽四瀆), 그리고 온 하늘의 신장들조차 그를 어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어찌 감히 당승을 잡아먹으려 하십니까?" 요괴가 물었다. "네가 어찌 그토록 자세히 알고 있느냐?" 소요

가 말했다. “예전에 제가 사타령(獅駝嶺) 사타동(獅駝洞)에서 그 대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그 대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당승을 잡아먹으려 하다가, 손오공이 금고봉(金箍棒)을 휘둘러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불쌍하게도 그 신세가 골패(骨牌) 패 이름인 ‘단요절륙(斷么絶六)’에 딱 들어맞을 만큼 처참하게 박살이 났지요. 다행히 제가 눈치가 빨라 뒷문으로 도망쳐 이곳으로 왔고, 대왕님의 보살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수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괴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급변했다. 이것이 바로 ‘장군이 불길한 예언(讖語)을 듣고 겁을 먹는다’는 격이었다. 자기 부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요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대왕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흔히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승을 잡아먹고 싶으시다면, 제가 계책을 하나 세워 잡아 오겠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네게 무슨 계책이 있느냐?"

"제게 '분반매화계(세 갈래로 나누어 매화를 피우는 계책)'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괴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분반매화계'라는 말이나?"

소요가 대답했다.

"우선 동굴 입구에 있는 크고 작은 요괴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천명 중 백 명을 뽑고, 그 백 명 중 다시 열 명을 뽑아, 최종적으로 실력 있는 자 셋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 세 놈은 모두 대왕님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하여, 대왕님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며 대왕님의 철퇴를 들게 한 뒤 세 곳에 매복시킵니다. 먼저 한 놈이 저팔계와 싸우게 하고, 그다음 한 놈이 손오공과 싸우게 하며, 마지막 한 놈이 사오정과 싸우게 하여 세 형제를 서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사이 대왕님께서 공중에서 구름을 잡는 손길로 당승을 낚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혹은 물그릇 속의 파리를 손가락으로 잡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요괴는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그 계책 참으로 절묘하구나, 절묘해! 이번에 가서 당승을 잡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잡아 온다면 결코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전방 선봉장으로 봉해주겠다."

소요는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한 뒤 요괴들을 불러 모았다. 곧 동굴 안의 크고 작은 요괴들을 점검하여, 과연 실력 있는 소요 셋을 골라냈다. 세 놈은 모두 요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각자 철퇴를 든 채 당승을 잡기 위해 매복하며 기다렸다.

한편,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당승은 저팔계와 함께 큰길을 따라 길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는데 길가 풀숲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소요 하나가 튀어나와 앞을 향해 달려들며 당승을 잡으려 했다.

이를 본 손오공이 외쳤다. “팔계야, 요괴가 나타났다! 왜 가만히 있어, 어서 손을 쓰지 않고!”

눈치 없는 저팔계는 요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쇠갈퀴를 휘두르며 요괴를 향해 달려가 마구 휘둘렀다. 요괴 역시 쇠몽둥이를 치켜들고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이 산비탈 아래에서 한참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였다. 다시 풀숲에서 소리가 나더니 또 다른 괴물이 튀어나와 당승에게 달려들었다.

손오공이 다급히 말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팔계 녀석이 눈이 어두워 요괴가 스승님을 잡으러 오는 것도 못 보고 있군요. 제가 가서 놈을 때려눕히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재빨리 여의봉을 쥐고 앞으로 달려 나가며 호통을 쳤다. “어딜 감히! 내 몽둥이를 받아라!”

요괴는 대꾸도 없이 쇠몽둥이를 들어 손오공을 맞받았다. 두 사람이 산비탈 아래에서 부딪치며 격렬하게 맞붙고 있을 때, 이번에는 산 너머에서 휘이익 하고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요괴가 튀어나와 곧장 당승을 향해 돌진했다.

그 광경을 본 사오정이 깜짝 놀라 외쳤다. “스승님, 큰일입니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눈이 멀어 요괴가 스승님을 잡으러 오는 것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스승님은 말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제가 가서 저놈을 잡아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사오정 역시 좋고 나쁨을 가릴 겨를도 없이 곧장 항요장(降妖杖)을 뽑아 들고, 마주 달려드는 요괴의 쇠몽둥이를 막아 이를 악물고 맞섰다. 고래고래 소리치며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점점 더 멀리 밀려나고 말았다.

그사이 늙은 요괴는 공중에서 당승이 말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다섯 갈래 강철 갈고리 같은 발톱을 아래로 뻗어 당승을 덥석 낚아챘다. 당승은 말을 버리고 등자에서도 벗어난 채, 요괴가 일으킨 한바탕 바람에 휩쓸려 순식간에 채여 가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가련하도다!

시로 이르되, 선성(禪性)이 마(魔)를 만나 정과(正果) 이루기 어렵고, 강류(江流, 삼장의 아명)가 또다시 괴로운 재앙벌을 만났구나.

요괴는 바람과 안개를 가라앉힌 뒤, 당승을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외쳤다. “선봉!”

계책을 냈던 소요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감히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대장군이 한 번 내뱉은 말은 흰 천에 검은 물을 들이는 것처럼 확실한 법이다. 그때 당승을 잡지 못하

겠다면 차라리 관두라고 했겠지만, 일단 잡고 나면 너를 전방의 선봉으로 봉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네가 정말로 기막힌 계책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찌 약속을 어기겠느냐? 어서 당승을 가져오너라. 나머지 녀석들에게는 물을 길어와 술을 닦게 하고, 땀감을 날라 불을 지피게 하여 당승을 한 번 찌내라고 해라. 나와 너, 그리고 모두가 그 고기 한 점씩을 나누어 먹으며 수명을 늘리고 장생을 도모해 보자꾸나.”

선봉이 말했다. “대왕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요괴가 되물었다. “이미 잡아 왔는데 어찌 먹지 못하겠느냐?”

선봉이 대답했다. “대왕님께서 드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팔계나 사오정도 그 정도는 감수하겠지요. 하지만 손오공 그놈이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놈은 우리와 싸우러 오는 대신 금고봉을 산허리에 쑥 박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 구멍이 뚫리고 산 전체가 무너져 내려, 우리 같은 녀석들이 머물 곳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요괴가 말했다. “선봉, 그럼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선봉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당승을 후원으로 보내 나무에 묶어 두고, 이삼 일 동안은 음식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 안이 깨끗해질 것이고, 또 그 세 사람이 문 앞까지 찾아오지 않고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릴 때쯤에야 비로소 당승을 꺼내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괴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옳거니, 옳거니! 선봉의 말이 아주 일리가 있구나.”

요괴가 명령을 내리자, 요괴들은 당승을 후원으로 끌고 가 나무에 밧줄로 꼬박 묶어 두었고, 나머지 소요들은 모두 앞쪽으로 물러나 대기했다.

삼장은 밧줄에 꼬박 묶인 채 고초를 겪으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제자들아! 산속에서 요괴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길 위에서 괴물을 쫓고 있느냐? 내가 요괴에게 잡혀와 이곳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대체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이나! 아, 정말 죽고 싶구나!”

삼장이 눈물로 가득 차 있을 때, 맞은편 나무 위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스님도 여기 잡혀 오셨습니까?” 삼장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이 산의 나무꾼입니다. 이틀 전에 산주인에게 잡혀와 이곳에 묶여 있는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조만간 저들에게 잡아먹힐 모양입니다.” 삼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나무꾼 양반, 당신은 죽어도 몸 하나뿐이니 미련이 없겠지만, 나는 죽어도 깨끗이 죽지 못할 것 같소.” 나무꾼이 말했다. “스님, 스님은 출가하신 분이니 위로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아래로는 처자식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무엇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나는 본래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소. 당나라 태종 황제 폐하의 어명을 받들어 살아있는 부처를 뵙고 진경을 구해, 저 저승의 주인 없는 외로운 영혼들을 구제하려 했던 말ियो. 만약 여기서 목숨을 잃는

다면, 임금님을 저버리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소? 또한 저 망자의 성에 있는 수많은 원혼이 구제받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들이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못한 채 그 모든 공덕이 한낱 먼지처럼 사라지게 된다면, 내 죽음이 어찌 깨끗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나무꾼도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스님, 스님도 죽으면 그뿐이지만, 제가 죽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재산도 없이 오직 나무를 해다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왔지요. 노모께서는 올해 여든세 살이 신데, 오직 저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누가 어머니의 시신을 물어드리고 노후를 돌보겠습니까? 아, 비참하도다, 비참해! 정말 죽고 싶구나!”

삼장은 그 말을 듣고 목놓아 울며 말했다. “가엾기도 해라, 참으로 가엾구나! 산사람은 아직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지, 빈껍데기뿐인 이 승려는 경전만 읽었구나.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나 모두 같은 이치거늘, 당신은 부모의 은혜를 위해 살고 나는 임금의 은혜를 위해 살았구려.”

시로 이르되, 눈물 어린 눈으로 눈물 흘리는 이를 바라보니, 애끓는 사람이 또 다른 애끓는 사람을 배웅하는구나.

한편, 당승이 처한 고초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이 풀숲 아래에서 소요들을 물리치고 급히 길가로 돌아왔으나, 스승은 간데없고 백마와 붓집만이 덩그러니 남

아 있었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말 고삐를 잡고 짐을 짊어진 채 산봉우리를 향해 스승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아아! 이것이 바로,

시로 이르되, 고난에 빠진 강류(江流, 삼장의 아명)는 오로지 재난만 만나고, 마(魔)를 항복시키는 대성(大聖)도 또한 마를 만나는구나.

결국 스승의 행방을 어떻게 찾게 될지,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6회 — 목모가 위력을 도와 괴물을 정벌하고, 금공이 법술을 펼쳐 요사를 멸 하다

木母助威征怪物 金公施法滅妖邪

손대성이 선을 권하고 단비를 베풀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은 말을 끌고 짐을 멘 채 산 전체를 누비며 스승을 찾아 소리 높여 불렀다. 그때 갑자기 저팔계가 씩씩거리며 달려오더니 물었다.

"형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이 사라지셨다. 혹시 보았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 당승을 따라 수행하는 스님일 뿐인데, 형님은 또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장군님이라 부르며 부러먹으려 드시네요. 나는 목숨을 걸고 요괴와 한바탕 싸우고 겨우 살아 돌아온 참이라고요. 스승님은 형님이랑 사오정이 지키고 계셨으면서, 왜 나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아,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네가 눈이 흐릿해지는 바람에 요괴를 놓아주어 스승님을 잡아 가게 만든 것 아니냐. 내가 요괴를 치러 간 사이 사오정에게 스승님을 지키라고 일러두었는데, 이제는 사오정마저 보이지 않는구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분명 사오정이 스승님을 모시고 뒷간에 가신 걸 거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오정이 나타났다. 손오공이 급히 물었다.

"사오정아, 스승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두 분 다 눈이 침침해지셨군요. 요괴를 놓아주는 바람에 스승님을 잡아 가게 만들다니요. 제가 요괴를 치러 간 사이에 스승님은 말 위에 그대로 앉아 계셨단 말입니다."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펄쩍 뛰며 외쳤다.

"요괴의 계략에 빠졌구나,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사오정이 물었다.

"무슨 계략에 빠졌다는 말씀이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것은 '분반매화계'라는 계책이다. 우리 형제들을 서로 떼어놓고 그 틈을 타서 스승님을 낚아챈 것이야. 아아,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이냐!"

손오공은 건잡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저팔계가 달래듯 말했다.

"울지 마세요, 자꾸 울면 눈이 통통 부어요. 어차피 멀리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분명 이 산 어딘가에 있을 테니,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세 사람은 달리 방도가 없어 산속을 헤매며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십 리쯤 들어갔을까, 절벽 아래에 동굴 하나가 나타났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동굴을 감싸 안고 괴석들은 높고 험준하게 솟아 있었다. 기이한 꽃과 신령한 풀에서는 향기가 그윽하고, 붉은 살구와 푸른 복숭아꽃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절벽 앞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고목들이 비를 머금은 채 마흔 아름이나 될 만큼 굽게 자라 있었고, 문 앞의 푸른 소나무는 검푸른 빛을 띠며 하늘 높이 이천 척이나 솟아 있었다. 들학들은 짝을 지어 동굴 입구에서 청풍을 맞으며 춤을 추고, 산새들은 짝을 지어 나뭇가지 위에서 대낮 내내 지저귀었다. 누런 덩굴은 밧줄처럼 뭉쳐 늘어져 있고, 안개 낀 버드나무는 금실처럼 드리

워져 있었다. 네모난 못에는 물이 고여 있고, 산을 등진 깊은 구멍이 있었다. 고인 물 속에는 아직 변하지 못한 교룡이 잠겨 있고, 산을 등진 깊은 구멍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과연 선이 사는 곳에 못지않게 바람을 갈무리하고 기운을 모으는 요괴의 소굴이었다.

손오공이 이를 보고 두세 걸음 만에 문 앞으로 뛰어갔다. 석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위에는 커다란 돌판 하나가 가로로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은무산 절악 연환동'이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팔계야, 어서 움직여라! 이곳은 요괴가 사는 곳이니 스승님도 분명 이곳에 계실 것이다." 그러자 저팔계가 기세등등하게 흥기를 휘두르며, 쇠 갈퀴를 온 힘을 다해 내질러 돌문을 커다란 구멍이 나도록 부숴버리고는 외쳤다. "요괴 놈들아, 어서 우리 스승님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이 갈퀴로 문을 다 무너뜨려 너희 식구 전부를 몰살시켜 버리겠다!"

문을 지키던 소요가 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이 났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무슨 큰일이냐?" "문 앞에 어떤 놈이 나타나 문을 부수고는, 스승님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대체 어떤 놈이 찾아온 것이냐?" 그러자 선봉이 나섰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봉은 앞문으로 달려가 부서진 구멍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그러더니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귀가 커다란 놈이 있는 것을 보고는 뒤돌아 소리쳤다. "대왕님, 저놈은 겁낼 것 없습니다! 저놈은 저팔

계라는 놈인데,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겁니다. 만약 저놈이 행패를 부리며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면, 당장 붙잡아 찰통에 넣고 삶아버리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저 털 많고 천둥 같은 입을 가진 중놈입니다!”

밖에서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저놈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형님을 무서워하는 거라네. 스승님은 분명 저놈네 집에 잡혀 있을 테니, 어서 앞으로 나가보게!”

손오공이 욕설을 퍼부으며 외쳤다. “이 못된 놈들아! 네놈들의 손오공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어서 스승님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선봉이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손오공까지 찾아왔습니다!” 요괴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꾸짖었다. “네놈이 그놈의 ‘분반매화계’인지 뭔지를 꾸며내더니, 결국 이런 화를 불러들이는구나! 이제 어찌할 셈이냐?” 선봉이 대답했다. “대왕님, 안심하십시오. 일단 원망은 그만두시고요. 제가 알기로 손오공은 도량이 넓고 너그러운 원숭이 놈이라, 비록神通력이 대단하긴 해도 아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가짜 머리 하나를 만들어 나가서 저놈을 적당히 속이고 몇 마디 아침을 떨며 스승을 우리가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만약 속아 넘어가면 당삼장을 계속 데리고 놀면 되고, 속지 않으면 그때 다시 대처하면 됩니다.” 요괴가 물었다. “그 가짜 머리는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선봉이 말했다. “제가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요괴가 아주 흉악한 계책을 꾸몄다. 강철로 만든 도끼와 칼을 가져다가 버드나무 뿌리를 사람 머리 모양으로 깎더니, 그 위에 사람 피를 뿌려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작은 요괴 하나에게 그 머리를 들게 하여 동굴 문 앞으로 보내며 외치게 했다.

"대성 할아버지, 노여움을 거두시고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손오공은 아침에 약한 편이라, "대성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팔계를 말했다.

"잠깐, 손대지 말고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보자."

쟁반을 든 작은 요괴가 말했다.

"당신 스승님은 우리 대왕님께 붙잡혀 동굴로 끌려가셨소. 동굴 안의 작은 요괴들이 워낙 무식하고 막된 놈들이라, 누구는 삼키고 누구는 뜯어먹으며 붙잡고 깨물어대다가, 결국 스승님을 다 먹어치우고 머리 하나만 여기 남겨두었소."

손오공이 말했다.

"이미 먹어치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 머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해야겠다."

그러자 작은 요괴가 동굴 구멍 밖으로 그 머리를 획 던졌다. 저팔계는 그것을 보자마자 통곡하며 소리쳤다.

"아이고, 가엾어라! 스승님이 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저런 모습이 되어 나오다니!"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멍청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하고 옮기부터 하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 머리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어디 있단 말이오?"

손오공이 말했다.

"저건 가짜 머리다."

저팔계가 물었다.

"가짜인 걸 어떻게 아시오?"

손오공이 설명했다.

"진짜 사람 머리를 던지면 아무 소리 없이 툭 떨어지지만, 가짜 머리는 던지면 딱딱한 나무토막 같은 소리가 난다. 못 믿겠으면 내가 한번 던져볼 테니 들어봐라."

손오공이 머리를 집어 들어 바위 위로 내던지자, '깡!' 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오정이 말했다.

"형님, 소리가 났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소리가 났으니 가짜가 맞다. 이제 본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마!"

손오공이 재빨리 여의봉을 빼 들어 그 머리를 단번에 내리쳐 깨뜨려 버렸다. 저팔계가 살펴보니, 그것은 정말 버드나무 뿌리였다. 저팔계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털몽치 같은 놈들아! 우리 스승님을 동굴에 숨겨두고 감히 버드나무 뿌리로 이 저팔계 조상을 속이려 들다니! 우리 스승님이 버드나무 요괴로 변한 줄 아느냐!"

쟁반을 들고 있던 소요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달려가 보고했다. "어렵... 어렵습니다, 대왕님! 정말 어렵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무엇이 그리 어렵다는 말이냐?"

소요가 대답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적당히 속여 넘겼는데, 손오공은 물건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해서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금 진짜 사람 머리를 가져다주면, 어쩌면 그가 순순히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요괴가 말했다. "진짜 머리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우리 박피정(가죽을 벗기는 정자)에 먹다 남은 머리들이 많으니, 그중 하나를 골라 오너라."

요괴의 명령에 작은 요괴들이 즉시 정자로 달려가 싱싱한 머리 하나를 골라왔다. 그들은 머리의 껍질을 깨끗이 벗겨내어 매끈하게 만든 뒤, 다시 쟁반을 들고 나와 외쳤다. "대성 할아버님! 아까는 정말로 가짜 머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당 어르신 머리입니다. 우리 대왕님께서 집을 지키려고 보관해 두셨던 것인데, 이제 특별히 바칩니다!"

그러고는 툭 하고 사람 머리를 동굴 밖으로 던져버렸다. 머리는 피를 뚝뚝 흘리며 바닥을 굴렀다.

손오공은 그것이 진짜 사람의 머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어찌할 도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함께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저팔계가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형님, 너무 울지 마세요. 날씨가 좋지 않아 금방 냄새가 날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제가 저걸 가져가서 생기가 남아 있을 때 얼른 물어드린 다음에 다시 울자고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우직한 저팔계는 더러운 것도 개의치 않고 머리를 품에 안은 채 산비탈 양지바른 곳으로 달려갔다. 바람을 피하고 기운이 모이는 명당을 찾아낸 그는 갈퀴를 가져와 구덩이를 파고 머리를 묻은 뒤, 그 위에 작은 무덤을 쌓았다. 그러고는 사오정을 불러 말했다.

"너는 형님과 함께 울고 있거라. 나는 가서 스승님께 올릴 제물을 좀 찾아오마."

그러고는 저팔계가 시냇가로 가서 커다란 버드나무 가지 몇 개를 꺾고 조약돌 몇 개를 주워 왔다. 무덤 앞으로 돌아온 그는 버드나무 가지를 무덤 좌우에 꽂고, 조약돌을 무덤 앞에 쌓아 놓았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게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이 버드나무 가지는 소나무와 측백나무라 여기고 스승님의 무덤 위를 덮어드리는 것이고, 이 돌맹이들은 간식이라 여기고 스승님께 공양해 드리는 것이지요."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어리석은 놈아!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돌맹이를 공양한다니!"

저팔계가 말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니, 효심이라 여겨주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만해라. 사오정은 여기 남아서 무덤을 지키고, 짐과 말도 잘 살펴라. 나와 함께 가서 저놈들의 동굴을 부수고 요괴를 붙잡아 사지를 찢어버림으로써 스승님의 원수를 갚자꾸나."

사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두 분은 힘을 내십시오. 저는 여기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좋아, 팔계야!"

저팔계는 즉시 검은 비단 도포를 벗어 던지고 몸에 딱 붙는 속옷을 질끈 동여맨 뒤, 갈퀴를 들고 손오공을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앞뒤 가릴 것 없이 힘차게 달려가 석문을 단숨에 부수어 버렸다. 그러고는 하늘이 울릴 듯한 기세로 외쳤다.

"우리 당승을 당장 돌려보내라!"

동굴 안에 있던 크고 작은 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냇이 나갔고, 너나 할 것 없이 선봉의 잘못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다. 요괴 우두머리인 남산대왕이 선봉에게 물었다.

"저 승려놈들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왔으니, 이제 어찌 처단하겠느냐?"

그러자 선봉이 대답했다.

"옛말에 '물고기 바구니에 손을 넣으면 비린내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요. 좌우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저 승려 놈들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남산대왕은 그 말을 듣고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정말로 명령을 내려 외쳤다.

"애들아!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정예 병사들은 무기를 챙겨 나를 따르라!"

요괴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동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급히 몇 걸음 물러나 산의 평탄한 곳에 자리를 잡고 요괴 떼를 막아선 채 외쳤다. "어떤 놈이 대장 노릇을 하는 놈이냐? 내 스승님을 잡아간 요괴가 누구냐!"

요괴 무리는 진을 치고 화려한 깃발을 휘날렸다. 그때 요괴가 쇠절곳공이를 들고 나타나 큰 소리로 응수했다. "이 무례한 중놈아, 나를 몰라보느냐? 나는 이곳에서 수백 년간 멋대로 날뛰어 온 남산대왕이다! 네 스승 당승은 이미 내 배 속에 들어갔으니, 네가 감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이 겁 없는 털뭉치 놈아! 네놈이 대체 몇 살이나 먹었다고 감히 '남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 태상노군은 천지를 여신 조상으로서 태청의 오른편에 계시고, 부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분으로서 대불 아래 계시며, 공자 성인 또한 유교의 존경받는 분으로서 '부자'라 불릴 뿐이다. 그런데 너 같은 짐승

놈이 어디서 감히 '남산대왕'이니 뭐니 하며 수백 년을 멋대로 살았다고 떠드느냐? 거기 서라, 이놈아! 네 할아버지 몽둥이 맛을 보여주마!"

요괴는 몸을 옆으로 비켜 쇠절굿공이로 철봉을 막아내더니,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네놈 면상을 보니 딱 원숭이 놈이로구나.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나를 깎아내리느냐? 네놈이 무슨 수단이 있기에 내 구역에서 이토록 날뛰는 것이냐?"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이름도 없는 죄 많은 놈아! 감히 이 몸을 몰라보다니! 거기 딱 서서 겁 없이 내 말을 들어보아라.

시로 이르되,

동승신주에 태어나 천지간의 만 년 세월을 품었도다. 화과산 신령한 돌알에서 깨어나 나의 근원이 되었네. 태어날 때부터 범인과는 다르니, 성스러운 몸은 해와 달과 함께하네. 본성을 스스로 닦아낸 공력은 작지 않고, 타고난 재능은 영특하여 대단하도다. 대성이라는 관직을 받아 구름 궁에 머물며, 기세를 빌려 하늘의 별들과 싸웠네. 십만 신병도 내게 가까이 못 오고, 하늘의 별들도 내 손안에 있도다. 이름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지혜는 천지에 가득하구나. 이제 다행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 장로를 도와 서쪽으로 여행하노니, 산을 넘고 길을 열어도 막힘이 없으나, 물을 만나 다리를 놓으려니 요괴가 괴롭히는구나. 숲속에서는 위엄을 떨쳐 호랑이와 표범을 잡고, 절벽 앞에서는 피휴를 손쉽게 잡네. 동방에서 정과를 이루어 서역으로 가는데, 어떤 요괴가 감히 앞을 가로막느냐? 스승을 해친 죄가 참으로 가증스러우니, 오늘 반드시 네놈의 목숨을 끊으리라."

요괴는 이 말을 듣고 놀라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를 악물고 손오공에게 달려들며 쇠절굿공이를 휘둘렀다. 손오공은 가볍게 철봉으로 이를 막아내며 다시 말을 걸려 했으나, 참지 못한 저팔계가 먼저 나서서 쇠갈퀴로 요괴의 부하인 선봉을 마구 공격했다. 그러자 선봉이 부하들을 이끌고 물러왔다. 산속 평지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시로 이르되,

동토의 큰 나라에서 온 고승은, 서방 극락의 진경을 구하려 하네. 남산의 큰 표범은 안개와 바람을 일으켜, 깊은 산속 길을 막으며 재주를 부리네. 교묘한 계책과 영악한 꾀를 부려, 아무것도 모르는 당승을 잡아 가두었네. 마침 손오공의 신통력을 만났고, 저팔계의 명성 높은 힘을 마주했구나. 요괴 무리가 산 평지에서 뒤엉켜 싸우니, 흙먼지가 날려 하늘이 흐릿하도다. 진영의 작은 요괴들은 괴성을 지르며 창과 칼을 휘두르고, 신성한 승려들은 호통을 치며 갈퀴와 몽둥이를 휘두르네. 대성 손오공은 천하에 적수가 없고, 저팔계는 건장하여 싸움을 즐기네. 남산의 요괴와 그 부하 선봉은, 당승을 한 점의 고기처럼 여기며, 죽음을 두려워 않고 삶을 잊은 채 달려드네. 두 제자는 스승의 목숨 때문에 원수가 되었고, 요괴들은 당승을 탐내는 욕심 때문에 싸우네. 서로 치고받으며 싸움이 끊이지 않으니, 부딪히고 격돌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도다.

손오공은 소요들이 용맹하게 맞서며 물러나지 않자, 분신술을 써서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씹은 뒤 밖으로 뱉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들이 모두 손오공의 본모습으로 변하더니, 저마다

여의봉을 휘두르며 앞을 향해 동굴 안으로 거침없이 들이닥쳤다. 백여 명의 소요들은 앞을 막자 뒤가 비고,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이 뚫리는 바람에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이 제각기 목숨을 구하려 도망치며 동굴 안으로 패주했다. 손오공과 저팔계가 진법을 헤치며 안으로 들이치자, 영리하지 못한 요괴들은 쇠갈퀴로 막아보려 했으나 구멍 난 몸에서 피가 솟구쳤고, 봉을 휘두를 때마다 뼈와 살이 진흙처럼 으깨졌다. 결국 남산대왕은 바람과 안개를 일으키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선봉은 변신술을 쓰지 못하다가 일찌감치 손오공의 봉에 맞아 쓰러졌는데, 본 모습을 드러내 보니 바로 철배창랑괴, 즉 등 가죽이 철처럼 단단한 늑대 요괴였다.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서 놈의 다리를 붙잡아 뒤집어 보더니 말했다. "이놈을 보니 어릴 때부터 남의 돼지 이빨이며 새끼 양을 얼마나 훔쳐 먹었는지 알겠구먼!" 손오공이 몸을 한 번 흔들어 털을 모두 거두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꾸물거릴 때가 아니다. 어서 요괴를 쫓아 스승님을 구하러 가자!" 저팔계가 뒤를 돌아보자 소요들이 보이지 않자 말했다. "형님, 분신들이 다 사라졌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다 거두어들였다." 저팔계가 감탄하며 말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두 사람은 기뻐하며 승전보를 올리듯 돌아갔다.

한편, 목숨을 건진 요괴는 동굴로 도망쳐 돌아가더니, 소요들에게 명하여 돌을 옮기고 흙을 날라 앞문을 막아버리라고 지시했다. 목숨을 구한 소요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며 문을 퐁퐁 막아버렸고, 다시는 밖으로 고개를 내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손오공이 저팔계를 데리고 문 앞까지 쫓아가 소리를 질러 보았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저팔계가 갈퀴로 문을 부수려 힘껏 내리쳤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

오공은 상황을 알아채고 말했다. "팔계야, 힘 빼지 마라. 저놈들이 이미 문을 막아버렸구나." 저팔계가 울먹이며 말했다. "문을 막아버리면 스승님께 당한 원수는 어떻게 갚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일단 무덤 앞으로 돌아가서 사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보자꾸나."

두 사람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니, 사오정이 여전히 울고 있었다. 저팔계는 슬픔이 더욱 북받쳐 올라 갈퀴를 내팽개치고는 무덤 위에 엎드려 흠을 움켜쥐며 통곡했다.

"불쌍한 스승님! 멀리 떠나신 스승님! 이제 스승님을 어디서 다시 뵈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요괴가 앞문을 막아두었다면 분명 뒤로 드나드는 뒷문이 있을 것이다.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다시 가서 찾아보마."

저팔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마저 잡혀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붙잡고 올겠습니까. 스승님을 부르다가도 형님 이름이 나오고, 형님을 부르다가도 스승님 이름이 나와서 정신없이 울게 될 겁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라, 나에게는 다 방법이 있다."

장한 손대성! 그는 봉을 거두고 (전투용) 치마를 여민 뒤, 발걸음을 옮겨 산비탈을 돌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줄줄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계곡물이 위에서 아래로 세차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다시 보니 계곡 저편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 왼쪽에는 물이 흘러나오는 작은 수로가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말할 것도 없군! 저기가 뒷문이야. 만약 본모습으로 가면 소요들이 문을 열어보고 나를 알아챌지도 몰라. 차라리 물뱀으로 변해서 지나가야겠다. 잠깐, 물뱀으로 변했다가는 스승님의 영혼이 보고는 출가한 몸이 어찌 뱀이 되어 파리를 트느냐며 꾸짖으시겠지. 그럼 작은 계로 변해볼까? 그것도 별로군, 스승님이 출가한 사람이 다리가 너무 많다고 나무라실 테니까."

결국 손오공은 물쥐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썩 하고 소리를 내며 물을 가로질러 수로 속으로 파고들어 안쪽 뜰까지 들어갔다.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니, 햇빛이 드는 곳에서 한 소요가 사람 고기 조각을 가져다 놓고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말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생각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건 스승님의 살점이 아니겠지? 스승님 살점은 차마 못 먹으니 말려서 보관하려는 모양이구나. 당장 본모습을 드러내서 달려가 몽둥이로 단번에 때려죽여 버릴까? 그랬다간 용기만 있고 지략은 없다고 욕먹겠지. 일단 다시 변신해서 안으로 들어가 저 요괴 놈이 어떤 놈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수로에서 튀어나와 몸을 흔들더니, 날개가 달린 개미로 변신했다. 정말로 이리했다.

"힘은 미약하고 몸집은 작은 검은 개미라, 오랜 수련 끝에 날개까지 얻었구나. 한가로이 다리 가에 진을 치고 앉아, 기쁘게 침상 밑에서 신선들의 기예를 겨루네.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구멍을 잘 막으며, 먼지가 쌓여 흙이 되는 것도 잘 아는구나. 재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여서, 어느덧 문턱을 몇 번이고 가뿐히 넘네."

손오공은 날개를 펴고 소리도 그림자도 없이 중당 안으로 날아 들어갔다. 안을 보니 요괴가 번뇌에 싸인 채 앉아 있는데, 한 소요가 뒤에서 뛰어오며 보고했다.

"대왕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기쁜 소식이라니, 그게 무엇이냐?"

소요가 대답했다. "방금 뒷문 밖 계곡 쪽을 살피는데, 갑자기 누군가 크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봉우리에 올라가 살펴보니, 세상에, 저기서 저팔계와 손행자, 사오정이 무덤 앞에 절을 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 머리를 당승의 머리로 착각해서 묻어놓고는, 무덤을 만든 줄 알고 울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저놈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스승님은 아직 저곳에 살아 계시고, 아직 잡아먹히지 않았구나! 일단 다시 가서 스승님이 살아 계신지 죽으셨는지 확인한 뒤에 저놈들과 상대해야겠다.'

손오공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동서남북을 살피는데, 옆에 문 하나가 아주 짝 닫혀 있는 것이 보였다.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안을 들여

다보니 커다란 정원이 나타났고, 어디선가 슬피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손오공이 곧장 정원 깊숙한 곳으로 날아 들어가 보니,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 두 사람이 묶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당승이었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급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본모습을 드러내며 가까이 다가가 외쳤다.

"스승님!"

당승은 손오공을 알아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오공아, 네가 왔구나! 어서 나를 좀 구해다오. 오공아, 오공아!"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보는 눈이 있으니 요괴가 눈치채면 큰일 납니다. 스승님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제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요괴 놈이 스승님을 이미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짜 머리를 가져와 저를 속이려 하기에, 제가 놈과 한판 붙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제가 저 요괴 놈을 쓰러뜨리고 나서 곧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더니 다시 몸을 흔들어 개미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다시 대청 안으로 들어가 대들보 위에 가만히 매달렸다. 안을 보니 아직 죽지 않은 작은 요괴들이 떼를 지어 모여 시끌벅적하게 떠돌고 있었다. 그때 요괴 하나가 툭 튀어나오며 말했다.

"대왕님, 저놈들이 문이 막혀 공격할 엄두를 못 내니 아예 포기했습니다. 당승을 버려두고 가짜 인두를 가져다 무덤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울고, 내일 또 울고, 모래는 사흘을 더 울다가야 돌아갈 모양입니다. 저놈들이 흠어졌다는 소문도 들이니, 어서 당승을 끌어내어 잘게 썰고 다져서 양념을 듬뿍 넣고 달여 먹읍시다. 그러면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수명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요괴가 손뼉을 치며 거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찌서 먹는 게 훨씬 맛이 좋을 거예요."

또 다른 요괴가 말했다.

"삶아 먹으면 땀감도 아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요괴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 아주 귀한 물건이니 소금에 절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대들보 위에 매달려 이 소리를 듣던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속으로 외쳤다.

'내 스승님이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토록 잔인하게 잡아먹을 공리를 한단 말이냐!'

손오공은 즉시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잘게 씹은 뒤, 살며시 내뱉으며 주문을 외웠다. 그리고는 그 털들이 모두 줄음벌레로 변하게 하

여 요괴들의 얼굴을 향해 날려 보냈다. 벌레들이 요괴들의 코속으로 하나둘 파고들자, 작은 요괴들은 점차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이내 모두 쓰러져 잠들었다.

오직 그 늙은 요괴만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고 얼굴을 비비며 연신 재채기를 하고 코를 쥐어 짜며 버텼다. 손오공이 생각했다.

'혹시 저놈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저놈에게는 양쪽으로 두 개를 먹여줘야지.'

손오공은 털을 한 가닥 더 뽑아 먼지털이와 똑같은 본으로 만든 뒤, 요괴의 얼굴로 던져 코 안으로 파고들게 했다. 두 마리의 벌레가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늙은 요괴는 몸을 움찔하며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두어 번 하더니, 이내 쿵쿵 잠이 들고 말았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잽싸게 내려앉아 본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귀에서 여의봉을 꺼내 휘두르더니, 오리알 굵기만 한 봉을 휘둘러 '깡!' 소리와 함께 옆문을 박살 내고 뒷마당으로 달려가 외쳤다. "스승님!"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어서 와서 이 줄 좀 풀어다오. 몸이 너무 조여서 아프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요괴를 때려잡고 나서 바로 풀어드릴게요."

손오공은 몸을 돌려 중앙 홀로 달려가 막 몽둥이를 휘두르려다가, 다시 손을 멈추고 말했다. "아차, 스승님부터 풀어드리고 나서 싸워야 겠다."

그리고는 다시 마당으로 가더니 또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니지, 요 괴를 먼저 잡고 나서 구하러 와야지."

이런 식으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던 손오공은 그제야 덩실덩실 춤을 추듯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당승은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말했다. "원숭아, 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추며 날뛰는 것이냐?"

손오공은 곧장 다가가 줄을 풀어준 뒤, 스승의 팔을 붙들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맞은편 나무에 묶여 있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부디 자비를 베풀어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당승이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쳤다. "오공아, 저 사람도 좀 풀어주거라."

손오공이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나보다 하루 먼저 잡혀온 사람이라네. 나무꾼인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자신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니 저 사람도 함께 구해 주자꾸나."

손오공은 그 말대로 밧줄을 풀어준 뒤, 함께 뒷문으로 나가 가파른 바위 절벽을 타고 험한 골짜기를 건너왔다. 당승이 고맙다고 말했다.

“착한 제자야, 네 덕분에 저 사람과 내 목숨을 구했구나. 팔계와 사오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두 녀석은 저기서 스승님을 찾으며 울고 있어요.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당승이 힘차게 소리쳤다. “팔계야, 팔계야!” 녀이 나간 채 울고 있던 저팔계가 콧물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오정,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혼령이 되셨나 봐. 저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어?” 손오공이 다가가 꾸짖듯 외쳤다. “이 멍청아, 혼령이라니 무슨 소리냐? 스승님이 오셨지 않느냐!” 사오정이 고개를 들어 스승을 보고는 급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승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형님은 대체 어떻게 스승님을 구해온 것입니까?” 손오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분통을 참지 못했다. 그는 결국 갈퀴를 들어 그 무덤을 마구 허물어뜨리더니, 파헤쳐진 머리통을 꺼내 사정없이 짓이겨 버렸다.

당승이 보고는 말했다. “너는 왜 무덤을 허무는 것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 저분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더러 저분을 향해 올라니요!”

당승이 이어서 말했다. “그분이 내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아니냐. 네 형제들이 요괴의 소굴로 쳐들어갔을 때 나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것도, 아마 저분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려 한 것이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나를 죽였을 게다. 그러니 저분을 잘 물어드려라. 그것이 우리 수행자의 도리이다.”

어리숙한 저팔계는 스승의 말을 듣고는, 짓이겨진 뼈와 살을 한데 모아 땅에 묻어준 뒤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잠시 여기 앉아 계십시오. 제가 얼른 해치우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바위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개울을 건너 동굴로 들어갔다. 손오공은 당승과 나무꾼을 묶고 있던 밧줄을 찢겨 중당으로 들어갔다. 요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손오공은 그를 네 다리가 묶인 채 쓰러지게 한 뒤, 여의금고봉을 짚고 어깨에 짊어진 채 곧장 뒷문으로 나왔다.

저팔계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형님, 참 번거로운 일을 하시네요. 그냥 다른 놈 하나 골라서 머리에 이고 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손오공이 가까이 와서 짐을 내려놓자, 저팔계가 갈퀴를 들어 부수려 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잠깐 기다려 봐. 동굴 안에 아직 잡지 못한 작은 요괴들이 남아 있어."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요괴가 있으면 저도 데려가서 같이 때려눕힙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싸우면 힘만 들테니, 차라리 땀감을 좀 구해서 아예 뿌리까지 태워버리자."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저팔계를 데리고 동쪽 움푹한 곳으로 가서 부러진 대나무, 시든 잎사귀, 마른 버드나무, 끊어진 덩굴, 황해초, 늪은 갈대, 갈대, 마른 뽕나무 가지 등을 한 움큼 모아 뒷문으로 날라다 주었다. 손오공이 불을 붙이자 저팔계가 양귀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키웠다. 그때 손오공이 몸을 솟구쳐 한 번 몸을 흔드니, 품고 있던 줄음벌레의 털이 흩날렸다.

작은 요괴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연기와 불길의 가득했다. 가련하게도, 살아남은 놈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불길은 동굴 전체를 텅 비도록 태워버렸다. 그제야 손오공은 스승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요괴가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요괴가 깨어났다!"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서 갈퀴로 요괴를 내리치자, 요괴는 즉사하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알고 보니 표범 요괴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얼룩무늬를 가진 놈이 호랑이도 잡아먹더니, 이제 사람으로 변신까지 하다니. 이번에 아주 때려죽여 놓아야 후환이 없겠구나." 당승은 고마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에 올라탔다. 그러자 나무꾼이 말했다. "나으리, 남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들러 저희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목숨을 구해 주신 은혜에 절하며 가시는 길을 배웅하게 해 주십시오."

당승은 기쁜 마음으로 말을 타지 않은 채 나무꾼과 함께 일행을 이루어 남서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얼마 가지 않아 과연 다음과 같은 풍경이 나타났다.

돌길에는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고, 땀나무 문에는 넝쿨과 꽃이 어지럽게 얹혀 있다. 사방으로 산빛이 이어지고, 숲속에는 새들이 왁자지껄하게 지저귄다. 울창한 소나무와 대나무가 푸르름을 더하고, 온갖 기이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구름 깊은 외딴곳에 대나무 울타리를 친 초가집 한 채가 보인다.

멀리 보니 한 노파가 사립문에 기대어 눈물을 펄펄 흘리며 자식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다. 나무꾼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스승을 뒤로한 채 급히 사립문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외쳤다.

"어머니, 저 왔어요!"

노파는 나무꾼을 덥석 껴안으며 말했다.

"아들아,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기에 산주인이 너를 잡아먹어 목숨을 잃은 줄로만 알고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던다. 해를 입지 않았다니 다행이다만, 어찌 이제야 나타난 것이냐? 네 멜빵과 도끼는 다 어디에 두고 왔느냐?"

나무꾼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산주인에게 잡혀 나무에 묶여 있었기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동쪽 땅 당나라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나한이십니다. 저 어르신도 산주인에게 잡혀 나무에 묶여 계셨지요. 그런데 저 세분의 제자 어르신들이 신통력이 워낙 대단하셔서 산주인을 때려죽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표범 요괴였고, 그 밑의 소요들도 모조리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저 어르신과 저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늘처럼 땅처럼 큰 은혜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산이 평온해졌으니, 밤새 길을 걸어와도 이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 노파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절을 올리며 당승 일행 네 사람을 맞이했고, 모두 사립문 안 초가집으로 모셔 들여 자리를 권했다. 모자(母子)는 머리를 조아리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서둘러 소박한 채소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나무꾼 양반, 형편이 넉넉지 못할 텐데 그저 대충 한 끼 때우는 것이니 너무 애쓰지 마시오."

나무꾼이 대답했다. "어르신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산골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 향긋한 버섯이나 산초, 각종 양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산나물 몇 가지를 올리니, 저희의 작은 정성이라 여기고 받아 주십시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시끄럽소, 시끄러워! 그냥 빨리 차려나 주시오. 배가 고파 죽겠으니 말이오."

나무꾼이 말했다. "곧 차려 내겠습니다, 곧 차려 내겠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상과 의자를 펴고 음식을 차려 내니, 정말로 산나물 몇 접시가 놓였다. 그 음식을 살펴보니 이려하였다.

어린 황화채는 살짝 데쳐 내고, 새콤한 무 절임과 하얀 버섯이 놓였네. 물랭이와 마름나물은 싱싱하고, 강가에서 자란 미나리와 꽃송이도 곁들였구나. 제비도 오지 않는 산골이라 향긋하고 연한 어린순들이 주먹만 하게 돌아나 아삭하고 푸르네. 말란머리와 개발적은 폭 삶아 내었고, 고양이 귀와 산돌나물, 회색빛 도는 나물들은 잘 익어 먹기에 딱 좋구나. 가위 모양 나물과 소 뉘 나물, 굴 껍데기 속에서 자란 나물까지,

깨진 쌀 같은 나물과 상추나물 등 여러 가지 푸른 나물들이 향긋하고 미끈거리는구나. 기름에 볶은 우영화와 맛 좋은 마름꽃은 참으로 으뜸이라. 부쟁이 뿌리와 갈대줄기 나물 등 물가에서 자란 네 가지 나물은 참으로 맑고 깨끗하구나. 보기에 예쁜 맥낭과 넉적한 나물들도 가득하니, 쓴맛 나는 나물과 산울타리 아래 자란 나물들도 일품이라. 참새풀과 원숭이 발 모양 나물을 기름에 지져 내니 먹음직스럽구나. 쑥 종류와 여러 나물과 빛나는 나물들이 상 위에 가득하니, 양귀 모양 나물과 구기자 머리, 검은 나물은 기름 없이도 맛이 좋구나. 이런 산나물 한 상 차림으로 나무꾼은 정성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네.

스승과 제자들은 배불리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나무꾼은 차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셔 나와 다시 한번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나무꾼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추나무 지팡이를 챙겨 들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문밖까지 나와 배웅했다.

사오정이 말을 끌고, 저팔계는 짐을 짊어졌으며, 손오공은 곁을 바짝 따랐다. 말 위에 앉은 당승이 손을 모아 인사하며 말했다. "나무꾼 양반, 번거롭겠지만 큰길까지 길을 좀 안내해 주시겠소?"

일행은 함께 언덕을 오르고 고개를 넘으며 개울을 지나 산길을 찾아 내려갔다. 말 위에서 당승이 생각에 잠겨 읊조렸다.

"서천으로 향한 길, 갈수록 멀어만 가고 물과 산을 지날 때마다 재앙과 요괴가 끊이지 않네. 마음은 오직 불경을 구하는 데 있고, 생각은 늘 저 높은 하늘을 향해 있구나. 이토록 바쁘게 움직이니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나고, 공행을 다 채워 당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이 말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천 리도 채 가지 않으면 바로 천축국입니다. 그곳은 극락과 같은 낙원입니다."

당승은 그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이르기를,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큰길이 가까우니 나무꾼 양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께 인사를 대신 전해주시요. 아까 귀한 음식을 대접받았으나 제대로 보답할 길이 없으니, 제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경전을 읽으며 어머님과 아드님의 평안과 무병장수를 빌어드리겠소."

나무꾼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양하고는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갔다. 스승과 제자들은 곧장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이러하였다.

요괴를 물리치고 원한을 풀어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은혜를 입은 마음으로 다시 정진하며 길을 떠나도다.

결국 서천에 도착하기까지 또 며칠이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7회 — 봉선군에서 하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다

鳳仙郡冒天{{另}}

손대성, 선행을 권하고 단비를 내리다

| 저자 = 오승은 | 이전 회 | 제86회: 목모가 위력을 더해 괴물을 정
벌하고, 금공이 법술을 펼쳐 요사를 멸하다 | 다음 회 | 제88회: 선법
모임이 옥화에 이르니, 마음의 원숭이가 나무의 가르침을 받아 문인이
되다

대도의 깊고 아득함은 어떠한 소식조차 전할 길 없어, 그 이치를 밝
히면 귀신조차 놀라 떨치며, 온 우주를 품고 있어 그 신비로운 빛을 가
르고 나누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이다. 영
산 대퇴음사 앞에서는 보배로운 구슬을 들어 올리니, 다섯 가지 찬란한
빛이 밝게 비치어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을 비추고, 도를 깨달은 자는
그 수명이 산과 바다처럼 영원하리라.

한편, 삼장 일행 네 사람은 나무꾼들과 작별하고 은무산을 내려와 큰길로 향했다. 며칠을 계속 나아가던 중, 문득 저 멀리 성 하나가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삼장이 물었다. “손오공아, 저 앞에 보이는 성이 천축국이냐?”

손오공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여래께서 계신 곳은 극락이라 불리긴 하지만 성곽이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산이에요. 그 산 안에 누각과 전각들이 모여 있는 곳을 영산 대퇴음사라고 부르지요. 설령 천축국에 도착한다 해도 그곳이 여래께서 계신 곳은 아니예요. 천축국이 영산에서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아직 모르고요. 저 성은 아마 천축국 밖의 어느 군(郡)일 테니,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 밖에 도착했다. 삼장은 말에서 내려 삼중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백성들의 살림이 황량하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어 매우 쓸쓸했다. 시장 어귀에 이르니 푸른 옷을 입은 이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고, 관복을 입은 이 몇몇도 처마 밑에 서 있었다. 삼장 일행이 길을 따라 걷는데도 그들은 비켜나기는커녕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흔스럽고 어리석은 저팔계가 커다란 입을 쭉 내밀며 소리쳤다. “길 좀 비켜요, 비키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일행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같이 혼비백산하여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요괴다, 요괴가 나타났다!”

처마 밑에 서 있던 관리들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물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삼장은 이들이 소란을 피워 화를 입을까 염려되어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천축국 대뢰음사 부처님께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지명을 알지 못하고 아직 묵을 곳을 정하지 못한 채 성안에 들어오느라 미처 피하지 못해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야 관리가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이곳은 천축국의 외곽 군인 봉선군입니다. 수년간 가뭄이 계속되어, 군후께서 저희에게 방을 붙여 법사님을 모셔 비를 빌어 백성을 구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물었다. “그 방문이라는 게 어디 있소?”

관리가 대답했다. “방문은 여기 있습니다만, 방금 처마 밑을 청소하느라 아직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리 내놓으시오. 내가 좀 보게.”

손오공의 말에 관리들이 즉시 방문을 펼쳐 처마 밑에 걸었다. 손오공 일행도 앞으로 다가와 함께 살펴보니, 방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대천축국 봉선군 군후 상관(上官)은 방을 붙여 밝은 스승을 모시고 큰 법사를 청하노라. 이곳 봉선군은 본래 땅이 넓고 군민의 살림이 넉넉하였으나, 몇 년째 가뭄이 이어져 백성의 밝은 거칠어지고 군사의 경

작지도 척박해졌다. 강물은 얇아지고 도랑은 말라붙었으며, 우물에는 물이 없고 샘 바닥에는 물기조차 없다. 부유한 집안은 겨우 목숨을 이어가나, 가난한 백성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쌀 한 말 값이 백 금에 달하고 땔나무 한 묶음이 다섯 냥이나 하니, 열 살 된 여자아이는 쌀 세 되에 팔려 가고 다섯 살 된 사내아이는 남을 따라 끌려간다. 성 안에서는 법을 두려워하여 옷가지와 물건을 저당 잡혀 겨우 몸을 보전하고, 시골에서는 관(官)을 업신여겨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제 목숨을 부지한다. 이에 방을 붙여 천하 시방의 현자들에게 간곡히 바라노니, 부디 비를 빌어 백성을 구제해 주소서.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후히 보답하리니, 천 금으로 사례하고자 하며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 방을 보시거든 부디 응해 주시라.”

손오공이 다 읽고 나서 관리들에게 물었다. “군후의 성함이 상관이라고?”

관리들이 대답했다. “상관은 성씨입니다. 저희 군후님의 성이 상관이십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성씨치고는 참 드물구려.”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은 글을 배운 적이 없으시군요. 『백가성』 뒤를 보면 ‘상관구양’이라는 구절도 있다고요.”

삼장이 나무라듯 말했다. “제자들아,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어라. 누가 비를 내릴 줄 안다면 저들에게 단비를 내려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어라. 이는 만 가지 선행에 해당하는 일이다. 만약 할 줄 모른다면 그냥 지나가거라. 길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손오공이 호기롭게 말했다. “비를 내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저 손오공은 강을 뒤집고 바다를 휘젓고, 북두를 바꾸고 별을 옮기며, 하늘을 걷어차고 우물을 희롱하고, 안개를 토하고 구름을 내뿜으며, 산을 짊어지고 달을 쫓고, 비를 부르고 바람을 불러오는 일쯤은 어느 것 하나 어릴 적 장난거리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무엇이 대수라고 그러십니까?”

관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두 명을 보내 군후에게 보고했다. “나리, 정말 큰 경사가 났습니다!”

당시 상관은 향을 피우며 묵묵히 기도를 올리던 중이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자 즉시 물었다. “무슨 경사냐?”

관원이 대답했다. “오늘 방을 붙여 시장 어귀에 걸자마자 스님 네 분이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은 동토 대당에서 천축국 대뢰음사로 부처님을 뵈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 하시며, 방을 보자마자 단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급히 보고하러 왔습니다.”

상관은 즉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일어났다. 가마나 수행원을 거느리지 않고 곧장 저잣거리로 나가 정중하게 청했다. 그때 누군가 “군후 나으리께서 오셨다!”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상관은 삼장을 보자마자 그의 제자들이 험상궂게 생긴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 한복판에서 몸을 굽혀 절하며 말했다.

“소관은 봉선군의 군후 상관 씨라고 합니다. 스님을 모셔 비를 내려 백성을 구하고자 간곡히 청하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신통력을 발휘해 저희를 구제해 주시옵소서.”

삼장이 예의를 갖추어 답했다.

"이곳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장소가 아니니, 우선 저 사찰로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상관이 말했다.

"스님께서 저희 관아로 함께 가신다면, 깨끗하고 정갈한 곳을 마련해 두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은 말을 끌고 짐을 멘 채 곧장 관아로 들어가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상관은 즉시 차를 내오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했다. 잠시 후 음식이 차려지자, 저팔계는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음식을 허겁지겁 삼켰다. 그 기세에 음식을 나르던 이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국을 채우고 밥을 더 나르느라 마치 회전하는 등불처럼 분주히 오갔다. 음식이 상에 오르자마자 저팔계는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어 치우고서야 멈추었다.

식사를 마친 삼장이 음식을 대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물었다. "군후 어른, 이곳은 가뭄이 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관이 대답했다. "이 보잘것없는 땅은 천축 대국이요, 저는 그 외곽 봉선군을 다스리는 목민관입니다. 가뭄이 잇따라 삼 년, 풀씨조차 나지 않고 오곡이 끊겼습니다. 크고 작은 집들마다 사고파는 일조차 어려워, 열 집이면 아홉 집이 모두 울음바다입니다. 셋 가운데 두 뭇은 굶어 죽고, 남은 한 뭇도 바람 앞의 등불 같습니다. 소관이 방을 붙여 두루어진 이를 찾던 차에, 다행히 진정한 승려를 우리나라에서 만났으니,

한 줄기 비라도 내려 백성을 구제해 주신다면, 천금으로 그 두터운 덕에 사례하기를 원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며 허허 웃으며 말했다. “말도 마십시오, 말도 마시고요. 천금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은 치워 두십시오. 그런 보답으로는 단 한 방울의 단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덕을 쌓고 공을 세우는 일이라면, 이 손오공이 시원한 큰비를 내려 드리겠습니다.”

상관은 본래 매우 청렴하고 어질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이였다. 그는 손오공을 상석으로 모시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진정 자비로우시니, 소관은 결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말씀은 그만하시고 일어나십시오. 다만 제 스승님을 잘 보살펴 주시고, 제가 일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와 팔계는 이리로 와서, 여기 대청 아래에서 내 곁을 지키며 도와라. 내가 용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할 테니 말이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명을 받들어 대청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상관은 향을 피우며 예배를 드렸고, 삼장은 자리에 앉아 경을 읽었다.

손오공이 진언을 외우며 주문을 읊조리자, 즉시 정동쪽 하늘에서 먹구름 한 조각이 나타나더니 점점 당 앞으로 내려왔다. 바로 동해 용왕

오광이었다. 오광은 구름을 거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손오공에게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께서 이 미천한 용을 부르셨으니, 무슨 일로 부르셨나이까?"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일어나게.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별다른 일은 아니고, 이곳 봉선군이 몇 년째 가뭄이 심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자네가 왜 비를 내리지 않는지 물으러 왔네."

용왕이 대답했다.

"대성께 아뢰입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저의 능력이나, 저는 하늘의 명을 받아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늘의 허락 없이 어찌 감히 제 마음대로 이곳에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내가 마침 이곳을 지나던 중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았네. 그래서 자네에게 특별히 비를 내려 구제해 달라고 청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차마 못 하겠다고 미루는 것인가?"

용왕이 말했다.

"어찌 감히 미루겠습니까? 대성께서 진언으로 부르시니 감히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첫째로 아직 하늘의 어명을 받지 못하였고, 둘째로 비를 내리는 신장들을 데려오지 못했으니 어찌 비를 관장하는

부서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대성께서 백성을 구제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셨으니, 부디 저를 바다로 돌려보내 병사를 소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대성께서 천궁에 올라가 허락을 받으시고, 비를 내리라는 성지를 받아 주십시오. 수관(水官, 물을 관장하는 관리)이 용들을 풀어주어야 저도 그 성지의 명수에 따라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손오공이 용왕의 말을 듣고 그 이치를 깨닫자, 어쩔 수 없이 용왕을 바다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곧 강두(罡斗) 보법에서 빠져나와 곁에 있던 삼장에게 용왕과 나눈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 삼장이 말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네가 가서 해결해 보아라. 다만,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손오공은 즉시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분부했다.

“스승님을 잘 보살피고 있어라. 나는 천궁에 다녀오마.”

장한 손오공이 가겠다는 말을 남기자마자, 그는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본 봉선군의 군후가 겁에 질려 물었다.

“손 어르신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팔계가 웃으며 대답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군후는 매우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소식을 널리 알렸다. 성 안의 큰 길과 작은 골목마다, 공경(公卿)·사대부·군인·백성을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용왕의 위패를 모셨다. 또한 문 앞에는 맑은 물을 담은 항아리를 두고 버드나무 가지를 꽃아 향불을 받들며 하늘에 정성을 다해 빌었다.

한편,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단숨에 서천 문밖까지 날아갔다. 일찍이 호국천왕이 천병과 역사들을 거느리고 마중 나와 물었다.

"대성, 경전을 가져오는 일은 다 끝났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거의 다 되어갑니다. 지금 천축국 경계에 있는 봉선군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는데, 그곳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백성들이 무척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를 내려 구해주려 합니다. 용왕을 불러 그곳으로 가게 했더니, 하늘의 명이 없으면 감히 마음대로 비를 내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옥제님을 뵙고 직접 명을 청하러 왔습니다."

천왕이 말했다.

"그곳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곳 군후가 행패를 부려 천지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군요. 옥제께서 노하셔서 미산(쌀 산), 면산(밀가루 산), 그리고 황금 쇠사슬이라는 세 가지 형벌을 내리셨으니, 이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기 전까지는 비가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옥제님을 뵈겠다고 고집했다. 천왕은 감히 막아서지 못하고 그를 들여보냈다. 통명전 밖에 이르니 이번에는 네 명의 천사가 마중 나와 물었다.

"대성,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당승을 보호하며 가던 중 천축국 경계의 봉선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비가 오지 않아 군후가 스승님을 모시고 비를 빌려달라 청해왔습니다. 제가 용왕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하려 했더니, 옥제님의 명이 없으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가에 백성들을 구제할 명을 얻으러 왔습니다."

네 명의 천사가 말했다.

"그곳은 비가 내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당신들이 직접 보고하여 알아보시오. 내 체면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러자 갈선옹이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파리가 그물을 싸고 있네, 참으로 낫짝도 두껍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정양이 말을 가로막았다.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일단 안으로 모셔 들어갑시다."

구홍제, 장도룡, 갈선웅, 허정양 네 명의 신선이 영소전 아래로 인도 되어 옥황제에게 아뢰었다.

"옥황 폐하, 손오공이 천축국 봉선군에 이르러 비를 내려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히 성지를 내려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러자 옥황제가 말했다.

"그놈은 3년 전 12월 25일에 내가 만천을 살피며 삼계를 유람할 때, 저곳의 상관이 인자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제사에 올릴 정결한 음식을 뒤엎어 개에게 던져주고는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어, 하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즉시 피향전 안에 세 가지 형벌을 세워두었으니, 너희는 손오공을 그곳으로 데려가 보아라. 만약 그 세 가지 형벌이 무너지면 그에게 성지를 내려주되, 만약 무너지지 않는다면 괜한 참견 말고 물러가 있거라."

네 명의 천사가 손오공을 피향전 안으로 안내하여 보여주니, 그곳에는 높이가 약 십 장(丈)쯤 되는 쌀산 하나와 높이가 약 이십 장쯤 되는 밀가루 산 하나가 있었다. 쌀산 옆에는 주먹만 한 크기의 닭 한 마리가 서서 쌀을 한 입씩 쪼아 먹고 있었고, 밀가루 산 옆에는 금색 털을 가진 하바견 한 마리가 혀를 길게 내밀었다 짧게 내밀었다 하며 밀가루를 훔아 먹고 있었다. 왼쪽에는 철제 선반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 선반 위에는 길이가 약 한 자 삼사 치 정도 되는 금색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자물쇠의 몸통은 손가락 굵기만 했으며, 그 아래에는 밝은 등잔 하나가 놓여 있어 등불의 불꽃이 자물쇠 몸통을 계속 태우고 있었다.

손오공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천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저자가 하늘의 법도를 어기는 죄를 지었기에, 옥제께서 이 세 가지 형벌을 내리신 것이요. 저 닭이 쌀을 다 쪼아 먹고, 개가 밀가루를 다 핥아 먹으며, 등불의 불꽃이 자물쇠를 다 태워 끊어 내고 나서야 비로소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이요."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안색이 변했다. 더는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전각을 걸어 나오는데,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네 명의 천사가 웃으며 말했다.

"손대성, 너무 번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오직 선행을 쌓아야만 풀릴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하늘을 감동시킨다면, 그 미산과 면산은 즉시 무너지고 금쇄도 단번에 끊어질 것입니다. 가서 그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에 따라 영소전으로 올라가 옥황제에게 다시 청하지 않고, 곤장 아래 세상의 범인에게로 향했다. 잠시 후 서천문에 이르자 호국천왕이 보였다. 천왕이 물었다.

"성지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손오공은 미산과 면산, 그리고 금쇄에 관한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말했다.

"네 말대로 성지를 내려주지는 않더군. 대신 방금 천사들이 나를 배웅하며 그놈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하라고 일러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말을 마친 손오공은 천왕과 작별하고 구름을 타고 아래 세상으로 내려갔다.

상관은 삼장과 팔계, 사오정, 그리고 여러 관리와 함께 떼를 지어 물려와 물었다. 손오공이 상관을 향해 호통을 치며 말했다.

"네 이놈! 네가 3년 전 12월 25일에 하늘과 땅을 노엽게 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기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깜짝 놀란 상관이 땅에 엎드려 말했다.

"스님께서는 어찌 3년 전의 일을 아십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네가 제사 때 올린 채소 음식을 어찌하여 개에게 던져주었느냐? 사실대로 말해 보아라."

상관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대답했다.

"3년 전 12월 25일, 관아 안에서 제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리석어 서로 악담을 하며 다투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무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상을 밀어엮어 음식을 쏟았고, 정말로 개를 불러다 먹게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일이 마음속에 남아 녀

이 나간 듯 지내며 어디에도 해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죄를 보시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스님을 뵈었으니, 부디 하늘에서 어떤 벌을 내리고 계신지 알려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그날은 바로 옥황제께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날이었다. 네가 제사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고 입으로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을 보시고, 옥제께서 즉시 세 가지 형벌을 내리셨다."

저팔계가 물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손오공이 설명했다.

"피향전에 높이 10장(약 30m) 정도 되는 쌀더미 하나와, 높이 20장(약 60m) 정도 되는 밀가루 더미 하나를 세워 두었다. 쌀더미 옆에는 주먹만 한 병아리 한 마리가 있어서, 쪼아 대며 쌀을 먹고 있고, 밀가루 더미 옆에는 금색 털을 가진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 헛바닥을 내밀며 밀가루를 먹고 있다. 그리고 왼편에는 철제 선반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손가락 굵기만 한 황금 자물쇠가 걸려 있다. 그 아래에는 등잔 하나가 놓여 있어 불꽃이 자물쇠를 계속 달구고 있지. 저 병아리가 쌀을 다 먹고, 강아지가 밀가루를 다 먹어서, 등불이 자물쇠를 다 녹여 끊어내야만 비로소 비가 내릴 것이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니야. 형님, 저를 데리고 가서 법력을 발휘
해 저 쌀과 밀가루를 한꺼번에 다 먹어 치워 버립시다. 그럼 자물쇠도
금방 끊어질 테니 비가 내리겠지요."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멍청한 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늘이 정한 계획인데
네가 어찌 넘보겠느냐?"

삼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떠날 때 네 명의 천사가 제
게 말해주기를, 오직 선한 일을 쌓는 것만이 이 벌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라고 했습니다."

상관은 땅에 엎드려 애원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마음을 돌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부처님을 염하고
경전을 읽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힘을 써 주겠다. 만약 예전처럼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머지않아 하늘이 너를 벌할
것이니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관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불도에) 귀의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에 그곳의 승려와 도사들을 불러 모아 도량을 세우고, 각각 문서를 작성하여 삼천(三天)의 신께 아뢰어 올렸다. 상관은 무리를 이끌고 향을 피우며 하늘과 땅에 예를 갖추었으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꾸짖으며 참회했다. 삼장 역시 그들과 함께 경을 읽어주었다.

한편, 성 안팎의 모든 백성에게 전령이 달려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향을 피우며 염불하라는 방을 붙였다. 이때부터 온 마을에 선한 소리가 귀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제야 손오공은 기뻐하며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말했다. “너희 둘은 스승님을 잘 보살피고 있거라. 나는 그자를 위해 다시 한번 다녀오마.”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또 어디를 가시려고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상관이 내 말을 듣고 정말로 가르침을 받아 들여, 공경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성껏 염불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다시 옥황제께 나아가 비를 내려달라고 청하러 갈 것이다.”

사오정이 거들었다. “형님께서 가시려거든 지체하지 말고 어서 다녀 오십시오. 괜히 우리 길 가는 시간만 늦추지 마시고요. 꼭 비 한바탕 빌어 주셔야, 그래야 우리도 바른 정과(正果)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은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 문 밖까지 날아갔는데, 그곳에서 호국천왕을 만났다. 천왕이 물었다. “자네,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왔는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봉선군의 군후가 이제 착한 마음을 품

고 선행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왕도 기뻐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교의 문서를 받든 부사(符使)와 불교의 관첩(關牒)을 받든 사자가 하늘 문 밖으로 전달하러 오는 것이 보였다. 사자가 손오공을 보고 예를 갖추며 말했다. "이것은 대성께서 선행을 권장하신 공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 문서를 어디로 가져가는가?" 사자가 답했다. "통명전으로 곧장 가서 천사들을 거쳐 옥황대천존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먼저 가거라.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 사자가 하늘 문 안으로 들어가자, 호국천왕이 말했다. "대성, 굳이 옥제까지 뵈 필요는 없네. 그저 구천응원부를 찾아가 뇌신(천둥과 번개의 신)들을 좀 빌려오게나. 그러면 곧장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릴 것이네."

손오공은 말한 대로 천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영소전으로 올라가 옥제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 구름을 밟아 곧장 구천응원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뇌문사자, 규록전자, 염방전자가 마중 나와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 어찌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천존을 뵈러 왔소.”

세 사자가 즉시 보고를 올리자, 천존이 구봉단하 병풍 뒤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오공을 맞이했다. 인사를 마친 후 손오공이 말했다.

“특별히 청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천존이 물었다.

“제가 삼장을 모시고 봉선군에 왔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 그곳 사람들을 위해 비를 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귀 부서의 관장들을 보내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 달라고 청하러 왔습니다.”

천존이 말했다.

“그곳 군후가 하늘을 노엽게 하여 세 가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네. 그 형벌이 끝나지 않으면 비를 내릴 수 없는데, 어찌하겠는가?”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제 이미 옥제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옥제께서 천사를 시켜 저를 피향전으로 안내해 그 세 가지 형벌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미산(쌀산), 면산(밀가루산), 그리고 금쇄(쇠사슬)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무너져야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이 쉽게 해결될지 걱정이었는데, 천사께서 군후와 백성들에게 선을 쌓으라고 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늘도 반드시 응답하는 법이니깐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마음을 돌려 재난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곳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선행을 쌓겠다는 목소리가 귀에 가득합니다. 방금 전에도 착한 길로 나

아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옥제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곳에 들러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관장들을 빌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존이 말했다.

“그렇다면 등, 신, 장, 도 네 장수와 번개를 다스리는 낭자를 보내, 즉시 대성을 따라 봉선군으로 내려가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게 하겠노라.”

네 명의 장수와 손오공이 함께 움직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봉선군 경계에 이르렀다. 그들은 공중에서 곧바로 법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르릉광광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들려오고, 번쩍번쩍 번갯불이 쏟아졌다. 참으로 이러하였다.

보랏빛 금뱀 같은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은 잠자던 벌레들을 깨우듯 요동치네. 번쩍이는 불꽃은 하늘을 수놓고, 벼락은 산동네를 무너뜨리네. 번갯불이 하늘 가득 밝히니, 진동하는 울림이 땅끝까지 이어지네. 붉은 빛 한 줄기 번쩍이며 싹을 틔우니, 만리 강산이 모두 흔들리도다.

봉선군 성 안팎의 크고 작은 관리들과 군인, 그리고 백성들은 지난 3년 동안 천둥과 번개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고 번갯불이 번쩍이자, 모두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어떤 이는 머리에 향로를 이고, 어떤 이는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쥔 채 일제히 외쳤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간절한 선한 마음이 과연 하늘을 감동시켰다. 옛 시에 이르기를
이러하였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 줄기 생각이 일어나면, 천지 만물이 이를 모두
다 안다네. 선과 악에 응보가 없다면, 하늘과 땅이 어찌 공정할 수 있겠
는가.

손대성이 뇌장(천둥과 번개를 부리는 장수)들을 지휘하여 봉선군에
번개와 천둥을 몰아치게 하니, 그곳의 모든 백성이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한편, 상계의 직부사자가 승려와 도사들의 문서를 통명전에 가져다
주자, 네 명의 천사가 이를 영소전에 전했다. 옥제는 이를 보고 말했
다. "그들이 이미 선한 마음을 품었다니, 세 가지 형벌은 어떻게 되었
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향전을 관리하는 장관이 달려와 보고했
다. "세워두었던 미산(쌀 산)과 면산(밀가루 산)이 모두 무너져 순식간
에 쌀과 밀가루가 다 없어졌으며, 쇠사슬로 묶어둔 금쇄 또한 끊어졌습
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옥제의 수레를 모시는 천관이 봉선군
의 토지신, 성황신, 사령신 등을 이끌고 와서 절을 하며 아뢰었다. "봉
선군의 군주와 성 안의 크고 작은 모든 백성이 선한 과보를 믿고 부처
님께 예배하며 하늘을 공경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자비
로운 마음을 베푸시어 단비를 내려 백성들을 구제해 주시옵소서."

옥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명을 내렸다. "풍부, 운부, 우부에게 명하노니, 각자 호령을 받들어 봉선군의 경계에 내려가라. 바로 오늘, 이 시각에 천둥과 번개를 울리고 구름을 일으켜, 비를 석 자 하고도 마흔두 점(약 1m 27cm)이 내리게 하라."

그때 네 명의 천사가 옥제의 명을 받들어 각 부서에 전달하니, 신선들이 때를 맞춰 하계로 내려가 저마다 신통력을 떨치며 일제히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손행자가 등, 신, 장, 도 네 장수와 번개 여인을 데리고 공중에서 번개와 천둥을 부리며 놀고 있는데, 마침 모든 신령이 모여들어 하늘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사이 바람과 구름이 어우러지더니 단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좋은 비가 내리니, 아득하고 짙은 구름, 몽글몽글한 검은 안개. 천둥 소리 우르릉 쿵쿵, 번갯불은 번쩍번쩍. 거센 바람은 휘몰아치고, 소나기는 쏟아져 내린다. 한 생각에 하늘의 뜻을 돌려놓으니, 만백성이 간절히 바라던 바로다. 오로지 손대성의 신통력 덕분에, 만 리 강산 곳곳에 그들이 드리우네. 쏟아지는 비는 강과 바다를 뒤엎을 듯 거세어, 들판을 덮고 하늘을 가린다. 처마 밑에는 폭포가 흐르는 듯하고, 창밖에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네. 집집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고, 거리마다 물줄기가 넘쳐흐른다. 동서로 흐르는 하천은 모두 물이 차고, 남북의 시내와 굽이진 곳마다 물길이 통한다. 말라가던 싹은 젖어 들고, 시들던 나무는 다시 살아난다. 논밭의 삼과 보리는 무성해지고, 마을의 콩과 곡식은 풍성하게 차오른다. 길 가는 나그네는 장사가 잘되어 기쁘고, 농부는 경작할 수 있어 즐겁구나. 이제부터 곡식들이 싹싹 잘

자라니, 자연히 오곡백과가 풍년이 들리라. 바람과 비가 조화로우니 백성이 안락하고, 바다가 잔잔하고 강물이 맑으니 태평성대를 누리도다.

비가 어느 정도 세 자하고도 마흔두 치쯤 내리자, 신령들은 서서히 물러가려 했다. 이때 손대성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저 네 부서의 신장님들은 잠시 구름 속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몸이 가서 군후에게 신장님들께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님들께서는 구름을 거두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어, 이 범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진심으로 공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신령들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곧장 마을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삼장과 저팔계, 사오정이 마중 나와 있었고, 상관은 한 걸음마다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아직 절을 하기엔 이릅니다. 내가 이미 네 부서의 신령들을 불러들여 두었으니, 당신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함께 절을 올리게 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계속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상관이 즉시 명을 내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모두가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다. 그러자 네 부서의 신령들이 구름과 안개를 걷어내며 각자의 본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바로 비를 관장하는 우부, 천둥을 관장하는 뇌부, 구름을 관장하는 운부, 바람을 관장하는 풍부였다.

용왕은 형상을 나타내고, 천둥 장군은 몸을 펼치며, 구름 아이는 나타나고, 바람의 신은 본모습을 드러내니,

용왕이 형상을 나타내니 은빛 수염에 푸르스름한 얼굴이 세상에 둘도 없고, 천둥 장군이 몸을 펼치니 갈고리 같은 입에 위엄 있는 얼굴이 비길 데 없구나. 구름 아이가 나타나니 옥 같은 얼굴에 금관을 쓴 이 누구이며, 바람의 신이 본모습을 드러내니 짙은 눈썹에 푹 튀어나온 눈을 한 이 누구인가. 푸른 하늘 위로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어, 각기 줄을 지어 성스러운 위엄을 나타내도다. 봉선군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고, 머리 숙여 향을 피우며 악한 마음을 돌리네. 오늘 천상의 장수들을 우러러보며, 마음을 씻고 선을 향해 온전히 귀의하도다.

신령들이 한 시진 동안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절을 올렸다. 손오공은 다시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가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부서로 돌아가 주십시오. 대신 저에게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봉선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귀한 신령들께 공양을 올리고, 때마다 제사를 지내며 감사를 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닥새마다 바람을 일으키고, 열흘마다 비를 내려 이 땅을 계속 구해주셔야 합니다."

신령들은 그 말에 따라 각자의 부서로 돌아가며 대답을 대신했다.

한편,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삼장에게 말했다. "일이 다 해결되어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니, 이제 떠날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관이 급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손 대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번 일은 가히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은 은혜입니다. 소관이 즉시 사람을 시켜 작은 잔치를 마련하여 대인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논밭을 사들여 대인을 위한 사찰을 세우고, 대인의 생사(生祠, 살아있는 사람을 기리는 사당)를 건립하여 비석에 이름을 새긴 뒤 사계절 내내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비록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해도 이 은혜의 만 분의 일도 갚기 어렵거늘, 어찌 벌써 떠날 생각을 하십니까?"

삼장이 말했다. "대인,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희는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떠도는 승려들입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하루 이틀 내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어찌 그들을 그냥 보내려 하겠는가. 그는 밤을 새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마련하고 사당을 짓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삼장을 상석에 모시고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나란히 앉았다. 봉선군의 군후인 상관은 해당 지역의 크고 작은 관리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술잔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온종일 정성껏 대접했다.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다. 이를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논밭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나고, 강물은 상인들이 오가는 곳마다 시원하게 흐르네. 신성한 스님이 이 땅에 오심에 깊이 감동하니, 대성께서 천궁에 올라 복을 빌어주셨도다. 지난날의 세 가지 잘못을 씻어내고, 한마음으로 귀의하니 선한 결과가 널리 퍼지리라. 이후로는

요순시대처럼 태평성대가 되어, 풍년이 만년토록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루는 잔치로, 이들은 연회로 이어졌다. 오늘은 대접하고 내일은 사례하며, 사찰과 생사(살아있는 이를 기리는 사당)가 완공될 때까지 보름은 더 머물 계획이었다. 어느 날, 상관이 일행에게 공사가 진행된 곳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청했다. 삼장이 놀라며 말했다. “공사가 이토록 방대한데, 어찌 이리 빨리 끝났단 말입니까?” 상관이 대답했다. “소관이 사람들을 독려하여 밤낮없이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서둘러 마무리하도록 명했으니, 부디 어르신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과연 현명하고 능력 있는 훌륭한 현후(賢侯)이십니다.” 일행이 즉시 새로 지은 사찰에 도착하니, 전각은 웅장하고 산문은 장려하여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오공이 스승에게 사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하자, 삼장이 말했다. “좋은 이름이 있소. 이 절의 이름은 ‘감림보제사’라 부르도록 합시다.” 상관이 맞장구치며 말했다. “참으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관은 금을 써서 승려들을 널리 모집하여 향불을 모시게 했다. 전각 왼쪽에는 네 수행자를 기리는 생사를 세워 매년 사계절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고, 신령한 공덕에 보답하고자 뇌신과 용신 등을 모시는 사당도 세웠다. 구경을 마친 상관은 즉시 일행에게 길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명했다.

그 고을 백성들은 일행이 오래 머무를 수 없음을 알고, 각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내놓았으나 일행은 단 한 톨도 받지 않았다. 이에 고을의 관리와 백성들은 복을 치고 악기를 연주하며 화려한 깃발을 내걸고, 삼십 리가 넘는 거리까지 배웅을 나갔다. 백성들은 차마 작별의 인사를

나누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뒷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상황을 시로 이르되,

덕 높은 신성한 승려는 보살핌을 남겼고, 제천대성 손오공은 넓게 은혜를 베풀었네.

결국 이번 길에 며칠이나 더 가야 여래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8회 — 선도가 옥화시법회에 이르고, 마음의 원숭이가 나무에 걸리다

禪到玉華施法會 心猿木{{另

제88회

제자들에게 신력을 전수하다

봉선군에 큰비를 내려 만인을 구한 손오공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당승 일행은 가을 길을 따라 다시 길을 떠났다.

한편,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은 기쁜 마음으로 군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말 위에서 손오공에게 말했다. "착한 제자야, 이번에 베푼 선행은 비구국에서 아이들을 구해낸 것보다 훨씬 값지구나. 모두 네 공로 덕분이다." 그러자 사오정이 거들었다. "비구국에서는 겨우 천백열한 명의 아이를 구했을 뿐이지만, 이번에 내린 큰비는 온 세상을 적셔 수만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속으로 대사형의 법력이 하늘에

당고 자비가 땅에 가득하다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저 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은혜도 있고 선행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인의를 베풀어도 속에는 재앙을 품고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저 돼지랑 같이 다니면 아주 사람 잡겠어요."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언제 너를 잡는다는 말이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말 안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맨날 나를 묶고, 매달고, 삶고, 찌고! 이번에 봉선군에서 수만 명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기서 반년쯤 머물면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이나 몇 끼 편하게 대접해 주면 좋을 텐데, 그저 길만 재촉하시니 원." 당승이 그 소리를 듣고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어찌 먹을 궁리만 하느냐? 어서 길을 재촉하거라. 또 말대꾸하지 말고!" 저팔계는 감히 대들지 못하고 입을 빼죽거리며 짐을 짊어지고 허허 웃으며 따라나섰다. 스승과 제자들은 다시 큰길로 나섰다. 어느덧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깊은 가을이 되었으니, 풍경은 이러했다.

물자국은 사라지고 산줄기는 앙상해졌구나. 붉은 단풍 흩날리고 노란 꽃 피는 계절이라. 서리 내린 맑은 밤은 길게만 느껴지고, 하얀 달빛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네. 집집마다 저녁 노을 아래 밥 짓는 연기 피어 오르고, 곳곳에 호수 빛은 차가운 물결에 흐르네. 흰 수생식물 향기롭고 붉은 마디풀 무성한데, 굴은 푸르고 오렌지는 노랑고 버들잎은 시들며 곡식은 익어가는구나. 황량한 마을엔 기러기 내려앉고 갈대꽃 흩어지는데, 들판 주막에선 닭 울음소리 들리고 곡식 거두는 소리 들려오네.

일행이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 성벽의 그림자가 보였다. 당승이 채찍을 들어 먼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공아, 저기에 또 성이 하나 보

이는구나. 저곳이 어디인지 알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과 저 모두 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일단 저 근처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숲 사이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가벼운 옷차림에 짚신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있었다. 당승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노인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답례하며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승이 합장하며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대뇌음사(大雷音寺)의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승려입니다. 이제 이 귀한 고장에 이르러 멀리 성을 바라보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 노시주께 특별히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선사님, 이곳은 천축국 하군의 옥화현이라는 곳입니다. 성주인 옥화왕은 천축 황제의 종실로, 매우 어질고 현명한 분이지요. 불교와 도교를 공경하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합니다. 선사께서 저 성에 가신다면 분명 극진한 대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승이 감사를 표하자 노인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당승이 몸을 돌려 제자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세 제자는 기뻐하며 스승을 말에 태우려 했다. 당승이 말했다. "길이 멀지 않으니 굳이 말을 탈 필요는 없다." 이에 네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성 안의 거리 풍경을 구경했다. 성벽 주변에는 집들이 늘어서 있고,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들로 인적이 북적이며 장사가 매우 번창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씨와 생김새를 보니 대당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당승이 당부했다. "제자들아, 조심하거라. 절대로 예의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저팔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오정은 얼굴을 가렸으나, 손오공만은 스승을 부축하며 걷고 있었다. 길 양옆의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는 고승은 보았어도, 돼지와 원숭이를 굴복시키는 스님은 처음 보네!"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입을 뻐죽거리며 대꾸했다. "그럼 돼지 왕을 굴복시키는 스님은 본 적 있소?" 이 말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며 양옆으로 비켜나 소란이 일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어서 입 좀 다물고 까불지 마라. 발밑 조심하며 다리를 건너야지." 저팔계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출렁이는 다리를 지나 성문 안으로 들어서니, 큰길가에 주막과 기생집들이 즐비하여 매우 변화하고 북적였다. 과연 신령한 나라의 도성다운 풍경이었다. 시로 이르되,

비단 같은 성안의 철옹성은 만 년토록 견고하고, 물가에 산을 끼고 있으니 풍경이 참으로 선명하구나. 온갖 물건은 호수를 지나 배를 타고 시장에 들어오고, 수많은 주막에는 손님을 부르는 휘장이 드리워졌네. 곳곳에 누각과 집들이 늘어서 인적은 넓고, 골목마다 매일같이 상인들의 북적임이 가득하니, 장안의 아름다운 풍경에 비할 데가 없구나, 닭 울고 개 짖는 소리조차 그곳과 다를 바 없네.

당승은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사람들은 서역의 나라들이라고 들 하지만, 나는 아직 이곳에 와보지 못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의 풍경이 우리 대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른바 극락세계라는 것이 참으로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또한 사람들이 흰쌀 한 섬에 쌀 네 돈, 참기름 한 근에 여덟 리 정도로 거래된다는 말을 들으니, 참으로 오곡이 풍성한 곳임이 틀림없었다.

한참을 걸어간 끝에 옥화왕부에 도착했다. 왕부의 문 양옆으로는 장사부, 심리청, 전선소, 그리고 대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이곳은 왕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왕을 뵈고 통행증을 확인받은 뒤에 길을 나서겠다.”

그러자 저팔계가 물었다. “스승님, 안으로 들어가시면 저희는 관청 앞에 그냥 서 있어야 하나요?”

당승이 대답했다. “저 문에 ‘대기관’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모두 저곳에 가서 앉아 있거라. 말 먹일 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좀 사 오고 말이야. 내가 왕을 만나 혹시라도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 너희를 불러 함께 나누도록 하마.”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이 손오공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사이 사오정이 짐을 짊어지고 대기관 안으로 들어갔다. 관을 지키던 관리들은 사오정 일행의 얼굴이 험상궂은 것을 보고는, 감히 말을 걸거나 나가라고 재촉하지 못한 채 그저 자리에 앉아 있게 내버려 두었다.

한편, 당승은 옷과 모자를 갈아입고 공문을 챙겨 곧장 왕부 앞으로 향했다. 일찍이 마중 나온 안내관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동토 대당에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승려입니다.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니, 공문을 교체하고 천세를 뵈고자 왔습니다.” 안내관은 즉시 이 소식을 전했다. 옥화

왕은 과연 현명하고 덕망 있는 인물이라, 곧바로 어명을 내려 당승을 안으로 들였다. 당승이 전각 아래에서 예를 갖추자, 왕은 그를 전각 위로 모셔 앉히고 자리를 권했다. 당승이 공문을 올리자 왕은 이를 살펴 보았다. 여러 나라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왕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보인(보물 도장)을 찍고 서명한 뒤, 공문을 접어 탁자 위에 두었다. 왕이 물었다. "국사 스님, 그 대당에서 이곳까지 여러 나라를 거쳐 오셨는데, 총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당승이 말했다. "빈승은 정확한 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몇 년 전 관음보살님께서 저희 대당의 임금님 앞에 나타나셔서 계송을 남기시며, 서천까지 십만 팔천 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빈승이 길을 오는 동안 이미 열네 번이나 추위와 더위(겨울과 여름)를 겪었습니다." 왕이 웃으며 말했다. "열네 번의 추위와 더위를 겪으셨다면 곧 14년이 된 셈이군요. 분명 길을 오는 중에 무언가 지체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당승이 답했다. "한 마디로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요괴와 마귀를 만나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생 끝에 겨우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명하여 정갈한 채식 식사를 대접하게 했다. 그러자 당승이 말했다. "전하께 아웁니다. 빈승에게는 밖에서 기다리는 세 명의 어린 제자가 있습니다. 일정이 늦어질까 염려되어 감히 식사를 받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왕이 명령했다. "전각 관리들은 어서 가서 스님의 제자 세 명을 모셔 오너라. 왕부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여라."

전각의 관리들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말했다.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어." 그러자 곁에 있던 수행원이 말했다. "객관에 못생긴 스님 세 분이 앉아 계시던데, 필시 그분들일 것이오."

관리들이 사람들과 함께 객관으로 가서 관리인에게 물었다. "대당에서 경을 구하러 가는 취경승의 수제자가 누구시오? 우리 주군께서 채식을 대접하라 명하셨네."

저팔계는 마침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채식'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대답했다. "저희입니다, 저희예요!"

관리들은 저팔계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벌벌 떨며 말했다. "돼지 요괴다, 돼지 요괴야!"

그 소리를 들은 손오공이 저팔계를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이보게, 좀 점잖게 행동해. 마을 사람처럼 굴지 말고."

관리들은 손오공을 보고는 다시 말했다. "원숭이 요괴다, 원숭이 요괴야!"

사오정이 손을 모아 쥐며 말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세 사람은 모두 당승의 제자들입니다."

관리들은 사오정을 보고 또 외쳤다. "조왕신이다, 조왕신이야!"

손오공은 즉시 저팔계에게 말을 끌게 하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지게 하여 관리들과 함께 옥화왕부로 들어갔다. 관리들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이 사실을 보고했다.

왕자가 눈을 들어 그들의 흥측한 모습을 보니, 마음속으로 겁이 덜컥 났다. 당승이 합장하며 말했다. "천세(千歲)시여, 안심하십시오. 이 미련한 제자들이 생김새는 비록 추하지만, 마음씨는 모두 착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위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빈승이 문안 인사 올립니다!” 왕자는 그 소리에 더욱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승이 다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산야에서 거두어온 것들이라 예법을 잘 모릅니다. 부디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왕자는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음식 담당 관리를 시켜 승려들을 폭사정으로 불러 공양을 들게 했다. 당승은 은혜에 감사하며 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전각을 내려와 정자로 향했다. 정자에 도착하자마자 당승이 저팔계를 원망하며 말했다. “이 미련한 녀석아,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구나! 차라리 입을 열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을, 어찌 그리 무례하게 구느냐? 네 말 한마디가 태산이라도 무너뜨릴 기세로 요란하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차라리 제가 인사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야 힘도 덜 들 테니까요.” 사오정도 거들었다. “저팔계가 인사를 할 때도 순서도 안 맞추고, 미리 입부터 놀리며 소리를 지르니 말입니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아이고, 정말 못살겠네! 스승님께서 엇그제는 사람을 만나면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예의라고 가르쳐 주시더니, 오늘 인사를 하니 또 잘못했다고 하시니 대체 어찌라는 말씀입니까?” 당승이 꾸짖었다. “내가 사람을 만나면 문안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지, 왕자를 만나자마자 저렇게 함부로 대하라고 가르쳤더냐? 예부터 말하기를 ‘물건에도 등급이 있고 사람에게도 귀천이 있다’고 했다. 어찌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않느냐?” 이야기가 이어지는 사이, 음식 담당 관리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와서 탁자와 의자를 정리하고 공양을 차려냈다. 스승과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각자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한편, 왕자가 전각을 물러나 궁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세 명의 어린 왕자가 있었다. 왕자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본 왕자들이 즉시 물었다.

“아버님, 오늘 어찌하여 이토록 놀라신 것이옵니까?”

왕자가 대답했다.

“방금 동토 대당에서 불교를 받들어 경전을 구하러 온 스님이 관문을 교환하러 왔는데, 그 풍채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내가 그를 머물며 채식을 하게 하려 했더니, 부(府) 앞에 제자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불러들였느. 그런데 들어온 녀석들이 나에게 큰절을 올리기는커녕 그저 가볍게 인사만 하기에 내 기분이 상했지 뭐냐. 게다가 고개를 들어 보니 하나같이 요괴처럼 못생겨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구나. 그래서 안색이 변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세 명의 어린 왕자들은 다른 이들과 달리 무예를 숭상하고 기세가 당당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즉시 주먹을 쥐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외쳤다.

“설마 산속에서 내려온 요괴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기를 챙겨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왕자는 위세 당당하게 왕부를 나섰다. 첫째는 제미곤(齊眉棍)을 들고, 둘째는 구치저를 휘두르며, 셋째는 오유흑봉을 든 채 기세등등하게 걸어 나오며 외쳤다.

"경전을 구하러 왔다는 스님들이 어디 있느냐?"

곁에 있던 음식 담당 관리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소왕이시여, 저들은 지금 폭사정에서 공양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왕자는 앞뒤 사정도 가리지 않고 성큼성큼 안으로 뛰어 들어가 호통을 쳤다.

"너희는 사람이냐, 아니면 요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야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승은 얼굴빛이 창백해져 밥그릇을 내려놓고 몸을 굽히며 말했다.

"빈승은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사람이지, 요괴가 아닙니다."

그러자 첫째 왕자가 말했다.

"그대라면 사람 같군. 하지만 저 못생긴 세 놈은 분명 요괴임이 틀림 없어!"

저팔계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밥을 먹는 데만 열중했다. 사오정과 손오공이 몸을 굽히며 예의를 갖춰 말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얼굴은 비록 못생겼으나 마음은 착하고, 몸집은 비록 거칠지만 성품은 선량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세 사람은 어디서 온 누구길래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입니까?"

옆에 있던 관리들이 나서서 설명했다.

"이 세 분은 저희 왕의 아드님들이신 소전하들이십니다."

그제야 저팔계가 밥그릇을 툭 내려놓으며 말했다.

"소전하라고? 그런데 왜 다들 무기를 들고 계신 겁니까? 설마 우리랑 한판 붙으려는 건 아니겠지요?"

이왕자가 먼저 발을 내디디며 양손으로 갈퀴를 휘둘러 저팔계를 공격하려 했다. 저팔계는 히히 웃으며 말했다. "네가 든 그 갈퀴는 내 갈퀴 앞에서 손자나 다름없구나!" 그러고는 옷을 걷어 올리더니 허리춤에서 갈퀴를 꺼내 휘둘렀다. 그러자 만 갈래의 금빛이 쏟아져 나오고, 수천 줄기의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 기세에 눌린 왕자는 팔다리에 힘이 풀려 감히 무기를 휘두르지도 못했다.

손오공은 첫째 왕자가 제미곤(齊眉棍)을 들고 이리저리 뛰며 날뛰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귀에서 금고봉을 꺼내 휘둘렀다. 금고봉은 사발만큼 굵고 길이는 한 길 두 자에서 세 자 정도 되었다. 손오공이 그것을 땅에 쿵 하고 내리치니 땅이 석 자 깊이로 파였고, 그대로 봉을 세워두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몽둥이를 너에게 주마."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얼른 제 무기를 내던지고 그 몽둥이를 잡으려 했다. 양손에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흔들고 들어보려 했지만,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듯 요지부동이었다.

셋째 왕자는 성질을 내며 오유흑봉을 휘둘러 공격해 왔다. 하지만 사오정이 한 손으로 그 공격을 쳐내고는 항요보장(요괴를 굴복시키는 보물 지팡이)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지팡이에서 눈부신 빛이 나며 화사한 노을 같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 빛에 압도된 요리사들과 관리들은 모두 멍하니 서서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세 왕자가 일제히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신선님, 신선님! 저희 같은 범인들은 식견이 부족하니, 부디 신통력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 래야 저희가 정식으로 스승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손오공이 앞으로 다가와 가볍게 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여기가 좁아서 제대로 숨씨를 부리기가 어렵구나. 내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한바탕 휘둘러 보일 테니, 너희는 잘 지켜보거라."

손오공이 크게 기합을 내지르더니 여의봉을 한 번 흔들었다. 그러고는 두 발로 오색 상서로운 구름을 딛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지상에서 삼백 보 높이쯤에 이르렀다. 그는 금고봉을 던져 올리며 '꽃을 뿌리듯 머리 위를 덮고 황룡이 몸을 돌리듯' 휘둘렀다. 위아래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몰아치는데, 처음에는 사람과 봉이 어우러져 비단 위에 꽃을 더한 듯 화려했으나, 나중에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늘 가득 봉이 구르는 모습만 보였다.

밑에서 구경하던 저팔계가 크게 환호하며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며 외쳤다. "이 몸도 가서 한바탕 숨씨 좀 부려야겠구먼!" 저팔계도 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가 갈퀴를 던졌다. 위아래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앞뒤로 정신없이 휘두르며 온갖 재주를 다 부리니,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뽕뽕 울려 퍼졌다.

한창 흥이 오를 무렵, 사오정이 당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도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오정도 두 발로 힘차게 뛰어올라 지팡이를 휘두르며 허공으로 올라갔다. 그 기세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금빛이 아스라이 빛났다. 그는 양손으로 강요장을 잡고 '단봉이 아침 해를 향해 날아오르듯', '끓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덮치듯' 휘두르며, 막을

것은 막고 칠 것은 치며 급히 회전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세 형제는 저마다 신통력을 발휘하며 허공에서 한데 어우러져 위용을 떨쳤다.

시로 이르되, 참된 선의 경지가 예사롭지 않으니, 대도의 이치가 온 하늘에 가득하구나. 금과 나무의 위엄이 법계에 가득하고, 무기가 회전하며 원만한 이치를 이루네. 신령한 병기가 때마다 나타나니, 단단한 무기가 가는 곳마다 숭상받는구나. 천축국이 아무리 높다 한들 법도를 지켜야 하니, 옥화현의 왕자들도 모두 이 도리에 귀의하리라.

그 기세에 눌린 세 왕자는 먼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폭사정에 모인 크고 작은 관리들과 왕부의 큰 왕자, 그리고 성안의 군사와 백성, 남녀노소, 승려와 도사, 속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가 집집마다 불경을 외우며 머리를 조아리고 향을 피워 절을 올렸다. 과연 이러하였다.

진정한 모습을 보고 돌아와 중생을 제도하니, 인간 세상은 복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즐기네. 이제부터 깨달음의 길을 바르게 걸으니, 온 세상이 참선하고 부처를 받드는구나.

세 형제는 저마다의 재주를 마음껏 뽐낸 뒤,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병기를 거두었다. 그리고 당승 앞에 나아가 문안을 올리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 인사를 드린 뒤, 각자 자리에 앉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다.

세 왕자는 급히 궁으로 돌아가 옥화왕에게 고했다.

"아버님, 정말 기쁘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방금 하늘 위에서 무엇이 춤추듯 움직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옥화왕이 대답했다.

"방금 하늘에 무지갯빛 노을이 이는 것을 보고, 네 어머니와 함께 궁 안에서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던 참이다. 그게 어느 신선들이 내려온 것인지 나도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자 왕자들이 말했다.

"신선들이 아니라, 바로 그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승려의 못생긴 제자 세 명입니다. 한 명은 금고봉을 휘두르고, 한 명은 구치저를 쓰고, 다른 한 명은 요괴를 잡는 보배 지팡이를 쓰는데, 저희 세 사람의 무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쳐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무술을 보여달라고 하자, 그들이 '땅 위는 좁아서 휘두르기 불편하니, 공중으로 올라가서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각자 구름을 타고 올라갔는데, 온 하늘에 상서로운 구름이 아스라이 피어오르고 신령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는 막 내려와서 모두 폭사정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기뻐서 그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신통력을 배워 우리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화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찬성했다.

당시 옥화왕 부자는 가마를 타거나 가마를 끄우는 이들을 거느리지 않고 직접 걸어서 폭사정으로 향했다. 한편, 당승 일행은 짐을 챙겨 왕 부에 들어가 공양을 올리고 인사를 나눈 뒤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러다 마침 옥화왕 부자가 정자로 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당승은 당황하여 몸을 일으켜 정중히 답례했고,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은 옆으로 비켜서며 속으로 살짝 비웃었다.

절을 마친 뒤, 옥화왕은 일행을 왕부의 대청으로 모셔 앉혔다. 당승 일행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 앉자, 옥화왕이 일어나 말했다.

"당 스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 분의 고제 자께서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승이 대답했다.

"천세(千歲)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자들이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화왕이 말을 이었다.

"처음 여러분을 뵈었을 때는 그저 대당에서 멀리서 오신 수행 승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육안으로만 보니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방금 손 스님과 저 스님, 사 스님께서 허공을 날아다니며神通력을 부리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신선과 부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세 아들이 평생 무예를 익히는 것을 좋아해 왔는데,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스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예를 배우고자 합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시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성 하나를 바칠 만큼 큰 보답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참지 못하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보시오, 왕자님! 참으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구려. 우리 같은 출가 수행자들은 제자를 두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법이라오. 왕자님이 선한 마음을 내어 배우려 한다니, 보답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마시오. 그저 진심으로 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 아니겠소?"

왕자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왕자는 즉시 명을 내려 왕부의 정당에 큰 잔치를 베풀게 했다. 아! 명령 한 마디에 모든 준비가 순식간에 끝났다. 잔치 풍경을 보니 이러하였다.

비단 장식은 바람에 나부끼고 향기로운 연기는 그윽하게 피어오른다. 금실로 수놓은 탁자에는 고운 비단이 걸려 있어 눈이 부실 정도요, 채색 칠을 한 의자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어 자리가 더욱 화려하다. 나무와 과일은 싱싱하고 찻물은 향긋하다. 서너 가지의 가벼운 음식은 달콤하고 깔끔하며, 만두는 풍성하고 정갈하다. 달콤하게 졸인 과자와 기름에 튀겨 설탕을 입힌 음식은 참으로 별미로다. 향긋한 곡주 몇 병을 따라 내놓으니 마치 신선이 마시는 술과 같고, 양선 지방의 귀한 차를 몇 번이고 받들어 올리니 그 향기가 계수나무 향보다 뛰어나다. 온갖 진미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고, 모든 음식의 색과 모양이 하나같이기가 막혔다.

한쪽에서는 악사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를 맡아 흥을 돋우고 광대들이 연극을 펼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당승 일행과 왕의 부자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술자리가 끝났다. 일행은 즉시 폭사정의 방에 침구와 휘장을 갖추어 스승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 내일 아

침 정성을 다해 향을 피우고 다시 절을 올리며 무예를 전수해 달라고 청하기로 했다. 모두가 이에 따랐고, 목록물을 준비해 스승의 목록을 도운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이때의 풍경을 시로 읊으면 이러하다.

새들은 높은 가지에 깃들고 만물의 소리 잠잠한데, 시인은 잠자리에 들어 읊조림을 멈추었구나. 은하수가 빛나니 하늘은 더욱 밝아지고, 거친 들길은 황량한데 풀만 더욱 무성하네. 별채에서는 방망이질 소리 울려 퍼지고, 멀리 험한 산 너머로 고향 생각 간절하구나. 귀뚜라미 울음소리 맑아 사람의 마음을 아는데, 머리맡에서 들리는 소리에 꿈결마저 깨어나는구나.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옥화왕 부자가 다시 찾아왔다. 어제 만났을 때는 왕으로서 예를 갖추었으나, 오늘은 스승을 모시는 제자의 예로 대했다. 세 왕자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물었다. "스승님, 스승님의 병기를 저희에게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기쁘게 웃으며 구치저를 꺼내 땅에 내려놓았다. 사오정 역시 보장(보배로운 지팡이)을 꺼내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러자 둘째 왕자와 셋째 왕자가 달려들어 그것을 잡으려 했다. 마치 잠자리가 돌기둥을 들이받는 듯했으나,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를 정도로 힘을 써도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본 첫째 왕자가 외쳤다. "동생들아, 헛수고하지 마라. 스승님들의 병기는 모두 신령한 것이라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알 수가 없구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내 갈퀴도 그리 무겁지는 않다네. 그저 일장(一藏)의 수, 곧 자루까지 합쳐 오천사십팔 근일 뿐이지." 셋째 왕자가 사오정에게 물었다. "스승님의 지팡이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오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도 오천사십팔 근이라네." 첫째 왕자는 손오공에게 금고봉을 보여달라고 청했다. 손오공은 귀 속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꺼내더니, 바람을 향해 휘두르자 순식간에 사발만큼 굵어지며 눈앞에 곧게 섰다. 왕자 부자와 관리들은 모두 겁에 질렸고, 모든 관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 왕자가 절하며 물었다. "저팔계 스승님과 사오정 스승님의 병기는 몸 아래에 차고 계시다가 바로 꺼내시는데, 어찌하여 손오공 스승님은 귀에서 꺼내어 바람만 불면 커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내 이 봉이 세상의 혼한 물건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구나. 이 봉은 이러하다.

태초의 혼돈이 갈라지고 쇠를 녹여 만들 때, 대우 신인이 직접 설계한 것이라네. 호수와 바다, 강과 하천의 깊이를 아는 자라면, 이 봉의 위력을 분명히 알 것이니라. 산을 열고 물을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룰 때, 동쪽 바다 끝에 흘러들어 바다를 진정시켰지. 오랜 세월이 흘러 채색 구름을 머금으니,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빛이 나도 깨끗하구나. 이 몸이 나누어 가졌으니 변화가 끝이 없어, 말 한마디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네. 우주만큼 크게 키울 수도 있고, 바늘처럼 작게 줄일 수도 있지. 이름은 여의라 하고 금고봉이라 부르니, 천상과 인간 세상에서 으뜸이라네. 무게는 무려 만 삼천오백 근에 달하고, 굵기와 길이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 천계에서 소동을 피울 때도 함께했고, 지옥을 공격할 때도 늘 곁에 있었네.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잠재우며, 마귀를 물리치고 괴물을 없애는 데 탁월하구나. 손가락 하나로 태양을 가릴 정도니, 천지의 귀신들이 모두 겁을 먹는다네. 혼돈의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니, 결코 세상의 혼한 쇠가 아니로다."

왕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며 절을 올렸다. 세 왕자는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가르침을 청했다. 손오공이 물었다. "너희 세 사람은 어떤 무예를 배우고 싶으냐?" 왕자들이 대답했다. "봉을 쓰고 싶으면 봉술을 배우고, 갈퀴를 쓰는 데 익숙하면 갈퀴질을 배우고, 지팡이를 쓰고 싶으면 지팡이술을 배우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너희에게 힘이 없어 우리 병기를 다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배워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마치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리는 꼴이 될까 걱정되는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가르침이 엄하지 않으면 스승의 게으름이요, 배움이 성취되지 않으면 자식의 죄다'라고 했다. 너희가 정녕 뜻이 있다면, 먼저 향을 피워 천지에 절을 올리거라. 그러면 내가 먼저 신력을 전수해 준 뒤에 무예를 가르쳐 주겠다."

세 왕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그들은 직접 향안을 들어 올리고 손을 씻은 뒤 향을 피우며 하늘에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뒤에는 스승님께 법을 전수해 달라고 청했다. 손오공은 몸을 돌려 당승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스승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전에 양계산에서 스승님의 큰 은덕으로 목숨을 건진 뒤로, 승려의 도리를 지키며 줄곧 서천으로 향해 왔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다시 갚지는 못했을지언정, 물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불국토의 땅에 이르러 다행히 현명한 왕의 세 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저희에게 절을 하며 무예를 배우고 싶다고 청해 왔습니다. 그들이 저희의 제자가 되었으니, 곧 스

승님의 손주 제자와 다름없습니다. 스승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니, 부디 허락하여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당승은 매우 기뻐했다. 저팔계와 사오정도 손오공이 예를 갖추는 것을 보고는, 몸을 돌려 당승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스승님, 저희는 어리석고 말주변도 없어 말솜씨가 서툽니다. 바라옵건대 스승님께서 법좌에 높이 앉으시어, 저희 두 사람도 각자 제자를 하나씩 거두어 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서천으로 가는 길에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승은 이들의 말을 모두 흔쾌히 허락했다.

손오공은 세 왕자를 폭사정 뒤편의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강두(罡斗, 북두칠성 모양의 진)를 그렸다. 그리고는 세 왕자를 그 안에 엎드리게 한 뒤, 하나하나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는 남몰래 진언을 외우고 주문을 읊으며, 신선한 기운을 세 사람의 심장과 복부로 불어넣어 그들의 원신(참된 정신)이 몸 안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이어 비결을 전하며 각각 만 갈래의 힘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그 기운을 운용하는 법을 더하니 마치 뼈를 깎고 태를 바꾸는 탈태환골의 과정과도 같았다. 자오주천(몸 안의 기운을 한 바퀴 돌리는 법)을 따라 기운을 운용하고 나서야 세 왕자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세 사람은 얼굴을 닦아내며 기운차게 몸을 일으켰는데, 하나같이 골격이 튼튼하고 근육이 강건해져 있었다. 대왕자는 금고봉을 가뿐히 휘둘렀고, 이왕자는 구치저를 힘차게 돌렸으며, 삼왕자는 오유흑봉을 번쩍 들어 올렸다.

옥화왕은 그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즉시 소박한 잔치를 베풀어 당승과 그 제자 네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잔치 자리에서 세 왕자는 제자들에게 각자 배운 무예를 선보였다. 몽둥이를 배우는 왕자는 몽둥이를 휘둘렀고, 갈퀴를 배우는 왕자는 갈퀴를 휘둘렀으며, 지팡이를 배우는 왕자는 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들이 몇 바퀴 몸을 돌리며 여러 가지 초식을 보여주는 것은 했으나, 결국은 범인에 불과했다. 힘을 좀 써보려 해도 길을 조금만 움직이면 금세 숨을 헐떡이며 오래 버티지 못했다. 원래 순행자 일행의 병기는 변화무쌍하여, 나아가고 물러나거나 공격하고 방어할 때마다 길이가 마음대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묘리가 있었는데, 범인들이 어찌 단번에 그 경지에 미칠 수 있겠는가? 그날 잔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세 왕자가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신비로운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큰 힘을 나누어 주신 덕분에 스승님들의 병기를 휘두를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들에게 스승님들의 병기 모양을 본떠 무게를 줄인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하고 싶은데,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종고말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차피 우리 무기는 너희가 쓸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도 법을 수호하고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 몸에 맞는 무기가 따로 있어야 하거든. 어서 만들어 보거라."

왕자들은 즉시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으고 만 근의 강철을 사들였다. 그리고 왕부의 앞뜰에 작업장을 세워 화로를 갖추고 무기를 주조하기 시작했다. 첫날에는 강철을 뜨겁게 달구어 다듬었고, 다음 날에는 손 오공, 저팔계, 사오정 세 사람에게 금고봉과 구치저, 강요장을 꺼내어 작업장 가운데 놓아두게 하여 그 모양을 본떠 만들게 했다.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이 계속되었다.

아이고, 이 병기들은 원래 그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며 한시도 떼어 놓지 않던 보물이라, 각자 몸에 품고 있을 때는 저마다의 광채가 몸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대장간 마당에 며칠 동안 놓아두었더니, 노을 같은 빛은 만 갈래로 하늘을 찌르고 상서로운 기운은 천 가지 빛깔로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날 밤, 성에서 겨우 칠십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요괴가 있었다. 산 이름은 표두산이고 동굴 이름은 호구동인데, 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찌르는 빛과 땅을 덮는 상서로운 기운을 발견했다. 요괴가 즉시 구름을 타고 달려가 보니, 빛이 솟구치는 곳은 바로 왕부 안이었다. 요괴가 구름을 낮추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로 이 세 가지 병기가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괴는 기뻐하며 탐욕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귀한 보물이구나! 정말 귀한 보물이야! 대체 어떤 사람이 쓰는 물건인데 여기 놓여 있는 거지? 이것도 다 내 인연이니, 가져가자, 가져가야겠다!"

요괴는 마음이 움직이자마자 위세를 떨치며 세 가지 병기를 단숨에 몽땅 챙겨서 곧장 자신의 동굴로 돌아가 버렸다.

시로 이르되,

도(道)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참된 도가 아니로다. 신령한 병기마저 모두 헛되이 사라졌으니, 애써 수행한 자의 공이 다 부질없구나.

결국 이 병기들을 어떻게 되찾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9회 — 황사정이 헛된 잔치를 베풀고, 금목토의 계책으로 표두산을 소란케 하다

黃獅精虛設釘鈹宴 金木土計鬧豹頭山

제90회

사자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돌아가니 도둑질과 참선이 뒤섞여 구령원성이 고요해지리라

한편, 마당에 있던 대장장이들은 며칠 동안 이어진 고된 작업에 지쳐 밤사이 모두 잠이 들었다. 날이 밝아 일어나 일을 시작하려는데, 천막 아래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병기가 보이지 않았다. 대장장이들은 하나같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깜짝 놀라 사방을 살살이 뒤졌다. 그때 마침 세 왕자가 궁 밖으로 산책을 나왔고, 이를 본 대장장이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신사(神師)의 병기 세 가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왕자가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했다. "아무래도 스승님께서 오늘 밤에 다 챙겨 두신 모양입니다." 삼왕자가 급히 폭사정으로 달려가 살펴보니, 백룡마는 여전히 처마 밑에 서 있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스승님,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까?" 사오정이 대답했다. "일어나셨습니다." 사오정이 방문을 열어 왕자가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으나, 병기는 보이지 않았다. 왕자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물었다. "스승님의 병기들이 모두 거두어졌습니까?" 손오공이 경충 뛰어오르며 말했다. "아직 거두지 않았어." 왕자가 말했다. "세 가지 병기가 오늘 밤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팔계도 급히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내 갈퀴는 있느냐?" 왕자가 대답했다. "방금 저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앞뒤로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챙겨 두신 줄 알고 이제야 여쭙러 왔습니다. 스승님의 보물들은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 분명 제자들을 놀래켜 주려고 몸 가까운 곳에 숨겨 두셨을 겁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정말로 거두지 않았다. 다 같이 찾아보자꾸나."

마당 안 천막 아래까지 살살이 뒤져 보았으나, 역시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저팔계가 소리쳤다. "분명 이 대장장이 놈들이 훔친 게 틀림없어! 어서 내놓지 않으면 조금만 더 늦어도 다 때려죽여 버릴 테다, 때려죽일 테다!"

대장장이는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오리, 저희는 며칠 동안 고생하며 일하다가 밤에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

어나 보니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무거운 걸 옮기겠습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손오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한탄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양을 확인했으면 바로 몸에 지니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다 여기다 그냥 두었던 말인가. 그 보물들이 빛을 내뿜으며 찬란하게 빛나니, 분명 어떤 나쁜 놈이 그 빛을 보고 밤을 틈타 훔쳐 간 것이리라.'

하지만 저팔계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그것도 깊은 산속도 아닌 이런 곳에 웬 나쁜 놈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분명 대장장이 놈들이 욕심을 부리게 분명해요. 우리 병기가 워낙 번쩍거리고 귀해 보이니, 세 가지 보물인 줄 알고 밤사이에 왕궁을 빠져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다 같이 들고 끌고 가서 훔쳐 간 거라고요! 이놈들을 끌어다 때려죽여야 해요, 때려죽여야 한다고요!"

대장장이들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결백을 맹세할 뿐이었다.

한창 소란스러울 때, 노왕자가 나타나 앞서 일어난 일을 물었다. 그 역시 안색이 창백해진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의 병기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서, 백여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성을 다스린 지도 벌써 다섯 세대가 지났습니다. 제가 큰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름대로 현명하다는 명성도 쌓아왔고, 성 안의 군사와 백성, 장인들

도 제 법도를 두려워하니 감히 속임수를 쓸 자는 없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부디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다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대장장이들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전하께 여쭙겠습니다. 이 주성 사방에 혹시 요괴가 사는 산이나 숲이 있습니까?"

왕자가 대답했다.

"신선님의 질문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성 북쪽에 표두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속에 호구동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굴에 신선이 산다고도 하고, 호랑이나 늑대가 산다고도 하며, 또 요괴가 산다는 말도 합니다. 저도 아직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분명 그쪽 나쁜 놈들이 보물인 줄 알고 하룻밤 사이에 훔쳐 간 것이 분명하군요."

손오공은 이어서 외쳤다.

"팔계야, 사오정아! 너희는 여기서 스승님을 모시고 성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내가 가서 찾아보고 오겠다!"

그리고는 대장장이들에게도 화덕의 불을 끄지 말고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라고 일렀다.

손오공은 삼장법사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는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순식간에 몸을 날려 표두산에 도착했다. 성에서 산까지는 고작 삼십 리밖에 되지 않아 눈 깜짝할 사이에 닿을 수 있었다. 산봉우리에 올라 살펴보니 과연 요기가 서려 있었다. 참으로 대단한 풍경이었다.

시로 이르되, 용맥이 길게 이어져 지형이 웅장하고 광활하구나. 뽕족한 봉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았고, 가파른 골짜기에는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네. 산 앞에는 요요한 풀이 융단처럼 깔려 있고, 산 뒤에는 기이한 꽃들이 비단처럼 펼쳐졌구나. 키 큰 소나무와 오래된 측백나무, 고목과 곧게 뻗은 대나무가 가득한데, 산까마귀와 산까치가 어지러이 날며 울어대고 들학은 들원숭이도 울부짖는구나. 절벽 아래에는 노루와 사슴이 짝을 지어 다니고, 깎아지른 벽 앞에는 오소리와 여우가 짝을 이루어 노니네. 굽이굽이 이어지는 용의 기운이 땅속 맥을 타고 흐르며, 산등성이는 옥화주와 맞닿아 있어 만고에 변영할 명당이로다.

손오공이 한창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산 뒤편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고개를 돌려 보니 늑대 머리를 한 요괴 두 마리가 큰 소리로 떠들며 북서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들은 분명 산을 지키는 괴물들이로구나. 내가 따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나비 한 마리로 변신했다. 그리고는 날개를 펴고 나풀나풀 춤을 추듯 요괴들을 뒤쫓아갔다. 나비가 된 모습이 참으로 제법이었다.

시로 이르되, 분홍빛 날개에 은빛 수염을 달고, 바람을 타고 급히 날아가다 햇살을 받아 천천히 춤추네. 물을 건너고 담을 넘는 솜씨도 날렵하고, 꽃향기를 훔치며 버들가지 노니는 재미도 쏠쏠하구나. 몸이 가벼워 싱싱한 꽃향기를 좋아하니, 우아한 자태로 마음껏 날아다니네.

손오공은 요괴의 머리 위에서 너울너울 떠다니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요괴가 갑자기 외쳤다. "둘째 형님, 우리 대왕님께 정말 운수가 좋으십니다! 지난달에는 미인을 얻어 동굴 안에서 아주 즐겁게 지내시더니, 어젯밤에는 무려 세 가지 병기까지 얻으셨으니 그야말로 값진 보물 아납니까? 내일은 저팔계의 무기인 정자(釘鉈)를 얻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 테니, 우리도 한몫 챙길 수 있겠어요."

그러자 다른 요괴가 대답했다. "우리에게도 운이 따랐으니, 이 은자이십 냥을 가지고 돼지와 양을 사러 갑시다. 우선 건방집에 도착하면 술부터 몇 항아리 들이켜고, 물건들을 잘 꾸며서 이삼 냥 정도는 챙겨봅시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따뜻한 솜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요괴는 서로 웃고 떠들며 큰길을 따라 날쌔게 달려갔다.

손오공은 저들이 쇠갈퀴를 가져다 잔치를 벌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때려죽이고 싶었으나, 자신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인 데다 지금 손에 무기도 없었다. 손오공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채 길목에 우뚝 섰다. 요괴들이 손오공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걸어오자, 손오공은 입에서 법력을 담은 침을 튕고 내고 내뿜으며 "옴 흙 차리!"라고 주문을 외

왔다. 그러자 정지법이 발동되어 늑대 머리 요괴 두 마리가 그 자리에 딱 굳어버렸다.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을 깜빡일 수 없고, 입은 벌리고 있으나 입을 뗄 수 없었으며, 두 다리는 땅에 박힌 듯 꼳꼳하게 서 있었다. 손오공은 요괴들을 뒤집어 놓은 뒤 옷을 헤쳐 수색했다. 과연 은자 스무 냥이 나왔고, 작은 주머니 하나가 허리띠에 매달려 있었다. 또한 요괴들의 몸에는 각각 이름표가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 하나에는 '조찬 고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고괴조찬'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요괴의 은자 20냥과 이름표를 챙겨 들고 성으로 돌아왔다. 왕궁에 도착한 손오공은 삼왕자와 당삼법사, 그리고 여러 관리와 대장장이들을 만나 앞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그 요괴 놈들이 우리 스승님의 보물이 워낙 눈부시고 귀한 것이라, 돼지와 양을 사서 잔치를 벌이려고 가져간 모양이구먼. 그런데 어쩌다 우리 손에 걸려든 거지?"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리 삼 형제가 힘을 합쳐야 해. 이 은자는 돼지와 양을 사는 데 쓸 테니, 일단 대장장이들에게 상으로 주고 왕자님께 돼지와 양을 몇 마리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팔계, 너는 '조찬고괴'로 변신하고, 나는 '고괴조찬'으로 변신해라. 사오정은 돼지와 양을 파는 상인으로 변장해서 호구동으로 들어가자고. 기회를 봐서 각자 병기를 챙긴 뒤 요괴 놈들을 때려잡고 돌아오면, 그다음엔 다시 길을 떠나면 된다."

사오정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체할 것 없이 어서 갑시다."

노왕은 곧바로 이 계획을 따랐다. 그는 관리에게 명하여 돼지 일곱 여덟 마리와 양 네다섯 마리를 즉시 준비하게 했다.

세 사람은 스승님께 작별 인사를 올린 뒤, 성 밖에서 신통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저팔계가 물었다. "형님, 저 요괴 녀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통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요괴 놈들은 내가 정지법을 써서 묶어두었으니, 내일이맘때나 되어야 깨어날 게다. 놈들의 생김새는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니, 너는 거기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변신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놈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저팔계가 입으로 주문을 중얼거리자, 손오공이 입김을 한 번 불어넣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손오공의 모습이 요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변했고, 허리춤에는 이름표 하나를 찼다. 손오공이 요괴로 변하자 저팔계도 허리에 이름표를 차고 그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사오정은 돼지와 양을 파는 상인으로 변장했다. 세 사람은 돼지와 양을 몰고 큰길을 따라 곧장 산을 향해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작은 요괴 하나를 만났다. 그 생김새 또한 매우 흉악하니, 그 모습이 이러하다.

동그랗고 커다란 두 눈은 등불처럼 번쩍이고, 붉은 털이 숭숭 난 머리는 불꽃처럼 일렁인다. 뭉툭한 코에 찢어진 입, 뽀족하게 솟은 송곳니를 가졌으며, 귀는 잘려 나가고 이마는 깎인 듯한 모습에 얼굴은 푸르스름하게 부풀어 있다. 연한 노란색 옷을 입고 사포 신을 신었으니, 그 기세가 흥신과 같고 걸음걸이는 악귀처럼 급박하다.

그 요괴는 왼쪽 옆구리에 채색된 초대장 상자를 끼고는, 손오공을 향해 외쳤다. "고괴조찬, 너희 둘이 왔느냐? 돼지와 양은 몇 마리나 샀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여기 몰고 오는 게 그것 아니냐?"

요괴가 사오정을 보며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돼지와 양을 파는 손님이다. 받을 은자 몇 냥이 모자라서 마저 받으러 집까지 데려가는 길이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요괴가 말했다. "죽절산으로 가서 노대왕님께 내일 아침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청하러 가는 길이다."

손오공은 요괴의 말투를 받아 물었다. "모두 몇 분이나 청하는 것이냐?"

요괴가 답했다. "노대왕님을 상석에 모시고, 이 산의 대왕님과 두목들까지 합쳐서 대략 마흔 분이 넘을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팔계가 말했다. "그만 가자, 그만 가. 돼지와 양들이 다 흩어져 달아나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가서 그것들을 붙들어 두어라. 나는 이 초대장을 좀 보자고 해야겠다."

요괴는 일행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상자를 열어 초대장을 꺼내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이 펼쳐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삼가 술과 안주를 마련하여 쇠갈퀴(釘鉈)를 얻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자 하오니, 부디 산을 넘어 왕림하시어 함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면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삼가 조부이신 구령원성 노대인 어른께 올립니다. 문하 손황사 돈수백 배."

손오공은 다 읽고 나서 다시 요괴에게 돌려주었다. 요괴는 그것을 상자에 넣고는 곧장 동남쪽을 향해 올라갔다.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 저 초대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쇠갈퀴(釘鉈)를 얻은 것을 축하하는 잔치, 곧 정파회(釘鉈會)의 청첩이다. 이름은 '문하의 손황사(孫黃獅)가 머리 숙여 백 번 절하며 올립니다'라고 적혀 있구나. 초대받은 분은 구령원성 어른이시다."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황사라는 이름은 분명 금빛 갈기를 가진 사자가 변신한 요괴겠지요. 그런데 구령원성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군요."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건 딱 봐도 내 물건이 구먼!"

손오공이 물었다. "네 물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옛말에 '늙은 암돼지는 금빛 사자만 쫓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분명 내 먹잇감이 될 놈이라는 뜻이지요."

세 사람이 웃고 떠들며 돼지와 양을 몰고 가다 보니, 어느덧 호구동 입구가 보였다. 동굴 입구의 풍경은 이러했다.

산줄기는 푸른 빛을 머금고 둘러싸였고, 그 기운은 성안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깎아지른 푸른 절벽에는 덩굴이 엉켜 있고, 높은 낭떠러지에는 자형화가 피어 있었다. 깊은 나무 사이로 새소리 드높고, 꽃 그림자는 동굴 입구를 반기니, 무릉도원의 동굴이라 해도 손색없을 만큼 세 상일을 잊고 살기에 딱 좋겠구나.

동굴 입구에 가까워지자, 크고 작은 요괴들이 꽃나무 아래에서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 저팔계가 "허허" 소리를 내며 돼지와 양을 몰고 가자, 요괴들이 모두 달려 나와 맞이했다. 요괴들은 돼지를 잡는 놈, 양을 잡는 놈으로 나뉘어 일제히 짐승들을 묶어 넘어뜨렸다.

이 소란에 동굴 안의 요괴 왕이 놀라 십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와 물었다. "너희 둘이 왔느냐? 돼지와 양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돼지 여덟 마리, 양 일곱 마리를 가져왔으니 모두 열다섯 마리요. 돼지 값은 은 16냥이고, 양 값은 은 9냥이라 합쳐 총 25냥이요. 앞서 은 20냥을 받아 갔으니 아직 5냥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남은 돈을 받으러 따라온 손님이요."

요괴 왕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명령했다. "애들아, 은 5냥을 내어주어 저들을 보내라."

그러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 손님은 남은 돈을 받으러 온 것도 있지만, 잔치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기도 하오."

요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이 고약하고 게으른 놈 같으니! 물건을 사러 왔으면 사고 말 것이지, 어디서 잔치 구경 운운하며 지껄이느냐?"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주인장께서 귀한 보물을 얻으셨다니, 참으로 천하의 기이한 보물 아니겠소? 구경 좀 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나겠소?"

요괴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이 괴상한 놈이 정말 못됐구나! 이 보물은 옥화주 성안에서 가져온 것이란 말이다. 만약 이 손님이 구경하고 가서 성안에 소문을 내기라도 하면, 왕자가 찾아와 따지기라도 할 텐데 어찌하란 말이냐?"

손오공이 달랐다. "주인장, 이 손님은 건방짐 뒷동네 사람이라 성안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소. 성안 사람도 아닌데 무슨 소문을 내겠소? 게다가 이 손님도 배가 고프고 우리도 아직 식사를 못 했으니, 집에 있는 음식이라도 좀 대접하고 보내주면 어떻겠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작은 요괴가 은 5냥을 가져와 손오공에게 건넸다. 손오공은 그 은을 사오정에게 건네며 말했다. "손님, 돈을 받았으니 이제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식사나 좀 합시다."

사오정은 용기를 내어 저팔계, 손오공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층 대청에 이르니, 정중앙 탁자 위에는 구치정자(아홉 개의 이가 달린 쇠갈퀴)가 높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 빛이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다. 동쪽에는 여의봉이, 서쪽에는 향요장(요괴를 굴복시키는 지팡이)이 각각 놓여 있었다. 그때 요괴 왕이 뒤따라오며 말했다.

"손님, 가운데에서 빛이 나는 것이 바로 그 갈퀴입니다. 보시되, 나가서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 이것이 바로 물건을 보면 반드시 제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이치였다. 저팔계는 본래 성격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한 데다, 저 쇠갈퀴를 보자마자 무슨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팔계는 곧장 달려가 갈퀴를 낚아채더니, 제 본모습을 드러내고는 요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손오공과 사오정도 각자 무기를 들고 달려와 본래 모습을 드러냈고, 세 형제는 일제히 요괴를 몰아붙이며 난전을 벌였다.

당황한 요괴 왕은 급히 몸을 빼서 뒤로 물러나더니, 자루가 길고 날이 날카로운 사명도를 집어 들었다. 요괴는 천정(天井)으로 달려가 세 형제의 병기를 막아 세우며 서슬 퍼렇게 외쳤다. "네놈들은 대체 누구냐! 감히 가짜를 들이밀며 내 보물을 속이려 들다니!"

그러자 손오공이 욱설을 내뱉으며 맞받아쳤다. "이 도둑놈 같은 털뭉치 녀석! 나를 몰라보는구나. 우리는 동토의 성스러운 승려인 당삼법사의 제자들이다. 옥화주에 와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현명하신 왕께서 세 왕자에게 우리를 스승으로 모셔 무예를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병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무기를 새로 만들라고 시킨 것인데, 네놈이 밤중에 몰래 성에 들어와 훔쳐 가놓고는 오히려 우리가 가짜로 네 보물을 속였다고 하느냐? 어디 가지 말고, 우리 병기 세 자루로 매운맛 좀 제대로 봐라!"

요괴는 즉시 사명도를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싸움은 천정에서 시작되어 앞문까지 이어졌는데, 세 승제가 요괴 한 마리를 에워싸고 몰아붙이는 기세가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휘익휘익 휘두르는 몽둥이는 바람과 같고 두두둑 쏟아지는 쇠갈퀴는 비와 같구나 요괴를 잡는 지팡이 치켜드니 하늘엔 노을이 가득하고 사명도 뻗어 나가니 구름 속에 비단이 흐르네 마치 세 신선이 커다란 단약을 달이는 듯하여 불빛과 채색이 번쩍이니 귀신도 놀라리라 손오공은 위력을 떨치며 능력을 뽐내고 요괴는 보물을 훔치고도 무례하기 짝이 없네 천봉 저팔계는 신통력을 드러내고 대장 사오정은 용맹함이 더욱 아름답구나 형제들이 마음을 합쳐 기묘한 수를 쓰니 호구동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도다 요괴는 기세를 부리며 잔피를 부리지만 네 명의 영웅은 그에 맞설 만하구나 싸움은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이어져 요괴는 힘이 빠져 도저히 버티기 어렵도다

표두산에서 한참 동안 싸움을 이어가던 중, 요괴는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자 사오정을 향해 크게 외쳤다. “이 갈퀴를 받아라!” 사오정이 몸을 휙 움직여 피하자, 요괴는 그 틈을 타 동남쪽 바람이 부는 방향을 향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저팔계가 발을 재촉하며 쫓아가려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 예부터 '궁지에 몰린 놈은 쫓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그놈이 돌아올 길목을 미리 끊어 놓으면 그만이다.” 저팔계는 손오공의 말에 따랐다.

세 사람은 곧장 동굴 입구까지 달려가, 그곳에 있던 크고 작은 요괴 백여 마리를 모조리 때려죽였다. 알고 보니 그 요괴들은 모두 호랑이, 늑대, 표범, 표범 같은 맹수들과 말, 사슴, 염소 같은 짐승들이었다. 손오공이神通력을 부려 동굴 안에 있던 귀중품들과 때려죽인 짐승의 사체, 그리고 몰고 온 돼지와 양들을 모두 밖으로 실어 날랐다. 사오정은 마른 나무를 가져와 불을 피웠고, 저팔계는 두 귀를 부채처럼 휘둘러 바람을 일으키니, 순식간에 요괴의 소굴이 깨끗이 타버렸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물건들을 모두 챙겨 곧장 옥화주 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성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사람들도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 노왕과 왕자들, 그리고 당삼법사가 모두 폭사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손오공 일행이 죽은 짐승들과 돼지, 양, 그리고 흠친 물건들을 마당에 와르르 쏟아내며 나타났다. 그들은 일제히 외쳤다.

"스승님, 저희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자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당삼법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세 명의 어린 왕자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사오정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절은 나중에 해도 되니, 우선 가까이 와서 이 물건들을 좀 보시오."

왕자들이 물었다.

"이 물건들은 다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 호랑이와 늑대, 표범과 말, 사슴, 염소들은 모두 요괴가 된 짐승들입니다. 저희가 그놈들의 병기를 빼앗고 몽땅 몰아냈지요. 그 우두머리 요괴는 금빛 갈기를 가진 사자 요괴인데, 사명도라는 병기를 휘두르며 저희와 해가 저물 때까지 싸우더니, 결국 패배하여 동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희가 그놈을 끝까지 쫓지는 못했지만, 도망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요괴 무리를 소탕한 뒤, 놈들의 물건을 몽땅 찾아내어 가져온 것입니다."

노왕은 이 말을 듣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승리해서 돌아온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요괴가 나중에 보복하러 올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전하,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미 다 생각이 되어 있으니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반드시 요괴들을 뿌리 뽑아 없앤 뒤에야 길을 떠날 것이니, 결코 나중에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낮에 갔을 때, 얼굴이 푸르고 털이 붉은 작은 요괴 하나가 서신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내일 아침 정성껏 음식을 차려 놓고, 쇠갈퀴를 뺀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자 하오니, 부디 산을 넘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조부님이신 구령원성 노대인께 올립니다. 문하 손황사 배상.' 방금 패배한 요괴가 분명 조부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할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분명 저희에게 복수를 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끗이 쓸어버리겠습니다."

노왕은 감사를 표하며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식사를 마친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한편, 그 요괴는 과연 동남쪽을 향해 달려가 죽절산에 다다랐다. 그 산속에는 구곡반환동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동굴이 하나 있었다. 이 동굴의 주인인 구령원성은 바로 그 요괴의 할아버지였다. 요괴는 밤새 쉬지 않고 달려 오경 무렵(새벽녘)이 되어서야 동굴 입구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을 지키던 작은 요괴가 그를 보고 말했다. "대왕님, 어젯밤에 푸른 얼굴을 한 녀석이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를 오늘 아침까지 머물게 하시며 그와 함께 대왕님의 정파회(釘鈹會, 쇠갈퀴 축하 잔치)에 가시려던 참인데, 어찌 이리 이른 새벽부터 직접 오셨습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말하자면 길다. 말하자면 길어. 잔치는 다 틀려버렸단 말이다."

말을 마칠 때쯤, 안에서 푸른 얼굴의 요괴가 걸어 나오며 말했다. "대왕님, 어찌 오셨습니까? 큰 어르신께서 일어나시면 저와 함께 잔치에 가기로 하셨는데요."

요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그저 손사래를 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노요괴가 일어나 요괴를 안으로 불러들였다. 병기를 잃어버린 요괴는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뺨 위로 눈물을 쉼 새 없이 흘렸다.

노요괴가 말했다. "손주야, 네가 어제 서신을 보내 오늘 아침에 모임에 가려던 참인데, 네가 직접 여기까지 오다니 어찌하여 이토록 슬퍼하며 번뇌하고 있느냐?"

요괴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소손이 그저께 밤 달빛 아래를 거닐고 있는데, 옥화주 성 안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왕부 마당에 세 가지 병기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치침금정파(금니가 박힌 갈퀴), 하나는 보배 지팡이, 그리고 하나는 금고봉이었습니다. 소손은 그 즉시 신통력을 부려 병기를 가져온 뒤, '정파 축하 잔치'라 이름 붙이고 부하들에게 돼지와 양, 과일 등을 사 오게 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할아버님을 모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제 청안색 요괴를 보내 서신을 전한 뒤, 원래 돼지와 양을 사 오라 명했던 교찬 일행이 가축들을 몰고 오다가, 은자를 받으러 온 손님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 손님은 잔치에 꼭 참석하겠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소손은 혹시 밖으로 소문이 날까 봐 못 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가 고프다며 밥 좀 달라고 하기에 나중에 먹으라고 뒤로 보냈더니, 안으로 들어간 그자가 병기를 보고는 제 것이라 우기지 뭐니까!

그 세 놈은 병기를 하나씩 가로채더니 곧바로 본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명은 털이 숭숭 나고 입이 툭 튀어나온 중이었고, 한 명은 입이 길고 귀가 커다란 중이었으며, 또 한 명은 얼굴빛이 칙칙한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소리를 지르며 무턱대고 덤벼들었습니다. 소손이 급히 사명도를 들고 나가 맞서 싸우며 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놈들은 자신들이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당승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지나다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통행 문서를 바꾸어 쓰는데, 왕자들에게 붙잡혀 무예를 배우는 동안 저

병기들을 본떠 만든 것을 마당에 두었다가 제가 훔쳐 온 것이라며, 도리어 저를 탓하며 싸우려 들었습니다. 그 세 중이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 보통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손 혼자서는 그 세 명을 당해낼 수가 없어 결국 할아버님 계신 곳으로 패퇴하여 도망쳐 온 것입니다. 부디 칼을 뽑아 도와 그놈들을 잡아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할아버님께서 손주를 아끼시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요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놈이었구나. 내 손자야, 네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요괴가 물었다. "할아버님, 그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요괴가 대답했다. "입이 길고 귀가 큰 놈은 저팔계고, 얼굴빛이 어두운 놈은 사오정이다. 그 둘은 그나마 괜찮다만, 저 털이 숭숭 나고 천둥 같은 입을 가진 놈은 손오공이라고 하는 놈이다. 이놈은 신통력이 어마어마해서, 오백 년 전에는 천계에서 난동을 부려 십만 천병도 잡지 못했던 놈이란다. 남을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라, 산을 뒤엎고 바다를 헤집으며, 동굴을 부수고 성을 공격하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데는 도가 튼 놈이지. 네가 어찌 감히 그놈을 건드리느냐? 뭐, 됐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놈은 물론이고 옥화주 왕자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네 화를 풀어주마."

요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노요괴는 노사(猻獅)·설사·산예·백택·복리·단상 등 여러 손자(사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저마다 날카로운 무기를 하나씩 손에

들고 있었는데, 황사(黃獅)가 앞장서서 거친 바람을 일으키며 표두산 경계로 단숨에 달려갔다.

산에 다다르니 코를 찌르는 매캐한 불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조찬과 고괴 두 요괴가 "주공, 주공!" 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괴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 호통을 쳤다.

"네놈들이 진짜 조찬이냐, 아니면 가짜 조찬이냐?"

두 요괴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닦으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저희가 어찌 가짜겠습니까? 어제 아침 일찍 은자를 받아 돼지와 양을 사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산서 쪽 큰길을 지나는데, 웬 얼굴에 털이 덩수룩하고 입술이 툭 튀어나온 중놈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놈이 저희에게 침을 한 번 뱉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입도 떨어지지 않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놈에게 넘어져서 은자도 다 털리고 이름표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희 둘은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가 이제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불길이 아직 꺼지지도 않았고 집들은 죄다 타버렸으며, 주공과 다른 대장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이 불이 어떻게 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괴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샘솟듯 쏟아졌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하늘이 떠나가라 울부짖었다. 요괴는 원통해하며 소리쳤다.

"이 머리뺏뺏이 놈! 어찌 이토록 악독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내 동굴을 몽땅 태워버리고, 미인들도 불태워 죽이고, 재산과 식솔까지 모조리 앗아가다니. 아, 분하다! 정말 분하구나!"

그러자 노요괴가 원숭이 사자를 불러 요괴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현손아,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 일단 기운을 추스르고 성으로 가서 그 스님을 잡아 오너라."

하지만 요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대답했다.

"어르신, 제가 이 산을 다스려 온 세월이 하루 이틀인가요? 그런데 저 머리뺏뺏이 놈 때문에 전부 망가졌으니, 이제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요괴는 몸을 일으켜 돌 절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자결하려 했다. 눈사자와 원숭이 사자 등이 간곡히 말린 뒤에야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그때 요괴들은 그곳(표두산)을 버리고 모두 주성으로 달려갔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요괴들이 성 근처까지 바짝 다가왔다. 성 밖 각 관문 일대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집안 살림을 챙길 겨를도 없이 모두 주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으며, 성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이때 누군가 왕궁 안으로 급히 달려들어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왕자와 당삼장 일행은 마침 폭사정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큰일이 났다는 보고를 듣고는 문밖으로 나와 상황을 물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요괴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안개를 뿜어내며 거센 바람을 몰고 성 근처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노왕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이냐!"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저것들은 어제 패배한 호구동 요괴들이 동남쪽으로 도망쳐서, 구령원성이라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뿐입니다. 제가 형제들과 함께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방의 성문을 굳게 닫으라고 명하시고, 사람들을 뽑아 성을 지키게 하십시오."

왕자가 즉시 명령을 내려 네 곳의 성문을 모두 닫고 성벽 위로 병사들을 배치했다. 노왕과 그 아들들, 그리고 당삼장까지 모두 성루에 올라가 진영을 정비하니,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대포 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반면 손오공 세 사람은 구름과 안개를 반쯤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했다.

시로 이르되,

"부주의하여 지혜의 병기를 잃으니, 갑작스레 마물이 일어나 사악한 무리가 몰려오는구나."

결국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0회 — 스승과 제자가 법을 전수하여 하나로 돌아가고, 도를 흠치고 선에 얹매 여 아홉 영혼이 고요해지다

師獅授受同歸一 盜道纏禪靜九靈

한편, 손오공이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성벽 위로 나가 요괴들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니, 요괴 무리가 온통 잡스러운 사자 놈들이었다. 황사정이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있었고, 왼쪽에는 산예사와 단상사가, 오른쪽에는 백택사와 복리사가 자리 잡았다. 그 뒤로는 노사와 설사가 따르고 있었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구두사자가 버티고 있었다. 청안괴는 비단에 둥근 꽃무늬를 화려하게 수놓은 보당(寶幢, 깃발)을 들고 구두사자 곁에 바짝 붙어 있었고, 조찬고괴와 고괴조찬은 붉은 깃발 두 폭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감궁 땅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저팔계가 앞뒤 가리지 않고 성큼 다가서며 욕을 퍼부었다. "보물을 훔쳐 간 도둑 요괴 놈아! 너는 대체 어디서 이런 털뭉치 몇 놈을 끌어들여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는 게냐?"

그러자 황사정 요괴가 이를 갈며 맞받아쳤다. "이 무지막지한 까까 머리 중놈 같으니라고! 어제는 너희 셋이 나 하나를 상대했고, 내가 패해 물러나면서 너희를 사람 대접해 그냥 넘어가려 했더니, 네놈이 어찌 이리 악랄하단 말이나! 내 동굴을 태우고, 내 산을 망가뜨리고, 내 식구들까지 다치게 하다니! 너와 나 사이의 원한이 바다처럼 깊으니, 어디 가지 말고 이 어르신 의 사명찬(쇠삽) 맛을 좀 봐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팔계가 구치저를 치켜들고 맞서 나갔다. 두 사람이 맞붙어 승부를 가리기도 전에, 노사 요괴는 철질려를 휘두르고 설사 요괴는 삼릉간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저팔계가 크게 외쳤다. "좋다, 와라!"

이때 사오정도 급히 강요장을 움켜쥐고 다가와 싸움을 도왔다. 이어 산예사, 백택사, 그리고 단상사와 복리사 요괴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손오공은 금고봉을 휘둘러 요괴들을 막아섰다. 산예사는 몽둥이를, 백택사는 구리 망치를, 단상사는 강철 창을, 복리사는 큰 도끼를 휘둘렀다. 일곱 마리 사자 요괴와 세 명의 용맹한 승려가 맞붙어 싸우니 그 기세가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봉과 망치, 창과 도끼에 삼릉간까지 휘날리고 철질려와 골타, 사명찬까지 어지러이 움직이네. 일곱 사자 일곱 무기 날카로운 기세로 세

승려를 에워싸고 함성 소리 드높구나. 대성의 금고봉은 흥맹하고 사오정의 보물 지팡이는 세상에 드물도다. 팔계는 바람을 일으키며 위세를 떨치고 구치저는 번쩍이며 서슬 퍼런 빛을 내뿜네. 앞을 막고 뒤를 가로막으며 제 숨씨를 발휘하니 왼쪽과 오른쪽 모두 용맹하기 그지없구나. 성벽 위 왕자들은 기운을 북돋우고 북과 징 소리는 용기를 더해주네. 법술을 부려 주고받으며 싸우니 천지가 뒤집힐 듯 혼란스럽도다.

요괴 무리와 손오공 일행은 반나절 동안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저팔계는 입에서 끈적한 침을 흘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자, 구치저를 휘두르는 척하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그때 설사 요괴와 노사 요괴가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한 대 맞아봐라!"

정신이 없던 저팔계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등짝을 삼릉간에 정통으로 맞더니, 땅바닥에 뺨어 누워 "아이고, 이제 다 틀렸구나!"라며 신세한탄을 했다. 두 요괴는 저팔계의 갈기와 꼬리를 붙잡아 짊어지고 구두사자에게 끌고 가며 보고했다. "조상님, 저희가 놈 하나를 잡아 왔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오정과 손오공마저 싸움에서 밀렸고, 요괴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씹어 뱉으며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수십 명의 작은 손오공들이 나타나 백택, 산예, 단상, 복리, 그리고 금모사자를 겹겹이 에워쌌다. 그 틈을 타 사오정과 손오공도 다시 앞으로 달려들어 공격을 퍼부었다. 결국 밤이 되자 산예와 백택은 붙잡았으나, 복리와 단상은 놓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금모사자가 요괴 우두머리에게 보고했다. 우두머리는 사자 두 마리를 놓친 것을 보고는 이렇게 명령했다.

"저팔계를 쫑쫑 묶어 두되, 목숨은 해치지 마라. 저들이 내 사자 두 마리를 돌려주면 그때 저팔계를 내주도록 해라. 만약 저들이 분별없이 내 사자 두 마리를 죽인다면, 그 즉시 저팔계를 죽여 목숨값으로 갚아라." 그날 밤, 요괴들은 성 밖에서 잠을 청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는다.

한편, 손오공이 두 사자 요괴를 성문 근처까지 끌고 오자, 옥화왕은 즉시 성문을 열라고 명했다. 왕은 이삼십 명의 교위를 보내 밧줄로 요괴들을 쫑쫑 묶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했다. 손오공은 법술로 돌아났던 털을 거두어들이고 사오정과 함께 성루로 올라가 당삼장을 만났다.

당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번 일은 정말 위태롭구나. 팔계의 목숨은 무사한지 모르겠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요괴 두 놈을 잡아왔으니 감히 팔계를 해치지는 못할 겁니다. 우선 이놈들을 단단히 묶어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팔계와 교대하도록 하지요."

그때 세 명의 왕자가 손오공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스승님, 아까 싸우실 때는 분명 몸이 하나뿐이었는데, 잠시 지는 척하며 돌아가시더니 어찌하여 갑자기 수십 명의 분신이 나타난 것입니까? 요괴를 잡아 성 근처로 올 때도 다시 몸이 하나뿐이셨는데, 이것이 대체 어떤 법력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 몸에는 팔만 사천 개의 털이 있다. 하나를 열로 만들고, 열을 백으로 만드는 등 수만, 수억 가지로 변하는 것은 모두 내 몸을 나누는 분신술이란다.”

왕자들은 일제히 손오공에게 절을 올리고는 즉시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와 성루에서 함께 먹었다. 성벽 곳곳에는 등롱과 깃발이 세워지고, 북과 징, 팽과리가 울려 퍼졌으며, 경비병들이 교대로 순찰하며 신 호용 화살을 쏘고 함성을 질러 성 안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날이 다시 밝았다. 요괴가 황사정을 불러 계책을 내렸다. “너희는 오늘 행자와 사오정을 잡는 데 온 힘을 다해라. 나는 몰래 하늘을 날아 성으로 들어가, 저들의 스승과 옥화왕 부자를 먼저 잡아 구국반환동으로 데려가겠다. 그러고서 너희가 승리하여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다.” 황사정은 명을 받들고 노사, 설사, 단상사, 복리사를 거느리고 각자 병기를 든 채 성문 앞으로 달려가, 거센 바람과 짙은 안개를 일으키며 싸움을 걸어왔다.

이때 손오공과 사오정이 성벽 위로 뛰어올라 호통을 쳤다. “이 고약한 요괴 놈들아! 내 사제 저팔계를 어서 돌려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뼈도 못 추리게 박살 내주마!” 요괴들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손오공과 사오정 형제는 각자 기지를 발휘하여 다섯 사자 요괴를 막아섰다. 그 싸움의 기세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했다.

시로 이르되,

휘몰아치는 광풍은 땅을 휩쓸고 질게 깔린 검은 안개 하늘을 가리네. 날아오는 돌과 모래는 신과 귀신도 겁내고 쓰러지는 나무와 숲은 호랑이와 이리도 놀라게 하네. 강철 창과 도끼는 번뜩이며 매섭게 휘돌리고 가시 돋친 병기들은 독하게 몰아치는데 행자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싶어 하고 사오정마저 산 채로 잡아 가두려 하네. 손오공의 여의봉은 자유자재로 휘둘러지고 사오정의 강요장 또한 영소전 밖까지 이름을 떨쳤네. 오늘 펼치는 신통력으로 서역의 요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려 하도다.

다섯 마리 사자 요괴와 손오공, 사오정이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요괴가 검은 구름을 타고 성루로 단숨에 날아올랐다. 그가 머리를 한 번 흔들자, 성 위의 문무백관과 수비병들이 모두 성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요괴는 성 안으로 들이닥쳐 입을 크게 벌리고 당삼장과 옥화왕 일가를 한꺼번에 물어버렸다. 이어 감궁 지하로 내려가 저팔계까지 입에 물었다.

알고 보니 이 요괴는 아홉 개의 머리에 입도 아홉 개나 있었다. 한 입으로는 당삼장을, 한 입으로는 저팔계를, 한 입으로는 옥화왕을, 한 입으로는 큰 왕자를, 한 입으로는 둘째 왕자를, 한 입으로는 셋째 왕자를 물었다. 이렇게 여섯 입으로 여섯 사람을 물고도 세 입이 남았다. 요괴는 크게 소리치며 외쳤다. "나는 먼저 간다!" 다섯 사자 요괴는 우두머리가 승기를 잡은 것을 보고는 저마다 더욱 기운을 내어 날뛰었다.

손오공은 성 위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는, 요괴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사오정을 불러 주의를 기울이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팔에 난 털을 모조리 뽑아 입에 넣고

씹어 뱉어내더니, 수천수백 명의 손오공 분신을 만들어 한꺼번에 몰아 붙였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원숭이 사자를 넘어뜨리고 설사(눈사자)를 산 채로 잡아냈으며, 코끼리를 잡는 사자와 복리사를 힘으로 쓰러뜨렸다. 황사자까지 때려죽이며 요괴들을 성 아래까지 몰아붙여 호통을 쳤다. 그 와중에 청안괴와 교활하고 괴상한 놈들, 그리고 괴상하고 교활한 놈들까지 세 요괴는 겨우 도망쳤다. 성 위의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는 성문을 열어, 붙잡힌 다섯 사자 요괴를 밧줄로 꿰뚫어 성 안으로 들여보냈다.

사태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왕비가 울며불며 손오공에게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다. “신선님, 제 남편과 아들들이 스승님과 함께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 외로운 성을 이제 어찌하면 종단 말입니까?”

손오공은 법술로 만든 털들을 거두어들이고 왕비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왕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일곱 사자 요괴를 잡아왔으니, 저 늙은 요괴가 요술을 부려 스승님과 왕실 가족들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분명 다치지는 않았을 테니, 내일 아주 이른 아침에 저와 제 형제가 산으로 가서 반드시 저 늙은 요괴를 잡아 왕자 네 분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비와 여인들은 모두 손오공에게 절하며 말했다. “부디 왕자님과 가족들의 무사함과 나라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궁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은 관리들에게 명령했다. “때려죽인 황사자는 가죽을 벗겨 두고, 살아있는 여섯 사자 요괴는 밧줄로 단단히 묶어 두시오. 우리도 채식한 음식을 좀 가져오게나. 먹고 좀 자 두어야겠소. 다들 안심하고 계시오. 아무 일 없도록 지켜줄 테니.”

다음 날,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상서로운 구름을 타게 하여 함께 길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절산 봉우리에 도착했다.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니 웅장한 산세가 눈 앞에 펼쳐졌다.

시로 이르되,

봉우리는 우뚝 솟아 있고 고개는 험하고 가팔라라. 깊은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가파른 절벽 앞에는 꽃들이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겹겹이 둘러선 산봉우리 사이로 옛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니, 학이 날아오면 소나무가 벗이 되고, 구름이 지나가면 바위는 의지할 곳 없네. 영리한 원숭이는 햇살 아래 열매를 찾고, 사슴은 따스한 날에 꽃을 찾아 즐거워하네. 푸른 새는 지저귀고 노란 새는 다정하게 노래하며, 봄에는 복숭아와 오얏꽃이 다투어 피고, 여름에는 버들과 회나무가 무성하구나. 가을에는 국화가 비단처럼 펼쳐지고, 겨울에는 흰 눈이 솜처럼 날리니,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신선이 사는 영주국과 다를 바 없네.

두 사람이 산봉우리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얼굴이 푸른 작은 요괴 하나가 짧은 몽둥이를 손에 쥐고 절벽 골짜기 사이로 달려 나가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크게 외쳤다. "게 서라! 이 몸이 간다!" 그 소리에 요괴는 몸을 굴리며 골짜기 아래로 달아났다. 두 사람

이 줄곧 뒤쫓았으나 요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무늬가 있는 돌문 두 개가 짝 닫힌 동굴 하나가 나타났다. 문 위에는 커다란 돌판이 가로로 박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만령 죽절산, 구곡반환동'이라는 열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요괴는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가 동굴 문을 닫아걸었다. 그러고는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 늙은 요괴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밖에 스님 두 명이 또 나타났어요.” 늙은 요괴가 물었다. “네 대왕님과 원숭이 사자, 눈사자, 코끼리 사자, 너구리 사자가 왔느냐?” 요괴가 대답했다. “아니요, 안 왔어요. 그냥 스님 두 명이 산봉우리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치려는데, 그들이 쫓아오길래 얼른 문을 닫고 들어온 거예요.” 늙은 요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한참이 지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 툭 흘리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비참하구나! 나의 황사자 손이 죽고, 원숭이 사자 일행도 모두 스님들에게 붙잡혀 성안으로 끌려갔으니, 이 원한을 대체 어떻게 갚는단 말이냐!”

한편, 저팔계는 옆에 묶인 채 옥화왕과 왕자들, 그리고 당삼장과 함께 한데 뒤엉켜 겁에 질린 채 고초를 겪고 있었다. 요괴가 스님들이 제 동료들을 성안으로 잡아갔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저팔계는 속으로 꽤 재를 불렀다. ‘스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전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형께서 이미 승리하여 요괴들을 다 잡아 가두었으니, 곧 이곳을 찾아와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저팔계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시 요괴의 외침이 들려왔다. “애들아, 여기서 잘 지키고 있거

라! 내가 나가서 저 스님 두 놈을 잡아온 뒤에 아주 호되게 혼내줄 테 니!”

그 요괴를 보니 몸에 걸친 갑옷도 없고 손에 든 무기도 없었으나,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오더니 손오공이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요괴는 대답도 없이 동굴 문을 활짝 열고는 곧장 손오공에게 달려들었다. 손오공이 금고봉을 휘둘러 머리 위를 막아냈고, 사오정도 향요장(보장)을 휘두르며 함께 공격했다. 그러자 요괴가 머리를 흔드는데, 좌우로 달린 여덟 개의 머리가 일제히 입을 벌리더니 손오공과 사오정을 가볍게 물어 동굴 안으로 삼켜버렸다. 요괴가 명령했다. "뱃줄을 가져오너라."

어젯밤 겨우 살아 돌아온 괴상하고 교활한 요괴와 청안괴가 곧장 뱃줄 두 줄을 가져와 두 사람을 꽂꽂 묶었다. 요괴가 물었다. "이 망할 원숭이 놈아, 감히 내 일곱 손주를 잡아갔느냐? 이제 내가 너희 스님 네 명과 왕자 네 명을 붙잡았으니 내 손주들의 목숨값으로는 충분하겠구나. 애들아, 가시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골라와서 이 원숭이 머리를 좀 두들겨 패주어라. 우리 황사손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세 마리 작은 요괴가 각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손오공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미 단련된 대로 단련된 몸이라, 그 짖 버드나무 가지는 그저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손오공은 요괴들이 어떻게 때리든 전혀 개의치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저팔계와 당삼장, 그리고 왕자들은 모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겁에 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졌고, 해가 저물 때까지 매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계속되었다. 사오정이 한참을 지켜보다가 못 견디겠다는 듯 말했다. "내가 대신 저놈을 백 대 정도 때려줄까요?" 그러자 요괴가 대답했다. "서두르지 마라. 내일은 네 차례가 될 테니, 한 명씩 차례대로 때려줄 것이다." 저팔계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럼 모레는 이 저팔계 차례가 되겠군요!"

한참을 때리다 보니 어느덧 하늘이 어둑어둑해졌다. 요괴가 명령했다. "얘들아, 그만하고 불을 밝혀라. 너희는 먹을 것을 좀 챙겨 먹고, 나는 금운와에 가서 잠시 눈 좀 붙이겠다. 너희 세 놈은 이미 고생을 좀 해봤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때려라."

세 작은 요괴가 등불을 옮겨다 놓고는 다시 버드나무 가지로 손오공의 머리를 두들겼다. 마치 타악기를 치는 것처럼 '틱틱, 탁탁' 소리를 내며 빠르게 몇 번 때리다가 느릿하게 몇 번 때리기를 반복했다. 밤이 깊어지자 요괴들도 하나둘 졸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곧바로 도술을 부려 몸을 아주 작게 줄인 뒤 밧줄을 빠져 나왔다. 그러고는 몸을 한 번 털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귀 속에서 금고봉을 꺼내 휘둘렀다. 봉은 물통만큼 굵고 길이는 두 길(약 6미터)이나 되었다. 손오공이 세 마리 작은 요괴를 향해 말했다.

"이 못된 짐승 놈들아, 네놈들이 이 어르신을 그렇게 술하게 두들겨팼다만, 이 몸은 여전히 멀쩡하다. 나도 이 몽둥이로 너희를 좀 짓이겨 줄 테니, 어디 한번 당해 보아라!"

손오공이 세 요괴를 가볍게 휘둘러 내리치자, 요괴들은 순식간에 고기떡처럼 짓뭇개졌다. 그러고는 다시 등불을 밝혀 사오정을 풀어주었다. 한편, 밧줄에 꼬꽂 묶여 있던 저팔계는 손발이 너무 조여 견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내 손발이 다 부어올랐단 말이야! 왜 나부터 안 풀어주는 거야?"

이 어리숙한 저팔계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만 요괴를 깨우고 말았다. 요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누가 [죄인들을] 풀어주고 있느냐!"

그 소리를 들은 손오공은 등불을 입으로 훑 붙어 꺼버렸다. 그러고는 사오정 일행을 챙길 겨를도 없이 철봉을 휘두르며 여러 겹의 문을 부수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 요괴가 중당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이놈들아, 왜 등불이 꺼져 있느냐? 설마 사람이 도망이라도 간 것이냐?" 한 번 소리쳤으나 대답하는 이가 없었고, 다시 한 번 소리쳐 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요괴가 등불을 가져와 살펴보니, 바닥에는 피가 낭자한 고기 덩어리 세 덩이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옥화왕 부자와 세 왕자, 그리고 당승과 저팔계가 모두 그곳에 있었으나, 손오공과 사오정만은 보이지 않았다. 불을 밝혀 앞뒤로 살피니, 사오정이 복도 아래에 등을 기댄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요괴는 사오정을 덥석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예전처럼 꼬꽂 묶어 버렸다. 이어 손오공을 찾아보았으나, 문들이 몇 겹이나 부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손오공이 문을 부수고 도망쳤음을 직감했

다. 그러나 요괴는 굳이 뒤쫓지 않고, 부서진 문을 고치고 가려내며 제 재산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한편, 손오공은 구곡반환동에서 나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곧장 옥화주로 향했다. 성벽 위에서는 각지의 토지신과 여러 신령, 그리고 성황신들이 허공에서 그를 맞이하며 절을 올렸다. 손오공이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오늘 밤에서야 나를 맞이하는 것이냐?"

성황신이 대답했다.

"저희 신들은 대성께서 옥화주로 내려오신 줄은 알았으나, 현명하신 왕께서 정중히 머물러 달라고 청하셨기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왕께서 요괴를 만나 고초를 겪고 계신다는 소식에, 대성께서 마귀를 물리치러 오신 것을 알고 특별히 마중 나온 것입니다."

손오공이 막 꾸짖으려던 찰나, 금두계제와 육갑육정 신장들이 한 명의 토지신을 붙잡아 앞에 무릎을 꿇린 채 다가왔다. 그들이 말했다.

"대성, 저희가 이 땅의 귀신을 잡아 왔습니다."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죽절산에서 우리 스승님을 지키고 있어야 할 처지에, 어찌하여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정갑신이 대답했다.

"대성, 그 요괴가 대성께서 도망치신 뒤에 다시 사오정을 붙잡아 묶어 두었습니다. 저희가 보니 그 요괴의 법력이 워낙 막강하여, 죽절산의 토지신을 이곳까지 압송해 왔습니다. 이 토지신이 요괴의 근본을 알고 있으니, 대성께서 한 번 물어보신다면 요괴를 다스려 성스런 스승님과 왕의 고통을 덜어줄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토지신은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그 늙은 요괴는 재작년에 죽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곡반환동은 본래 여섯 마리 사자의 소굴이었는데, 그 여섯 사자가 이 늙은 요괴를 이곳으로 모셔온 뒤로는 모두 그를 조상님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 조상님은 머리가 아홉 개 달린 사자로, 이름은 구령원성이라 합니다. 만약 그를 멸하려면 반드시 동극묘암궁으로 가서 그 주인을 모셔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를 굴복시킬 수 있지, 다른 이는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동극묘암궁이라면 태을구고천존이 계신 곳이구나. 그분의 수하에 바로 머리가 아홉 달린 사자가 있다는 말이로군."

그리고는 명령했다.

"계제와 금갑은 토지신과 함께 돌아가서, 몰래 스승님과 사제, 그리고 왕과 왕자 부자를 보살펴라. 이곳의 성황신은 성 안을 잘 지키도록 해라."

신들은 모두 명을 받들어 각자의 자리로 물러갔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밤낮없이 달려 나갔다. 인시(寅時, 새벽 3시~5시 사이)쯤 되자 동천문 밖에 이르렀는데, 마침 광목천왕과 천정, 역사들이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멈춰 서서 손을 맞잡고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손오공이 그들에게 예를 올린 뒤 대답했다. “묘암궁에 좀 다녀오려고 하오.” 천왕이 물었다. “서천으로 가는 길은 두고, 어찌하여 동천까지 오셨소?” 손오공이 말했다. “옥화주에 갔다가 그곳 왕의 환대를 받았소. 왕이 세 아들을 보내 우리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예를 배우게 하려는데, 뜻밖에도 사자 요괴 무리를 만났지 뭐요. 알고 보니 묘암궁의 태을구고천존께서 그 요괴들의 주인이라기에, 그분을 모셔와 요괴를 굴복시키고 스승님을 구하러 왔소.” 천왕이 말했다. “그쪽에서 자네가 스승 노릇을 하려 하니, 사자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온 모양이구려.”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 때문이라오, 바로 그 때문이지요.” 천정들과 역사들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며 예를 갖추었다. 손오공이 동천문을 지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묘암궁 앞에 도착하니, 그 모습이 이러했다.

채운은 겹겹이 쌓이고 자줏빛 기운이 무성하며, 기와는 금빛 물결처럼 일렁이고 문 앞에는 옥으로 만든 짐승들이 위엄 있게 늘어서 있다. 꽃은 궁궐 양옆에 가득하고 붉은 노을이 감돌며, 햇빛은 숲을 비추고 푸른 안개가 휘감고 있다. 과연 만 가지 진리가 에워싸고 천 명의 성인이 흥성하는 듯하구나. 전각은 층층이 비단처럼 아름답고 창문과 처마는 곳곳이 탁 트여 있다. 푸른 용이 감싸 안은 듯 신령한 빛이 온화하

고, 황금빛 광채와 상서로운 기운이 짙게 깔려 있다. 이곳이 바로 청화장락계의 동극묘암궁이다.

궁문 앞에는 무지갯빛 옷을 입은 선동 하나가 서 있었다. 그가 손오공을 보자마자 급히 궁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할아버님, 밖에서 천궁을 어지럽혔던 제천대성이 오셨습니다!” 태을구고천존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시위와 신선들을 불러 맞이하게 했다. 궁 안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천존은 수많은 상서로운 빛을 발하며 아홉 빛깔 연꽃 좌석에 높이 앉아 있었다. 천존은 손오공을 보고 자리에서 내려와 그를 맞이했다. 손오공이 정중히 예를 올리자, 천존이 답례하며 말했다. “대성, 몇 년 만이구려. 듣자하니 도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여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간다던데, 이제 수행을 다 마친 것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수행을 다 마치는 못했지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승을 모시고 옥화주에 갔다가 왕자의 초대를 받았습시다. 왕자가 세 아들을 보내 저희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예를 배우게 하려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의 신병기 세 자루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밤사이에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찾아보니 표두산 호구동에 사는 금모사자 요괴가 훔쳐 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피를 내어 그것을 되찾으려 하자, 그 요괴가 사자 무리를 거느리고 저와 크게 싸우더군요. 그중 아홉 머리를 가진 사자 요괴가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저희 스승님과 저팔계, 그리고 옥화왕 일가 네 사람을 입으로 물어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죽절산 구곡반환동으로 가버렸지요. 다음날 저와 사오정이 뒤쫓아 갔지만, 저희도 함께 붙잡혀 갔습니다. 저는 그놈들에게 수없이 묶이고 매를 맞았지만, 다행히 법술을 써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그곳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곳 토지

신에게 물어보니 천존께서 그들의 주인이라기에, 특별히 천존께 청하여 요괴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해내고자 찾아왔습니다.”

태을구고천존이 그 말을 듣고는 즉시 신선 장수들을 시켜 사자 방으로 가서 사자 노비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사자 노비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장수들이 밀고 흔든 뒤에야 겨우 잠에서 깨어 중청으로 끌려와 천존 앞에 섰다.

천존이 물었다. "사자 짐승은 어디에 있느냐?"

노비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는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빌 뿐이었다.

천존이 말했다. "손 대성이 여기 있으니 일단 너를 때리지는 않겠다. 어찌하여 조심하지 않고 구두사자를 놓쳐버렸는지 어서 말하라."

노비가 대답했다. "주인님, 엿그제 대천감로전에서 술병 하나를 보았는데, 저도 모르게 몰래 가져다 마셨습니다. 그러다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밧줄을 제대로 매지 못해 놓치고 말았습니다."

천존이 말했다. "그 술은 태상노군께서 보내신 '윤희경액'이라는 술이다. 그것을 마셨으니 사흘은 깨어나지 못할 만큼 취했을 터인데, 그 사자 짐승은 도망간 지 며칠이나 되었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토지신 말씀으로는, 그놈이 재작년에 내려왔으니 지금으로선 2,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천존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렇고말고. 천계에서의 하루가 인간 세상에서는 1년인 법이지."

이어 천존이 노비에게 말했다. "이제 일어나거라. 죽을죄를 면해주마. 나를 따라 대성과 함께 가서 그놈을 잡아오자꾸나. 다른 신선들은 모두 돌아가라, 따라올 필요 없다."

태을구고천존은 손오공, 그리고 사노와 함께 구름을 타고 죽절산에 이르렀다. 그곳에 가보니 오방의 계제신들과 육정육갑신, 그리고 그 산을 지키는 토지신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마중을 나오고 있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대들이 보살펴 주었다면, 우리 스승님께 혹시 상처라도 입히지는 않았는가?"

신들이 대답했다. "요괴가 화가 나서 잠이 들어버린 까닭에, 아직 아무런 형벌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을구고천존이 말했다. "나의 구령원성도 오랫동안 수행하여 도를 깨우친 참된 영물이다. 그가 한 번 크게 울부짖으면 위로는 삼성(三聖)에게까지 통하고 아래로는 구천(九泉)까지 사무치지만, 평소에는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손 대성, 그대가 먼저 그의 문 앞까지 가서 싸움을 걸어 그를 밖으로 유인해 보아라. 그래야 내가 그를 거두어들이 수 있겠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금고봉을 휘두르며 동굴 입구로 뛰어올라가 크게 꾸짖었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어서 사람을 내놓아라! 이 요괴 놈아, 어서 사람을 내놓으란 말이다!"

손오공이 연달아 몇 번을 소리쳤으나, 잠들어 있던 요괴는 대답이 없었다. 성미 급한 손오공은 철봉을 휘두르며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요괴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싸우자!"

요괴는 고개를 흔들더니 입을 크게 벌려 물어뜯으려 했다. 손오공은 재빨리 몸을 돌려 밖으로 뛰어 나갔다. 요괴가 밖까지 쫓아 나와 욕을 퍼부었다.

"이 도둑 원숭이 놈아, 어디를 가느냐!"

손오공은 높은 절벽 위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네놈이 어찌 이리도 겁도 없이 무례하냐! 네놈은 네 죽음이 닥친 줄도 모르는구나. 네 주인이 바로 여기 계시지 않느냐!"

요괴가 절벽 앞까지 쫓아왔을 때, 이미 태을구고천존이 주문을 외우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구령원성아, 내가 왔다!"

요괴는 그 목소리가 주인의 것임을 알아보고는 감히 저항하지 못한 채, 네 발을 땅에 엮드리고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그때 곁을 지나가

던 사노가 요괴의 목덜미 털을 움켜쥐더니, 주먹으로 백 번 넘게 두들겨 패며 욕을 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어찌 몰래 도망쳐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

사자 요괴는 입도 뻥긋 못 하고 감히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다. 사노는 손이 아플 정도로 때리고 나서야 멈추더니, 요괴의 몸에 비단 안장을 엮었다. 천존이 사자에 올라타 가라고 명령하자, 사자는 몸을 날려 채운을 타고 곧장 동극묘암궁으로 향했다.

손오공은 허공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곧장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먼저 옥화왕을 풀어주고, 그다음 당삼장을, 이어서 저팔계와 사오정, 그리고 세 왕자까지 차례로 구해냈다. 그러고는 동굴 안의 물건들을 살살이 뒤지며 천천히 살펴본 뒤, 모두를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저팔계는 마침 마른 장작을 한 움큼 집어 들더니 앞뒤로 쌓아 올리고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구곡반환동은 검게 그을린 깨진 기와 조각처럼 타버렸다. 손오공은 신령들을 모두 돌려보내면서 토지신에게 이곳을 지키라고 명했다. 또한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법술을 써서 옥화왕과 왕자들을 등에 업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손오공은 당삼장을 부축하며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성(州城)에 도착하니 날이 점차 저물어 가고 있었다. 이에 왕비와 관리들이 모두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고,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승과 제자들은 폭사정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고, 왕자들은 궁궐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하룻밤가량 아무 일 없이 평온한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옥화왕이 다시 명을 내려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온 관청의 크고 작은 관리들이 하나둘 모여 은혜에 감사 인사를 올렸다. 이때 손오공이 백정들을 불러다가 살아있는 사자 여섯 마리와 황사자를 모두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는 나중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다.

옥화왕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명령을 내렸다. "사자 한 마리는 우리 부의 안팎 사람들이 먹도록 남겨두고, 한 마리는 왕부의 장사 등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나머지 다섯 마리는 한 점이 한두 냥 정도가 되도록 잘게 썰어서, 교위들을 시켜 성 안팎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그들이 맛도 보고, 또 이 무시무시한 일을 겪으며 놀란 마음을 달래게 하려는 것이니 말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의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놀라운 광경을 우러러보며 구경하였다.

한편, 대장장이들이 세 가지 병기를 다 만들자 손오공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인, 저희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손오공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대장장이가 대답했다. "금고봉은 천 근이고, 구치저와 강요장은 각각 팔백 근입니다." 손오공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한 뒤, 세 왕자를 불러 각각 병기를 들게 했다. 세 왕자가 옥화왕에게 "아바님, 오늘 병기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옥화왕이 말했다. "이 병기를 만드느라 우리 부자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구나." 그러자 막내 왕자가 말했다. "신선 같은 스승님께서 법술을 펼쳐 저희를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괴들까지 쓸어버려 후환을 없애 주셨으니, 참으로 세상이 평온하고 태평성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때 옥화왕 부자는 대장장이들에게 수고했다며 상을 내리고, 다시 폭사정으로 가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당승은 손오공 일행에게 왕자들의 무예를 빠르게 가르쳐 주어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일렀다. 세 사람은 각자 병기를 휘두르며 왕부의 뜰 안에서 하나하나 무예를 전수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세 왕자는 모두 무예가 능숙해졌고, 적을 물리치는 법과 공격과 방어의 완급 조절법 등 일흔두 가지의 초식을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다. 이는 첫째로 왕자들의 마음가짐이 단단했던 덕분이고, 둘째로는 손오공이 먼저 신통한 힘을 가르쳐 준 덕분이었다. 덕분에 천 근 무게의 봉과 팔백 근 무게의 갈퀴와 지팡이를 모두 가볍게 들어 올리고 휘둘러 수 있게 되었으니, 처음 스스로 익혔던 무예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를 시로 찬양하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복된 인연으로 신령한 스승을 만났으니 무예를 익히다 어찌 사자 요괴를 마주할 줄 알았으랴. 사악한 무리를 쓸어버려 나라를 평안케 하고 일심으로 귀의하여 변방을 안정시켰도다. 구령원의 신묘한 이치가 하늘의 섭리와 맞닿아 있으니 사방으로 정통한 도의 열매를 맺는구나. 가르침을 전한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니 옥화주는 영원토록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왕자는 다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스승들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커다란 쟁반에 금과 은을 가득 담아 정성을 표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어서 안으로 들여보내시오, 어서. 우리 같은 수행자들에게 이런 게 무슨 소용이오?" 곁에 있던 저팔계가 거들었다. "금은을 감히 받을 수는 없지만, 저 사자 요괴들에게 웃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으니 우리에게 새 옷 한 벌씩만 바꿔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왕자는 즉시 재봉사들에게 명하여 원하는 색깔대로 푸른 비단, 붉은 비단, 갈색 비단을 가져다 세 사람의 옷을 지어 올리게 했다. 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옷을 받아 입었다. 비단으로 만든 도포를 갖추어 입은 그들은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다. 성 안팎의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 손오공 일행을 보고는 마치 나한이 세상에 내려오고 살아있는 부처가 강림한 듯 칭송했다. 북과 징 소리가 울려 퍼지고 깃발이 나부끼며 거리가 가득 찼다. 집집마다 향을 피우고 문마다 등불을 밝혀 환영했다. 한참을 지나서야 네 사람은 성 서쪽을 떠날 수 있었다. 이번 일을 통해 사자 요괴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그들은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게 되었다.

시로 이르되, 근심 걱정 없이 부처의 세계에 이르렀으니 지극한 정성으로 뇌음사 성불을 향해 가도다.

결국 사자 요괴들의 위협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결국 영산까지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언제쯤 도착하게 될지는 알 길이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